



7

197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8. 7 호

(루게 369)



◆◆◆◆◆◆◆◆◆◆ 차 례 ◆◆◆◆◆◆◆◆◆◆

수령님 높이 모신 인민의 영광이여	3
나는 안고가렵니다	10
봉화산에서 부르는 노래	11
소사하의 언덕길이여	12
숲속의 전설	13
청봉숙영지에서	22
영 광	23
봄과 겨울	23
새벽이슬	24
조국의 변천을 두고	34
발 자 옥 (외 1 편)	36
우리의 땅	37
어린 딸에게	38
전사의 노래	39
물노래, 위대한 사랑의 노래	47
수령님, 병사는 전투임무수행중입니다 외 2 편	48

청춘의 랑만	49
흐르는 시간을 두고	50
우리는 그 시절에 함께 싸웠다	51
옛 전선길을 걸으며	52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55
대한 진실한 화폭	55
다양한 양상의 작품을	59
단편소설의 흥미	61
용해공들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시집을 더 많이!	64

수령님 높이 모신 인민의 영광이어

봄빛이 흐른다
은혜로운 강산에
희망으로 설레이고 위훈으로 꽃이 피는
새 7개년의 장엄한 진군길우에
경사로운 4월의 명절이 왔다

우러러 뜨거운 가슴
따르며 행복한 인민의 가슴에
봄물결처럼 차흐르는
감사의 노래
영광의 노래

천만년 불려도 끝이 없는
영원한 이 노래를
기쁨으로 자랑으로 길이 지닌
이 땅, 이 하늘에
휘황한 새 전당을 펼쳐주시고
오늘도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인민을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

주체의 찬연한 빛발을 안고
력사가 높이 모신 우리 수령님
인민의 이 영광, 민족의 이 자랑
산과 들에 가득히 차고넘쳐라

1

즐거운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속깊은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위대한 수령님,
오로지 그이만을 생각하는
인민의 마음

이 세상에 살아
둘도 없는 귀중한 생명을
위대한 수령님,
오로지 그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바칠수 있는
인민의 이 신념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여라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 여라
민족이 오로지
그이께 자기의 운명을 의탁하여
후대들을 키우며
태양으로 우러러 따르고

조국이 오로지
그이의 뜻으로 숨쉬며
그이의 지향과 념원을 안고
드팀없이 한길로 나아가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여라
우리 조국의 영광이여라
기나긴 반세기
온갖 고초와 시련 속에서
혁명의 한길에 그이를 따르며
심장의 뜨거운 고동으로 다져지고 굳어진
생활의 진리,
불려도 불려도 끝이 없는
인민의 노래여

만경대의 뜻깊은 생가를 찾으며
사람들이여 생각하는가
이 나라 농민의 가난이
대대로 내려오며 쌓이고쌓인
그 초가집 지붕밑에서
그날에 민족이 지녀야 했던
그 운명을 지니시고
그이께서 탄생하시였음을

자기 한몸의 슬픔밖에
그 누구의 슬픔을 알수 있었으랴
이 땅의 그 모든 아이들
어머니와 가정의 품이
이 세상 모두인것으로만 알고있을 나이
그러나 그이께선
열네살 어린신 나이에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생각하시며
집을 떠나시였다

일제의 총검아래
피바다에 잠긴 조국
민족의 운명이
락조의 저녁처럼
영영 어둠속으로 잠겨들며
조국이 마지막숨을 쉬고있을 때

아 **김일성** 동지- 그이는
이 조선의 운명을 구원하시려
칼바람 부는 압록강의 나루를 건느시여
폭풍세찬 투쟁의 광야에 나서신분
조국의 슬픔, 민족의 아픔이
가슴에 그리도 크셨기에
한평생 투쟁의 시련을 각오하신분

한뼉 아버님의 투쟁을 받드시며
불요불굴의 의지로
반일투쟁과 녀성해방의 길에서
몸바쳐 싸워오신 강반석어머님

깊은 병중에 계신 어머님곁에
그이께선 계셔야 하셨고
따뜻이 돌봐주셔야 할
어린 동생들도 있었다.

아 그 어머님을 두시고 가시던
소사하의 그 봄날이여
언 두부 한모와
기울이지 않으시는 술잔을 앞에 놓으시고
형님을 찾아 천리길 달려온 어린 동생을
다시 돌려보내시던 량강구의 그 저녁이여

인간이 당하는 가장 모진 아픔을
우리 수령님처럼 체험하신이 또 있으랴
인간이 겪을수 있는
그 모든 고통과 불행
그 모든 가슴 쓰라림과 피로움의
마지막 한계점을 딛고넘으시여
성스러운 민족구원의 길에 오르신 수령님

그 걸음걸음앞에

헤쳐도 헤쳐도 끝이 없는
망망대해의 산악같은 파도처럼
시련이 앞을 막던
고난에 찬 혁명의 길이여

민족의 운명이 경각에 다달았던
잊을수 없는 고난의 행군이여
일제 100만대군의 포위,
백년래의 대강설
심한 혹한과 주립속에서
혁명의 변절자들이 대오에서 물러설 때

추호도 드팀없으신 그 걸음으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혁명의 길을
진두에서 헤쳐오신 수령님!
아 이렇게 조선혁명을 이끌어오시지 않으셨던가
원썬들과 가장 가까운 돌격의 선두에서
몸소 기관총을 잡으시고
한흡의 미시가루마저 나누어주시며
투쟁앞에 가로막는 곤난을
침단에서 물리쳐오시며...

어려운 날에나 즐거운 날에나
언제나 혁명의 진두
고난의 진두에서
이날까지 한평생을 바치시는 수령님

20년만에 개선하신 조국땅
그립던 고향집
찾아보시고싶으신 조부모님들을 지척에 두시고
강선으로 곧바로 달려가신
만경대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생각에 잠기노라

조선혁명의 첫길을 열어가신 그날부터
수천만리 헤아릴 길 없는 그 길에
자신을 위해 걸으신 그 걸음은
단 한번도 없으신 수령님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인
탄우 우박치는 최전선의 전호가에서
《세계최강》을 떠벌이던 미제를
단칼에 족치신 강철의 령장

발목이 묻히는 패허를
 몸소 앞장에서 헤치시며
 자립경제의 터전을 닦으시며
 백년이 아니라 한달음에
 사회주의공업강국을 이 땅우에 세워주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

대륙과 대양을 열구는 한랭전선을
 한가슴으로 막으시며
 우리 인민을 구원해주시고
 만풍년의 영원한 가을을
 이 땅우에 펼쳐주신 우리 수령님

주체의 빛발아래
 우리 인민모두를 영웅으로 혁명가로 키우시고
 자주와 창조로 빛나는
 존엄높은 인민으로
 이 세상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아주신
 인민의 아버지 우리 수령님

잔잔한 여울가에서가 아니라
 대하의 한복판에 뛰어드시며
 혁명의 격랑을 몸소 헤쳐가시는
 수령님 따라
 조선혁명이 걸어왔고
 수령님 따라
 력사가 가고
 인민이 가고
 장엄한 주체의 새시대가 흐르거니

아 참다운 혁명가가 서야 할 위치를
 력사앞에 세계앞에 보여주시고
 공산주의자의 가장 높은 정신과 투지를
 자신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
 그이를 수령으로 높이 모신
 인민의 끝없는 영광이여

아 위대한 우리 수령님은
 력사가 높이 모시고
 인민이 우러러
 자기의 모든 운명과 미래를 의탁하며
 목숨으로 받들어 다함없는

혁명의 위대한 태양이시여라.

2

조국이 잠에서 깨어나기전
 이른새벽에
 그이께선 하루일을 펼치시며
 천만가지 기쁨을 마련해주시고
 하루해가 저물면
 아름다운 래일의 꿈을 안겨주시여라

인민이 노예의 운명에 짓눌렸을 때엔
 그것이 가슴아프시여
 시련의 진두에 서시고
 행복한 날엔
 더 좋은 래일을 주시려
 창조와 건설의 진두에
 오늘도 서계시여라

조선이라는 이 땅과
 우리 인민의 운명을
 력사앞에 책임지시고
 그이께로 향해오는
 인민의 수많은 마음속에서
 그들의 생각을 읽으시며
 기쁨과 피로움을 헤아려보시는 수령님

자신께서 한평생을 바쳐가시며
 그렇듯 사랑을 기울여오시는
 우리 인민이 기뻐할 때면
 그래서 또 잠 못드시며
 언제나 마음속 심려를 놓으신줄 모르시여

넘고 헤쳐가는
 높은 령, 험한 길
 길아닌 길에 내리는 찬비와 진눈을
 그 누구보다 먼저 어깨에 받으시며
 오직 인민을 위해
 위대한 사랑으로 이어가시는 길이여

이렇게 걸으시였어라
 억수로 퍼붓는 비를 맞으시며
 사람의 발길 한번 닿은적 없는
 외로운 갈발섬
 감탕속에 발목을 잠그시며
 걸으시였어라

인민들의 옷감을 위하시어

새해의 첫 눈길을 밟으시며
닭목장을 찾으시고
4월의 명절날 이른아침에도
이 봄의 첫 비를 즐거이 맞으시며
질척이는 밭이랑을 걷고계셨어라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주체의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를 주시어
인민이 그것을 기뻐할 때면
거기서 자신의 휴식을 찾으시고
무엇인가 더 많은것을 주시기 위해
푸실새 없으신 그이의 그 심려

봄빛 흐르는 양지쪽에
새싹이 움트는 소리를 들으시는듯
인민의 작은 소원마저
그토록 세심히 헤아려 보시는분도
우리 수령님

천리벌에 넘치는 벼바다의 금물결속에서
채 영글지 못한 한줄기 벼이삭을 가려보시듯
수백만 아이들의 웃음속에서도
그늘진 한 얼굴을 찾아내시는분도
우리 수령님

겨울의 찬바람속에서
얼음장 풀리는 소리
제일먼저 들으시는분도
파원의 움트는 봉오리를
제일먼저 보시는분도
풀어야 할 과학의 실머리
물리쳐야 할 한랭전선의 위협을
제일먼저 찾아내신분도
우리 수령님

한없이 깊고 파사로운
그 보살피심속에서
11년제교육의 꽃대문이 세워지고
교육체제의 은혜로운 빛발아래
세상에 부럼없는 웃음과 노래
행복한 아이들의 꽃물결이 흐른다

그 자욱을 따라
공업의 대문을 열고 쏟아져나오는
기계군단들과 화학의 폭포가
고된 로동으로 굶었던
농민들의 허리를 펴주고
자동화신포등이 빛나는
공장마다 기대마다
로동은 즐거운 노래로 울린다.

아,어제날은 백두의 광야를
오늘은 온 나라 조국땅을
자신의 걸음으로 다 밟아보시고
조국의 어느 한끝
하늘 낮은 두메에도
인민이 있는곳이면 다 찾아보시며
이끌어오신 혁명
안겨주신 이 행복

어느 외진 오솔길의 풀포기에도
그이의 옷자락이 스치였고
어느 산비탈 한그루의 나무에도
그이의 거룩하신 손길이 닿은 땅

그 어느 작은 어선의 흔들리는 선실과
지방공장의 기대에도
그 어느 농장 상점의 매대
살림집 부엌에도
다정하고 심려어리신
그이의 음성이 깃들어있는 나라

사랑에 넘치시어
그이의 시간은 끝없이
사색과 구상으로 이어지고
사랑에 넘치시어
휴식을 잊으시고
또다시 먼길을 떠나시거니

오늘의 번영하는 내 조국에
어제날의 고통은 흔적마저 찾을 길 없고
오늘의 행복한 인민에게
어제날의 불행은 영영 가셔졌건만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으신것은
아, 우리 수령님 기울이시는 그 로고

수령님 걸으시는 진두의 길

그러기에 그러기에
이 땅의 그 모든것
이 땅에서 가꾸어지고
이 땅에서 마련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쓰는
그 모든것은 귀중하여라

우리가 철따라 입는 옷이
마안산의 혈벗은 그 아이들로부터 시작되어
소낙비 퍼붓는 진펄길을 헤치시며
우리 수령님 마련해주신것이기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사과가
근거지에 보내주신 조선사파로부터
포연속에서 어린 나무모를 품에 안아 가꾸
어주신
그 나날을 거쳐
우리 수령님 마련해주신것이기

우리가 누리는
인민의 권리와 자유가
백두의 얼음길 천리 눈보라 만리를 뚫으시며
아버이수령님께서 가져다주신것이기
귀중하여라
이 땅에 피는 꽃, 피는 웃음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속에서
주고받는 사람들의 다정한 목소리

귀중하여라
대동강의 맑은 물이
사시절 비껴신고 흐르는
아름다운 철의 불노을
백두고원에 설레이는 밀바다
산깊은 립산마을에 울리는
통학렬차의 기적소리
혁명의 굳은 맹세 다지시던
노을비긴 그날의 압록강기슭에서
마지막으로 바라보시던 그 조국산천
류량민의 눈물이 방울방울 먼지에 구을던
거칠은 들판 아득히
수모와 가난속에 지지눌리운채
애처로이 어둠속에 묻혀가던 조국땅에
오늘은 인민의 락원이 펼쳐졌어라

아, 온 세상이 부러워하고
싸우는 인민들이 희망으로 우러르는
주체의 대화원이
이 땅우에 꽃피었어라
하늘에 빛나는 저 별들처럼
위대한 사랑으로
위대한 진리로
그이께선 이 땅에
행복의 열매를 가꾸어주시였거니

번영하는 사회주의 내 나라
참다운 인간의 삶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그이는
혁명의 진두, 건설의 진두에서
력사의 영원한 미래를 밝혀가시는
위대한 창조의 어버이이시여라

3

혁명의 기나긴 나날
믿음과 사랑으로 뜨거운 가슴 안고
수령님 헤쳐주신 그 길을 따라
인민은 왔다.

우리 혼자라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지금도 눈보라와 폭풍 속을 헤매이고있었
을것을
피와 눈물을 헛되이 흘리며
안타까이 몸부림치고있었을것을
수령님 우리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고
걸음을 익혀주시고
신념을 주시고
힘을 주시여
우리는 오늘에로 왔다

그이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
미처 그 길을 따르지 못했고
그이의 일깨우심을
다 깨닫지 못해
마음의 심려를 끼쳐드린적
어찌 한두번이라

지나온 나날들을 돌이켜보며

송구함과 죄송스러움만이
가슴에 덧쌓이건만
인민된 도리를 아직도 지키지 못해
오늘도 그이의 깨우치심속에
우리 살고있어라

아, 우리 아버지 인민의 아버지
우리 수령님!
그이 주신 사상으로
그이 주신 사랑으로
가슴불타고있는것은
오직 수령님 위한 한마음

그이는
우리 몸을 휘감던 설한풍을
자신의 한몸으로 막아주신분
우리가 세워야 할 공장의 자리를
먼저 잡아주시고
우리가 걸구어야 할 땅에
사랑의 물길을 열어주시고
주체의 농법을 가르쳐주신분

우리 뿔고가는 포연속을
함께 가시며
우리에게 영웅의 기개를 주시고
우리가 허리띠를 조일 때
그이는 함께 조밥을 드시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분

흘러온 세월과 함께
우리의 가슴속에 년륜으로 아로새겨져
그 어떤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
뿌리깊은 거목으로 자라난
우리의 신념

그것은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면
조국은 번영하고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면
인류리상의 봄언덕에
우리가 제일먼저 올라서리라

그 신념 그 확신으로 가슴불태우며
온 정열을 다 기울여

생의 한끝까지
위대한 수령님께
우리는 충성의 한몸 다 바쳐가거니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도덕이며 량심
투쟁하는 인간의 아름다운 노래
참다운 삶의 유일한 목적

그것은
한생을 포괄하는 삶의 지향이며
생의 첫 고동이 시작될 때부터
한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지어보는
총화의 기준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우리의 충성
그것은 우리의 투쟁에 기쁨과 환희를 주는
마를줄 모르는 투쟁의 샘줄기

순금처럼 변함없이 빛나는 마음
로쇠를 모르는 영원한 청춘
이 충성의 한마음 불태워가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우리는 영원히 그이를 따르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가리라
그 길에 우리의 영예가 있고
그 길에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있고
조선혁명의 승리가 빛나고있거니

높이도 올라선 조국
새 7개년계획의 진군길이며
이 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충성의 자랑찬 활무대

휘황한 목표가 우리를 부른다
그 영광의 봉우리에 올라서면
공산주의지평선이 가까이 보이리라

얼마나 힘에 넘치고

투지와 신심에 차넘치는
우리의 전진인가
이 전진을 진두에서 이끄시여
새해의 벽두부터
또다시 첫 눈길을 헤쳐가신 우리 수령님

얼음 덮인 청천강반에서
총진군의 장엄한 신호인양
새 7개년계획의 돌파구를 뚫으시여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주시고
대안의 건설장에서
청산리의 불길우에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

가슴벅찬 이 투쟁의 나날에
자나깨나 오직 하나의 생각
승리한 새 7개년계획의 봉우리우에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실
그날의 감격과 환희로 설레이는 가슴

잊을수 없는 개선의 광장에서
그처럼 기뻐하시던 그 모습을
미제를 타승한 전승의 광장
승리한 6개년의 봉우리우에서
그처럼 기뻐하시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새 7개년의 봉우리우에
또다시 높이 모시리

민족이 그토록 갈망하던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리

아, 새 7개년의 휘황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첫해에 뜻깊은
이 경사로운 4월의 명절에
조선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어버이수령님 걸어오신
영광의 자욱을 더듬어보며
다지고 또 다지는
인민의 뜨거운 맹세여!

우리 갈 길은 멀고 험해도
우리는 수령님을 높이 모셨기에
투쟁은 영광에 넘치고
신심과 투지는 나태치거니

조선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며
주체의 위업을 누리에 빛내이며
수령님 두리에 하나로 뭉쳐
천만년 영원히 세월과 함께
위대하신 우리 수령님을
인민은 길이 따르리라
인민은 길이 모시리라 !

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

나는 안고가립니다

-한 외국인이 부르는 노래-

박 명 도

적도를 넘어
초원을 지나 찾아온 내
어찌 이대로 돌아가랴
만경대, 만경대
자주해방의 첫자욱이 시작된 땅이여

이 땅 이 흙에 뿌리박고
오늘의 주체조선이 태어났고
이 땅 이 흙에 스며있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자양분을 받아
이렇듯 찬란한 인민의 락원이 꽃피어나지 않았던가

아, 조선의 모든 꿈, 모든 리상을
싹틔우고 꽃피워주는 만경대 흙
이 흙을 내 고국 아프리카땅
끝에서 끝까지 펼치렵니다

그러면 생명의 씨를 안은 대지와 같이
인류의 어버이이신 **김일성** 동지의 뜻이 깃든
내 고국 아프리카땅 끝에서 끝까지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꽃들이 피어나리까

주체의 나라 맑은 하늘은
침략자들의 불구름에 어두워진
아프리카의 하늘과 잇닿아지고
주체의 나라 락원의 노래는

설움에 울던 흑인들의 복소리에 실려
아프리카의 온 대륙에 우렁차리니

나는 안고가립니다
내 안해의 땀으로도 한줌
내 아들의 땀으로도 한줌
그리고 마지막 이 한줌은
내 심장에 고히 얹고 살립니다

어쩌랴, 마지막 판가리싸움에서
내 다시 대지우에 못일어선들
주체의 나라 이 흙에 뿌리박고
이 흙의 자양분으로 만발할
독립된 아프리카의 꽃바다우에서
이 몸은 조국과 더불어 영생하리니

아, 만경대, 만경대
길 없는 사람에겐 길을 열어주고
힘 없는 사람에겐 힘을 안겨주는
주체혁명전사들의 고향집이여

고국만리로 떠나는 이 시각
나는 안고가립니다.
만경대 흙을
인류의 모든 꿈 모든 리상을
싹틔우고 꽃피워주는 만경대 흙을!

봉화산에서 부르는 노래

윤 두 근

못잊을 그날의 추억을 불러
열과강물결도 설레이고
새벽길 떠나신 그 자옥우에
해빛은 꽃무늬 짜며 내립니다
김형직선생님이시여

락원의 꽃바다우에 우리를 세우시려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한몸으로 헤쳐가신 선생님
아침 저녁 오르시던 봉화산마루에 오르니
압제의 구름에 묻혔던 저 하늘을 여시여
조선의 새벽을 불러오신 그 자옥 어려웁니다.

이 땅에 양춘을 불러 혁명의 길 떠나시던 그 아침
나라를 찾고 돌아와 행복하게 살자하시던 그 말씀
못잊어 아, 어제런듯 귀에 쟁쟁해
걸어가신 그 자옥우에 그리움 앞세우고
불타는 마음들이 대하로 흘러옵니다.

깊은 밤 이른새벽 선생님의 가르치심 받으려
함경도와 전라도, 먼 해외에서
조선국민회원들이 찾아오던 이 바위터로
오늘은 행복한 인민들모두가 오릅니다

아, 한줌의 흙에도 선생님의 숨결이 어려있고
한그루 나무에도 지원의 뜻이 숨쉬는 땅

몸이 찢겨 가루되여도 내 나라 찾으리라
불굴의 그 신념 메부리로 솟아
오를수록 마음 높아지는 봉화산
찾아올적마다 가슴가슴 고이는 뜨거운 생각이여

어두운 그 세월에 선생님을 모심으로 하여
조선은 새시대의 새벽을 맞이했고
혁명의 려명을 향해 걸으신 새벽길우에
태양은 솟아 주체의 노을을 펼치였거니
진정 선생님께서는
세기의 하늘가에 해와 별을 안아 올리신 은인 !

그때문에 아, 그때문에 우리 인민은
행복에 겨울 때면 그 행복 아뢰고싶어
기쁨이 넘칠 때면 그 기쁨 아뢰우고싶어
사시절 꽃물결지어 봉화산에 오르나니

김형직선생님이시여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는
우리 마음 가장 깊은곳에
언제나 선생님을 함께 모시웁니다
밝아오는 조선의 려명을 제일먼저 맞으신
선생님의 그 위대한 자옥으로
봉화산은 인민의 마음속에 영광의 노래속에
백두산과 더불어 이 세월 끝까지 빛날것입니다.

소사하의 언덕길이어

리 재 린

봄잔디 푸른
소사하언덕
헤어지는 아쉬움
그토록 크셨어도
웃음으로 웃음으로
장군님 바래이신 못잇을 그 길로-

이 밤엔
몸소 키우신 조선의 아들딸들을
장군님 유격대로 떠나보내시는
강반석어머님
어머님 슬하에서 떠나는 마음들은
키워주신 은정
헤어져갈수록 더욱 목매어
걸음마다 눈물로 쏟아져 고이는데

오래오래 저어주시는
어머님의 손길엔
봄날의 햇빛인양
오히려 밝고밝은 웃음이 어리거니

장군님의 위업에 바쳐가시는
어머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높고
장군님의 큰 뜻을 받들어가시는
어머님의 마음에 끝이 없어-

아, 소사하의 언덕길
력사의 그 땅에 거연히 솟아
백두에로 아득히 뻗어갔는가
어머님의 끝없는 사랑의 길이여 !

위대하신 장군님을
조선의 태양으로 받들어올리시고
그 위업 위하시는 길에
한생을 다하시는 강반석어머님

어리신 장군님의 손길을 잡으시고
만경봉 오르시던 그 길로부터
넘으신 령 헤지신 길

천리이라 만리이라

햇빛을 바라는 조선의 마음들을 찾아
새날신문 품으시고 넘으신 길도
그 길에 솟아있고
그토록 삼엄한 경계속에도
혁명의 무장을 나르신
말리허의 령길도
그 길에 잇닿아-

장군님 위하여 걸으신 자옥자옥
여기
소사하 언덕길에도 빛나게 어렸는가
그 사랑 별빛으로 흐르는 이 길에...

간밤도
장군님 이끄시는 그 대오로
정성의 군복 지성의 군량미 실어보내시며
어둠을 밝혀 넘으신 길

이 밤엔
그 품에 키우신 열혈청년들
장군님의 품으로 떠나보내시며
손저어 따라 오르시거늘

백두의 눈길 헤치실 장군님의 신발에
깔아드린 달비채
오리오리 어렸던 그날의 그 사랑도
못잇을 이 길에 새겨져있어-

해방의 새아침도 이 길에서 보시며
장군님의 자옥마다 피여드린 그 마음
장군님의 걸음마다 받쳐드린 그 사랑
언덕으로 솟고 길이 되어 뻗었는가

아, 조선의 어머니로 한생을 다하신 그 품에서
장군님의 품으로 끝없이 이어져간
위대한 사랑의 길이여 !
소사하의 언덕길이어 !

숲속의 전설

정 연 진

내가 도표의 한복판을 흐르는 스미다강기슭에 자리잡은 야마다선생의 저택을 찾아간것은 오후 6시 경이었다.

《기자선생이 오늘 오실줄을 알았소.》

책상을 마주하고 화보를 보고있던 로인은 늙은 이답지 않게 몸을 가볍게 일으키며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며칠전에 그와 만났을 때 다음 일요일에 취재도 할겸 한번 들리겠다고 한 약속을 아마 잊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있던 참인것 같았다.

로인은 두어장 번지다만 《조선화보》를 접어 책상우에 밀어놓고나서 나에게 의자를 권했다.

나는 그가 내주는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한때 이름있는 문필가였던 야마다로인은 지금 어느 상사에 다니는 말아들의 부양을 받고있지만 시대의 추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일조협회회원이며 평양에서 발행되는 일본글판 《조선화보》의 애독가인 그는 우리 총련출판물도 즐겨읽고 때때로 좋은 의견도 주곤하였다.

《뭐 취재라기보다 로인님이 젊은 시절 백두산일대에서 목격하였던 사실을 자세히 듣자고 왔습니다.》

나는 몸가짐을 바로가지며 허식없이 그때 일을 이야기해줄것을 요청했다.

잠시 창밖에 펼쳐진 자그마한 정원의 쓸쓸한 가을 풍경을 굽어보던 로인은 나에게로 눈길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때가 지금처럼 락엽지는 늦가을이었소.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기억이 삭막해지고 흐려진다고 하지만 나는 40여년전 그때 일을 영원히 잊을수 없소.》

로인의 주름잡힌 얼굴에는 감회가 깊이 어려여있었다.

이윽고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내가 일본의 1류급신문의 특파원으로 조선의 동북부에 도착한것은 10월 초순이었다.

출장을 떠나기에 앞서 편집국장은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었다.

《야마다상에 대한 본사의 기대는 아주 크오. <공산군>의 <토벌>에서 황군이 울리는 승리의 메아리를 우리 신문이 제일 먼저 대서특필해야겠소. 문필

능력과 용감성을 겸비한 당신의 기질이 부럽소. 성공을 바라오.》

그는 옷철을 먹인 원탁우에 한손을 올려놓고 토닥거리며 의미있게 웃었다.

려객기에 몸을 싣고 하늘을 날으는 나의 마음은 허공에 뜬 고무풍선처럼 한껏 부풀어올랐다.

나는 이번 출장을 통해 많은것을 노리고있었다.

력사적전환점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좋은 기회에 대밀림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전장의 이모저모를 장문의 기행문에 담아 편재할 욕심도 없지 않았다.

이번 취재길은 어쩌면 1류급신문사에 큰 파문을 던지는, 아니 도표와 전국에 나의 명성을 떨치는 계기로도 될것이라고 못내 바라마지 않았다.

나는 이런 공중루각을 쌓으며 흥분을 삭이지 못했었다.

하르빈에서 며칠을 폭 쉬고난 나는 《대륙전쟁의 암초》라고 하는 조선인민혁명군 《토벌》에서 군공을 세웠다는 곤노 《토벌》대장이 통솔하는 부대에 배속되어 림강과 동강의 밀림을 편답하였다.

나는 그동안 인상적인 몇편의 기사를 써서 본사에 지급으로 보냈다.

약 20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림속을 헤메며 돌아다니는 과정에 나는 어지간히 담이 커졌다. 하여 나는 불꽃이 마주치는 전장의 광경을 직접 목격하려는 욕심밑에 제 1 선 척후분견대에 들어갔다.

그런데 나에게서는 행운대신 의외에도 불행이 닥쳐왔다.

내가 속한 척후분견대가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 백두산일대에서 활약하던 어느날이었다.

하루내 수림속을 누벼가던 분견대원들속에서는 그날따라 웬일인지 숙영을 앞두고 수군수군하면서 구구한 의견이 오갔다.

이 수림속은 제 1 선전장이 아니라 여전히 후방이나 다름없다고 하면서 시내가에 천막을 치고 발판잡을 자자는 군조의 베포유한 목소리에 오장이 그래도 조선북부국경지대는 안심치 않는 《위험지역》이라고 하면서 쥐도새도 모르게 깊숙한곳에 숙영해야 한다고 그를 설유했다.

그들의 의견을 묵묵히 듣고있던 척후분견대장 하야시는 지휘판다운 침착한 목소리로 《아군》의 종

적을 감출수 있는 그런곳에 은밀히 숙영해야 한다고 오장의 의견을 지지했다.

모두들 하야시의 《선견지명》을 따르기로 했다.

하긴 매사에 각성을 높이는것은 아무모로 보나 유익한것이였다.

수림속의 늦가를 해는 빨리도 졌다.

밤이 되자 졸병들은 나무등걸에 등을 대고 누웠다. 어떤 졸병들은 찬바람에 몸을 떨며 달팽이처럼 락엽 속에 전신을 몰아넣었다.

밤기온에 등골이 얼어드는듯했다. 나는 몸을 몇번이고 뒤치락거렸다. 하지만 그때뿐이였다. 밤이슬에 옷마저 축축히 젖어들어 좀처럼 잠을 이룰수 없었다.

그럴수록 위구심 많은 하야시가 미웠다. 후방이나 다름없다는 이런곳에서 천막을 치고 편히 쉬들 무슨 별일이 있을라구... 한밤을 뜬눈으로 새우게 된것이 하야시의 불찰로만 생각되였다.

나는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다.

그런데 이때였다.

나는 귀전을 치는 맹렬한 기관총소리에 선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비비적거리며 주위를 휘돌러보던 나는 그만 뜻밖의 광경에 기절할번했다.

나의 옆에 누워있던 군조는 온데간데 없어졌고 락엽속에 몸을 묻고있던 태반의 졸병들은 영영 잠에 취한듯 일어날줄 몰랐다.

나는 그제야 척후분견대가 《공산군》의 불의의 습격을 받았다는것을 알았다.

사람의 흥망성쇠도 한순간의 실책에서 온다는 어느 문사의 명구대로 나는 하루아침새에 《공산군》의 포로가 되었던것이다.

나는 한 유격대원의 총구앞에 꼼짝못하고 서있는 하야시를 비롯한 살아남은 몇명 졸병들과 함께 잠시 후 그가 손짓하는대로 시내가로 내려갔다.

한참 내려가노라니 크지 않은 천막을 쳤던 자리가 나졌다.

옆 시내가에서는 방금 아침밥을 지었는지 타다남은 삭정이들이 실오리같은 흰연기를 맡아올리고있었다.

《아니 여기서 유격대가 숙영을?...》

나는 눈이 둥그래졌다.

《무적》을 자랑하는 척후분견대는 찬이슬을 맞으며 쪽잠을 잤는데 《창해일숙》이라는 유격대는 오히려 시내가 기슭에 천막을 치고 밥까지 지어먹으면서 숙영하다니...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 엄연한 현실 앞에 나는 아연했다.

더구나 나를 놀라게 한것은 도망간줄로만 알았던 군조가 단발머리 녀대원의 총구앞에 나와 하야시처럼 어찌할바를 모르고 서있는것이였다.

나는 착잡한 감정에 싸여 그 녀유격대원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그의 토실한 량볼은 아침해살을 받아 홍조를 띠고 있었고 군복웃저고리에 주름발이 잘 선 치마를 받쳐 입은 녀대원의 몸차림은 대렬점검을 받고난 정규군의 병사마냥 규모있고 정갈했다.

그 녀대원의 모습은 마치도 수풀속에 유난히 피어난 한떨기의 아름다운 꽃파도 같아보였다.

유격대에는 저런 아릿다운 녀자도 있다는것을 나는 처음 보았다.

녀대원은 기다렸다는듯이 군조를 우리를 호송해온 유격대원에게 넘겨주면서 무엇인가 몇마디 주고 받더니 방긋 웃으며 수림속으로 유유히 자취를 감추는것이였다.

우리는 넋잃은 사람처럼 서있었다. 살아남은 병사는 나까지 모두 일곱이였다.

호송대원은 포로들에게 무거운 배낭을 덧지라고 명령했다.

나는 금시 어느 수림속에서 수많은 유격대원들이 달려나와 포로된 졸병들을 에워싸고 따를것만 같은 무서운 생각이 갈마들어 머리로 쳐들지 못하고 앞사람들을 따라 발걸이 가는데로 걸음을 내짚었다.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인가, 설마한들 《황군》이 암초에 부딪친 쪽배의 신세가 될줄이야 그 누가 상상이나 하였으랴, 정말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란 말인가.

포로가 된 척후분견대 병사들은 총도 없이 무거운 배낭을 지고 죽음의 나락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고있었다.

귀청을 허비는 스산한 바람소리, 삭정이 부러지는 소리, 우수수 락엽지는 소리... 숲속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합창음은 마치 운명의 종말을 알리는 사형장의 총성처럼 나의 폐부를 찔렀다.

(아 이름도 모를 광막한 밀림속에서 정녕 청춘기를 고해야 하는가.)

나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통절히 한탄했다.

나의 입가에서는 긴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군가 나의 옆어깨를 가만히 건드린다.

척후분견대장 하야시였다.

그는 메밀눈을 깜짝이며 마지막 손가락 하나를 남몰래 펼쳐보이는것이였다.

나는 그의 눈길을 따라 고개를 들었다. 순간 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우리를 호송하고 가는 총천 군사는 의외에도 한 사람이었다. 그것도 나 어린 대원이었다.

나는 좀 안정된 마음으로 멀찌감치 떨어져 옆에서 걷고있는 호송대원을 훑쳐보았다.

크지도 작지도 않는 보통키, 탄력있어보이는 그 쫘한 몸매, 빨간 융단천으로 오려붙인 오각별을 단 군모밑에 드러난 동그스름한 얼굴, 쌍가풀진 눈, 약간 우로 쳐들린 오흘한 코, 첫눈에도 유하게 생겼다는 인상을 주는 얼굴모습이었다. 어찌보면 사나이로서는 귀염성스럽기도 하였다.

(아, 나를 문초하던 그 대원이 아닌가?)

방금전이었다. 《공산군》에 포로가 된 척후분견대는 너나없이 몸수색을 당했다. 나 역시 그런 일에서 레외가 될수 없었다. 나의 앞에 다가선 그 대원은 나의 옷주머니에서 금박으로 테를 두른 관동군사령관의 특별신임장을 발견했다.

미리 없애버리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수 없었던 급한 정황에서 피할수 없는 일이기도 하였다.

저 문건이 대장의 손에 들어가면 결코 가만두지 않을것이다. 분명 대렬앞에서 총살하고말겠지. 한순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휩쌌다.

나는 애오라지 구원을 바라는 손길로 대원을 지켜보았다. 한데 그 대원은 나의 심적진통을 전혀 감촉하지 못한듯 그 위험천만한 문건을 흔한 종이장처럼 여기며 잠시 두어번 뒤적거리며보는 그 자리에서 발기발기 찢어서 발로 밟아버리는것이였다.

일본글을 모르고있는것이 틀림없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하여 나는 눈앞에 닥쳐온 죽음에서 잠시나마 벗어날수 있었다고 확신했다.

(갓 입대한 신입대원인가부다.)

나는 하야시가 다섯손가락중에서 제일 가늘고 작은 마지막 손가락을 펼쳐보이던 뜻을 그제야 알아맞혔다.

나는 고개를 든채 좌우를 돌아보았다.

일곱명의 분견대원들은 묵묵히 걸음을 떼고있었다. 나의 눈앞에는 용맹하기로 이름을 떨친 분견대장 하야시의 당당한 얼굴과 혼자서도 서너명을 제긴다고 늘 손자랑을 하던 키난쟁이며 유도깨나 한다는 병사들의 모습이 언뜻언뜻 어깨너머로 보이였다.

그렇지, 끝끝한 로병 일곱이 애송이 한명을 당하지 못할가. 나는 척후분견대의 힘을 은근히 믿었다. 군사를 업으로 대필림을 중형무진하며 이날이때까

지 죽음을 이겨내고 《토벌명수》로 명망높던 병사들이거늘 어찌 이런 곤경을 뚫지 못하랴. 나의 가슴속에서는 삶에 대한 신심이 맴돌어치고있었다.

대렬은 오솔길마저 흔적을 감춘 분비, 가문비나무들이 총총히 들어선 숲속에 묻혔다. 앞을 막아서는 진대통을 넘으며 걸기란 여간만 어렵지 않았다.

식량이며 탄약을 가득 넣은 무거운 배낭이 두어깨를 지지누르고 꼭 졸라맨 두 배낭끈이 가슴을 압박하여 숨쉬기조차 가뻔다.

배낭을 추슬러올렸으나 그때뿐이었다.

《하야시상, 이게 어찌된 일이지?》

나는 호송대원의 눈치를 살피고나서 척후분견대장의 귀에 대고 입속말로 물었다.

《길가의 돌뿌리에 발이 채여 넘어진격이요. 기회를 보아서 제끼겠소.》

하야시는 피할수 없는 운명이 눈앞에 도래한 이런 정황속에서도 《황군》의 《결사정신》을 잃지 않고있었다. 그는 팔팔한 눈길로 호송대원을 쏘아보는 것이였다.

《쇠뿔은 단김에 빼야 해.》

그는 야무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까지 옆에서 걸던 호송대원은 대렬앞에서 길잡이를 하고있었다.

하야시는 절호의 기회라는듯 가슴우로 두손을 올리였다. 두 배낭끈을 마주맨 노끈을 풀어보려는 심산이었다.

나는 그의 손세를 못본체 외면했다.

군대가 아닌 나로선 그런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는 놀음을 하기엔 대가 너무나 약했다.

다만 나는 이 분견대의 도움이 아니면 관동군정에 부대의 구원을 받기를 고대했다.

총총한 밀림을 벗어나려면 아직도 퍼그나 걸어야 하였다. 앞이 트이지 않았다.

줄병들의 동향도 처음과는 달랐다.

그들 역시 하야시의 생각과 같은 모양이었다. 기슭을 치는 파도마냥 몹시 술렁거렸다.

《딱 딱!》

진대통을 두들겨대는 궁글은 소리가 하야시와 줄병들의 기분을 잡쳐놓았다.

하야시는 재빨리 손을 내리고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몸을 움츠리고 겁질린 눈길로 앞을 주시했다. 나무막대기를 하나 얻어든 호송대원이 진대통을 의미있게 두들겨대고있었다.

그것은 무슨 신호인것 같기도 하고 그 무슨 경종 같기도 했다.

호송대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등에 묻히는 락엽층을 펄펄 날리며 천천히 발자국을 옮겨짚고 있었다.

대렬은 다시 잠잠해졌다.

나는 그 무슨 기적같은것이라도 일어났으면 하고 고대했다.

《요점배치》요, 온 산은 살살이 뒤진다는 《참빛전술》이요, 《장거리추격전》이요 하면서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던 《토벌대》들은 과연 이 밀림속 어디에 숨어있는가.

수림속을 한참 걸어가노라니 어느덧 길같은것이 나타났다. 층층이 쌓인 락엽은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에 짓밟혀 삶아놓은 시래기처럼 후줄근했고 발길에 채이던 마른 풀대들은 꺾어져있어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방금 《공산군》의 대부대가 지나간게로구나?)

머리칼이 쭈뼛이 곤두섰다. 수림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구원방기란 더욱 어려워리라 생각되었다.

하야시는 나의 겁많은 행동지지가 비위에 거슬린다는듯 희뻘게 지켜보더니 앞선 줄병의 발뒤꿈치를 심술궂게 밟으며 입을 쭉긋거렸다.

그는 끝내 일을 칠 잡도리였다.

마가울의 해빛이 창살처럼 밀림속으로 스며드는 한낮이었다.

가던 발길을 멈추고 산세를 훑어보던 호송대원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포로들을 향해 《좌로 돌아, 앞으로 갓!》 하고 명령했다.

포로들은 큰길을 고스란히 눈앞에 두고 산으로 올라왔다.

또다시 처음처럼 나무가지에 얼굴을 긁히며 힘겹게 걸아닌 길을 헤쳐나가야 했다. 우리 일행이 나지막한 둔덕을 넘어섰을 때였다.

《뚜루룩...》

숲의 정적을 깨치며 기관총의 연발사격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리던 구원의 총성이 여기에서 일어난것이 아닌가.

분명 누가 누구를 치는 총소리였다.

《<공산군>을 요정내는 <황군>의 공격이요.》 하야시의 거무튀튀한 얼굴에선 한점의 반디불이 번뜩이는듯했다.

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하여 가볍게 떨렸다.

난데없이 울린 총소리는 포로들에게 소생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귀맛 좋게 들렸다. 이제나 저제나 기회만 엿보던 포로들은 총소리나는쪽으로 결눈을 팔

았다.

전쟁이란 참 별난것이였다.

이기고 지는것이 순간순간 엇바뀌는것이 일쑤인 것 같았다. 이게 틀림없이 《아군》의 총성이면 저 호송대원은 필시 우리와 신세를 바꾸게 될것이 아닌가. 포로들은 살금살금 호송대원의 눈치를 보며 배낭을 벗으려고 했다.

《딴 생각은 그만두라. 우리 기관총분대원들의 맹사격에 <황군>의 1선 <토벌대>들이 너살탕을 먹고 있다. 총소리를 듣고 모르겠는가.》

나직하나 그 어떤 기쁨이 느껴지는 호송대원의 엄엄한 목소리는 지심을 울리는 포성처럼 희망에 들뜬 포로들의 몸을 전율시켰다.

(그럼 이제 방금 지나온 락엽 밟힌 길로 《공산군》이 아니라 《황군》이 지나갔단말인가! 분명 총소리는 등뒤에서 나지 않았던가.)

호송대원의 말이 정녕 사실이라면 우리는 《황군》이 지나간 뒤를 따라 지금까지 걸어온것이였다.

나는 호송대원의 대답하고 지혜로운 행동이 저으기 놀라와 선망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나를 문초하던 때처럼 여전히 도그했다.

5련발기병총을 오른쪽 어깨에 멘것이며 풀색군복 옷저고리에 흰 목달개를 달아 몸에 맞게 입은것이며 무릎아래 가뜩히 행전을 친 그 모든 차림새는 아침에 천막앞에서 본 그 녀대원의 몸차림과 같이 단정했다.

구령도 없이 스스로 멈추어섰던 대렬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호송대원에 대한 별난 생각이 더욱 머리를 쳐들었다.

하나 선의의 감정같은것은 조금도 품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감정이 일어날가보아 자신이 두려웠다. 물기를 먹은 나무잎은 노상 신발을 적시였다.

꺾적하게 썩은 시큼털털한 물냄새가 코구멍으로 습새여든다. 습지였다. 발잔등에 무거운 연몽치를 올려놓은듯 갈수록 발자국을 떼기 어려웠다.

세계에 《무적》의 용맹을 자랑하는 《대일본제국》의 제1선 《토벌대》들의 기상이 이렇게 썩은 나무 부러지듯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것이다. 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애써 확신하며 줄병들의 등허리로 눈길을 가져갔다.

묵묵히 걸어가는 그들을 바라보노라니 불현듯 며칠전 숙영지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오른다...

머리가 어깨우에 놓인 난쟁이오장이 제법 흥에 겨

워 품속에 간수했던 편지를 꺼내어 이렇게 읽어냈다.
《우리는 래일이면 유격대에 대한 <토벌>을 이 수
림속에서 끝장내고 머지 않아 제국의 땅을 밟게 될
것이다.

요시꼬, 변치 말고 기다려다오. 사꾸라 만발하는
동산에서 그대와 만나 회포를 나누게 될것이어니 그
날을 기다려다오.》

줄병들은 웃음집을 흔들어 대며 음탕하게 키득거
렸다.

숙영을 한 다음날 길떠나기 앞서 하야시는 나에게
이렇게 확인했다.

《나는 멀지 않아 당신에게 통쾌한 사실을 보여 줄
것이요. 필시 이것은 관동대군의 승전고를 제국을
향해 소리높이 웨칠 좋은 자료로 될것이요.》

나는 그의 말을 굳게 믿었었다.

때문에 그의 말을 통해 수많은 기사의 내용들을
취재했다.

《황군》은 가는곳마다 가차없이 조선사람들을 죽
이고 그들이 사는 촌락들을 불태워버렸다.

《황군》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에 대한 《토
벌》공세를 더 한층 강화하는 한편 국경일대와 국내
비밀조직들을 파내기 위해 온갖 무력과 수단을 아끼
지 않았다. 이런 사실들은 제국의 여러 신문들에 이
미 널리 보도되었었다.

말그대로 《황군》의 위용은 《천황폐하》를 더
없이 감동시켰다.

도시와 촌락들은 말할것도 없고 수림이 무성한 산
속 어데 가나 관동군의 병사들이 욱실거렸다. 정말
관동군의 기세는 하늘의 대웅성좌라도 따올듯했다.
그러니 그들의 위세 또한 거 것이 아니였고 척후본견
대에 들어갈 용단을 내린 나의 행동 역시 파시 무리
는 아니였다.

하야시는 잠시 먼 수림의 바다우에 두어번 칼을
휘둘러대더니 앞에 있는 사시나무가지를 내리치는
것이였다...

그러던 그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사꾸라
핀 동산에서 애인을 만나자던 오장은 벌써 황천객이
되었고 긴 칼을 빼들고 위용을 떨치던 하야시는 하
루아침에 포로의 신세가 되었다.

파연 하야시가 보여준 통쾌한 사실이란 이런것이
였던가.

포로들의 막막한 가슴에 구원의 경종처럼 메아리
치던 총소리도 뜸해지고 숲속엔 정적이 깃들었다.

종내 관동군의 《정예부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보면 호송대원의 말이 사실인것 같았다. 하야

시의 말대로 《황군》의 공격이라면 내가 지금쯤은
무거운 배낭을 벗어던지고 오던 길을 되돌아섰을것
이 아닌가. 모름지기 오늘 아침에 우리를 친 조선인
민혁명군 습격조가 길목에 매복했다가 불의에 《아
군》을 공격한것 같았다.

나는 애꿎게 락엽을 차던지며 가까스로 발자국을
옮겨놓았다.

갈수록 어깨를 파고드는 무거운 배낭의 중량으로
하여 발길이 더디였다.

얼마를 가면 되는지 혹시 밤새 걸지나 않을가. 알
길이 없다. 밤길은 아무래도 위험하니 아마 저녁녘
에는 그 어데건 당도하겠지. 나는 이렇게 혼자 속으
로 생각하며 대렬을 따랐다.

걸지 않고 주저앉으면 이 수림속에 묻힌다는 절박
감이 나의 지친 몸을 앞으로 떠밀었다. 이즈음이였
다.

등뒤에서 좀 쉬어가자는 호송대원의 부드러운 목
소리가 들려왔다.

목마를 때 우물을 보는것보다 더 반가웠다. 나는
풀쉴에 엉덩이를 대고 앉았다. 너나할것없이 잠시라
도 쉬여갔으면 하고 바랐지만 처지가 처지인것만큼
감히 그런 엄두도 내지 못했고 또 그럴 그 무엇도 없
었다.

호송대원은 포로들에게 호혜를 베풀기보다 이대
로 가면 갈 길이가 더딜것을 타산하고 쉬여 가자고 한
것 같았다.

그는 포로들을 향해 땅을 보고 앉아있어야 하며
고개를 들거나 쉬쉬거리는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명하고 진대통우에 걸터앉았다.

나는 그의 엄명대로 고개를 숙였다.

하나 군사규범에 익숙되지 못한 나는 잠시후 저도
모르게 얼굴을 들었다.

마침 호송대원이 염낭에서 무엇을 끄집어내느라
고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있었다.

(담배를 피우려나.)

나 역시 몹시 담배를 태우고싶었다.

나는 손에 쥐여나올 물건을 가늠해보았다. 한데
그가 손에 든것은 담배같은것과는 인연이 없는 등사
한 종이였다.

그렇수록 나의 호기심은 더 끌리였다.

잠시후 호송대원은 종이를 뒤로 번지였다.

일순 나는 두드러지게 쓴 《중소리》라는 제호를
읽었다.

나는 그제야 짐작이 갔다. 유격대안에서 발간되는
신문임을 대뜸 알아볼수 있었다.

이런 숲속에서 신문이 발간된다는것도 놀라왔지만 나를 더욱 아연케 한것은 그보다 불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적합치 않은 이런 장소에서 여유작작하게 신문을 읽고있는 호송대원의 태연한 모습이었다.

나의 열은 지식과 좁은 식견으로써는 좀처럼 그의 담력을 헤아릴수 없었다.

내가 하르빈에서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모모한 인물들과 면담과정에 얻어들은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들은 《황군》의 포위속에 든 조선인민혁명군은 쉬지도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굶어죽고 얼어죽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의 말과는 달랐다.

정규군에 못지않은 차림새, 혈색이 도는 얼굴, 튼튼 몸가짐. 그뿐인가, 이 숲속엔 종이도 등사잉크도 등사기도 다 있지 않는가.

이 신비스러운 숲속은 관동군의 안전한 《후방》이 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의 활무대였다.

신문을 보던 호송대원은 슬며시 얼굴을 들고 포로들의 동정을 살폈다.

순간 나는 미처 고개를 수그리지 못했다. 허공에서 눈길이 마주쳤다.

강한 물체에 머리를 되게 얻어맞은 때처럼 정신이 아찔했다.

《7번, 일어났 !》

호송대원의 벽력같은 고향소리가 고막을 쳤다.

우리는 떠나기에 앞서 이름대신 번호를 부르게 되어있었다.

나는 무거운 몸을 가까스로 일으켰다.

나는 그의 손짓에 따라 그가 앉아있는 진대통결로로 다가갔다.

(군사가 아니라는것을 밝히면 죄가 삭감되겠지.)

《왜 명령대로 하지 않고 고개를 들었는가?》

호송대원은 따져물었다.

나는 고개를 든것은 큰 잘못이었지만 이상한 신문에 눈을 팔던나머지 그렇게 되었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군사가 아니라 신문기자라고 했다.

《알고있소.》

호송대원은 나의 절절한 목소리를 귀전에 스쳐 들으며 대수롭지 않다는듯 짝막히 뇌었다.

한순 가슴이 철렁하였다.

《아. 그러면 이 호송대원이 관동군사령관이 발급한 특별신임장에 적혀있는 내용을 알고있었던단말인가 ?!》

더는 변명한 말을 찾을수 없었다.

《특별신임장을 가지고 온 당신에게 묻고싶소. 그때 관동군이 우릴 이길것 같소 ?》

호송대원은 나의 얼굴은 힐난의 눈길로 굽어보았다.

나는 그의 눈길은 피했다.

이윽고 나는 기사다운 대범성을 발휘하여 이렇게 말했다.

《두고보아야 알겠소.》

《두고보시오. 우리는 침략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소. 우리 부모형제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이 땅의 모든 재부를 닦치는대로 앗아가는 섬오랑캐를 보면 이가 갈리오.》

호송대원은 나의 코앞에 대고 주먹을 흔들었다.

나는 화풀 놀라 뒤로 몸을 제켰다.

호송대원은 분격을 참을수 없었는지 큰 숨을 몰아쉬었다.

잠시후 그는 신문을 가리켜보이며 이렇게 말한다.

《여기에 이런 글이 실렸소. 고구려벽화를 벽체채로 뜯어가고 그 자리에 세멘트를 발라버린 일본 고고학자들의 죄행을 규탄한 기사요. 이것이 바로 섬나라 족속들의 행동이요.》

그의 목소리는 가볍게 떨렸다.

사실 일본의 각 대학들과 조선 《고전연구회》라고 간판을 댄 력사가들과 고고학자들은 조선반도에서 수많은 고적들과 문화유물들을 찾아내어 일본으로 가져왔었다.

나는 언제인가 일본의 이름있는 력사학자의 주최로 열린 《조선관》 전시회를 감명깊게 돌아본 일이 있었다. 그때 나는 조선인의 풍습과 문화유물을 얼마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생생한 기억을 되살려본 나는 일본사람들이 《학술적목적을 띠고 연구》 한다는 그것이 발굴이 아니라 도굴이라는것을 똑똑히 느낄수 있었다.

분기를 참지 못해하던 유격대원은 손에 쥐였던 신문을 급히 접어 주머니에 넣고 몸을 일으켰다.

대렬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풍한 늦가을의 저녁이 었다.

저쪽 숲과 하늘이 잇닿은 그 변두리에 피빛같은 노을이 깔렸다.

잎이 진 앙상한 나무가지들이 구슬프게 서있다. 용케 붙어있는 나무잎마저 한점의 바람결에 거침없이 떨어진다.

풍성하게 보이던 나무잎이 생을 잃은 조락의 계절을 만났다.

노을이 꺼져가는 쓸쓸한 늦가을 저녁 습지를 걸어

가는 나의 마음은 불안스럽고 초조했다.

이제 어둠이 깃들면...

파연 하야시를 비롯한 졸병들이 《황군》다운 기질을 가슴속에 그냥 품고있으리라 그 누가 단정할 수 있단말인가?

우리 일행은 땅거미가 깃들무렵 습지를 빠져나왔다.

밀림의 바다는 평범한 숲의 연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깊숙이 패인 계곡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호송대원은 여전한 기상으로 호젓이 옷권을 잠시 주시했다.

풀이 좁아진 옷권에는 통나무 두개를 맞붙여놓은 허군다리가 있었다.

20여메터는 실히 잘 될상싶은 배좁은 나무다리 우로는 겨우 한 사람이나 건널수 있었다.

호송대원은 몸을 돌리고 곧 옆을 따라 사람의 발길이 미친듯한 오솔길로 실오리처럼 안타깝게 늘어진 오솔길을 가늠해보는것이 었다.

내림받이 오솔길은 한참만에야 점점 낮아지며 흘러간 풀과 이마를 맞대고있었다.

어느 길로 갈것인가? 외나무다리를 건널가, 아니면 에돌아갈것인가. 호송대원 역시 군사학적지형을 아는것만큼 이 위험천만한 외나무다리로 건느는것과 같은 모험은 하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는 달리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포로들을 제압하듯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에 불복하는자는 용서치 않을것이다.》

이렇게 큰못을 박고난 호송대원은 골건너편을 가리키며 《차레로 다리를 건너 다음 일렬횡대로 설것》하고 호령했다.

골건너편은 새발이 켜쳐져있었다.

질어가는 어둠, 외나무다리, 새초발, 몸을 피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내 생각이 이렇진데 화약내를 싫도록 말은 병사들의 심정이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순간 기회를 엿보아야 살수 있다는 하야시의 말이 뇌리를 쳤다.

물이 흐르지 않는 골은 그리 깊지 않았으나 그래도 조심히 건너야 했다.

평평히 짤인 활시위같은 긴장된 정황이었다. 외나무다리우에서 그 무슨 변이 일어날지 알랴. 그렇게 또 한명이 건넜다. 그다음... 이렇게 네명이 무사히 다리를 건넜다.

웬일인지 누구나 순한 양처럼 고분스러워보였다.

만만치 않은 호송대원앞에서 서뿔리 날치다가는 불장을 다 본다는 생각이 앞섰든지 아니면 절호의 기회를 노리고있음인지 알수 없다.

하나 나의 이런 속생각은 지나친 로파심이였다.

호송대원의 뜻대로 별일이 없었다.

죽음과 삶이 판을 가르는 이 외나무다리를 어떻게 건너야 하는가를 졸병들은 알고있는듯했다.

하야시도 다른 졸병들처럼 꾸부정하고 매우 더디게 발자국을 내짚으며 다리를 건넜다.

내 차례가 왔다. 내가 방금 다리를 건너서려던 때였다.

어느새 배낭을 풀어던진 하야시가 새발을 향해 몸을 재빨리 뺐다. 하자 지금까지지 눈치만 보고있던 졸병들이 와슬렁거린다. 대렬은 중심을 잃고 흩어졌다. 그 순간 《뛰면 쏜다!》하는 벽력같은 웨침이 고막을 쳤다.

졸병들은 그 웨침소리에 엉거주춤 항방없이 웅크리고 벗어나는듯했다.

하지만 하야시는 새발에 몸을 숨기며 그냥 앞으로 내달렸다.

새발은 돌개바람을 만난듯이 뒤설레였다. 키높이 자란 새와 밀려드는 어둠으로 하여 앞을 가려보기가 어려웠다.

새발에 몸을 묻고 헤엄치듯 숲속을 달리는 하야시의 대가리는 마치 사나운 파도우에 떠있는 때처럼 보이였다 사라졌다 한다.

퍼그나 멀리 갔다. 100메터 룡상선수도 따르지 못할 속도로 그는 필사의 힘을 모아 줄행랑을 놓았다.

《끝내 도망치고. 말았군.》

다른 졸병들도 하야시의 용맹을 따르려는 심산인것 같다. 또 움직인다.

하야시의 몸뚱이가 둔덕을 넘어서려는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땅!》

귀청을 찢는 한방의 야무진 총소리가 숲을 들었다 놓았다.

다음순간 《으악》하는 단말마적인 비명소리가 그에 화답하듯 숲속을 어지럽혔다.

새발에 묻힌 하야시의 몸뚱이는 다시 솟아나지 못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다른 포로들은 금시 두번째 총알이 자기 골통을 바사뜨릴것 같은 죽음의 공포에 살을 떨었다.

나 역시 그랬다.

등뒤를 훑쳐보면 나는 그만 눈을 휘둥그래 떴다.

기병총을 겨누채 짝지발처럼 두발을 딱 짚고 서있는 나 어린 호송대원의 증오가 서린 모습은 이제 울린 총소리보다도 더 무서웠다.

아무리 담이 크다한들 위급한 정황속에서도 이처럼 침착할수 있으며 아무리 능한 사격술을 가졌다한들 외나무다리우에서 그것도 길길이 자란 새초와 어둠속에 아물거리는 탈주병을 어떻게 단방에 맞히는 놀라운 솜씨를 나타낼수 있단말인가.

참으로 기적같은 일이었다.

세상엔 기적이라는것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것이 야말로 기적이 아닌가.

청동의 조각상과도 같은 그의 모습은 통마를 타고 하늘을 난다는 전설에 나오는 장수를 방불케 했다.

술직한 말로 나는 이 순간 호송대원의 그 위풍이 반만년 조선력사우에 이름떨친 명장들보다도 더 돋보이었다.

우리 일행은 여섯이었다.

대렬은 어둠속에서도 내뿜보다 더 조용히 그리고 굽을 따라 흐르는 강물처럼 산굽이길을 따라 흘러가고있었다.

죽어서야 돌아온다는 《결사정신》을 가진 《무적황군》이라고 자랑하던 이 군사들도 유격대원앞에선 한갓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다.

조각달이 희미하게 앞길을 밝혀주고있었다.

영클어진 나무가지의 그림자가 기척없이 고개를 떨구고 걷는 줄병들의 머리우에 그리고 예리한 눈초리로 포로들의 뒤통수를 주시하고있는 호송대원의 동실한 얼굴우에 열기설기 실려있었다.

나는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힐수 없었다.

지금에 와서 죽음에 대한 공포같은 비겁한 걱정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한 미지의 인간에 대한 말할수 없는 믿음이 가슴을 가득히 채웠다.

이상한 일이다. 자신의 심적변화가 의심스러웠다. 그것을 최악이라고 할지 행운이라고 할지 그 누가 무어라든 나는 순결한 의미에서 그 호송대원의 품격에 더없이 공감했다.

나는 배낭을 추슬러올리는 시늉을 하면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와 나란히 섰다. 아까처럼 또 봉변을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위구심도 없지 않았지만 나약한 생각을 애써 눌러버리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입대한지 얼마나 됩니까 ?》

나는 사실 나이에 비한 그의 언행과 행동에 탄복하였던 나머지 이렇게 물었던것이다.

아무 응대도 없다.

더위를 먹은 때처럼 가슴이 활랑거렸다. 호송대원의 비위를 거슬린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그제야 큰 실수를 했음을 느꼈다. 나는 지금 그전날의 신문기자가 아니었다. 유격대의 포로가 된 몸이었다.

나는 사죄라도 하듯 진실로 알고싶어 물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엔 증오가 피어올랐다.

《바로 1년전에 관동군정부대는 조선사람들의 부락을 불의에 들이치고 죄없는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집들을 불태웠소. 이 사실을 당신네 어용나팔수들은 <황군>이 그 무슨 큰 군공이나 세운것처럼 오도하여 보도했소. 그때 부모처자를 잃은 젊은 청년들은 피끓는 가슴을 안고 유격대에 들어갔소.》 호송대원은 비분에 넘쳐 이렇게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 이것은 군사비밀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겠는지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머리를 떼었다.

《간단히 이야기하십시오.》

《국제법엔 포로들을 죽이지 않는다고 써여있는데 조선인민혁명군에서는 이런것이 적용되겠는지요 ?》

《국제법에 무엇이라고 써여있든 우리가 상관할바 아니요. 이제 보았지요. 그런자는 가차없이 천당으로 보내는것이 유격대의 법이요. 하지만 개심하고 인민의 편에 돌아선 병사는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었소.》

호송대원은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보통 병사가 아니구나 !)

따사로운 봄벌아래서 꽃이 피듯이 뛰어난 령장의 휘하에서만 훌륭한 군사가 될수 있다. 루적된 총암사이로 솟구치는 샘의 용용한 기상도 지하수에 원천을 두고있지 않는가 !

이것은 내가 문필활동과정에서 체험하고 느낀 하나의 움직일수 없는 진리였다.

필시 저 호송대원은 측지법을 쓰신다는 **김일성** 장군님의 부하가 분명하다. 나는 확신이 어린 마음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물었다.

《**김일성** 장군님은 당신들의 사령관이시지요 ?》

《**김일성** 장군님은 우리의 사령관이시오.

김장군님께서 령술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은 <대일본제국>을 멸망시킬것ियो.》

호송대원은 마디마디에 힘주어 말했다.

달빛에 어린 그의 도도한 모습은 한갓 나 어린 청년이 아니라 풍상고초를 다 겪고난 사람처럼 진중해

보였다.

장군님의 휘하에 들어가면 둔재도 영재가 되고 농군도 대학생이 되고 보통 사람도 용장이 되니 왜병이 제아무리 독을 쓴다한들 당할 재간이 없다고 한 언젠인가 들은 민간전설이 바로 이 호송대원을 두고 이른 말이라고 생각되었다.

저 호송대원 같은 전설적용사들로 이루어진 **김일성**장군님의 부대를 당할 군사가 있을까? 필시 **김일성**장군님의 부대는 머지 않아 《대일본제국》을 무너뜨릴만한 거대한 힘으로 자랄수 있을것이다.

나는 비로소 내가 것처럼 열망하고 바라던 관동군의 승전고를 제국에 소리높이 웨칠 파문기사를 쓸수 없음을 통절히 느꼈다.

관동군의 운명은 4절기의 마지막 계절을 만난 이 밀림속과도 같이 어쩔수 없을것 같았다.

심적고뇌에서 깨어난 나는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았다.

양상한 나무가지로 뒤엀킨 메마른 밀림 저기 멀리 않은곳에서 연연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희미한 달빛을 제압하며 흘러나오는 밀림속의 불빛은 신비감을 자아냈다.

저 천고의 수림속엔 수천의 용장들이 응집해있을것이다. 이같이 수많은 용장들을 거느리신 **김일성**장군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실가.

이 순간 나의 가슴속에서는 **김일성**장군님을 만나 뵈옵고싶은 강한 충동이 지층을 치받치는 용암처럼 격렬히 솟구쳤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숙영지에서 나는 인상 깊게 나의 뇌리에 자리잡고있던, 시내가 천막앞에서 바람처럼 사라진 그 녀성유격대원을 다시 볼수 있었다.

며칠후 항일유격대의 한 지휘관을 만나 판대히 용서를 받은 나는 도중에 쓸 돈까지 받아가지고 도표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그해 겨울 실전을 통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경험을 쌓았다는 관동군정예부대는 눈덮인 수림속에 많은 병력을 파묻었다.

나는 끝내 본사편집국장으로 부터 받은 일대 파문 기사를 쓰지 못했다.

기자였던 나는 본사의 의도와는 달리 내가 겪은 이 모든 사실과 나의 정의감에 대하여 꾸밈없이 썼다. 하나 나는 그 기사를 신문에 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으로 하여 큰 봉변을 당하고 본사에서 쫓겨나고말았다...

야마다로인은 여기에서 자기 이야기를 끝마쳤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소.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것은 어느 큰 전투때 있던 일이나 도시를 치는것과 같은 요란한 이야기가 아니요. 포로가 되어 한 유격대원의 호송을 받던 하나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소. 하나의 이슬방울에도 온 하늘이 비껴있듯이 그 잇을수 없는 수림속의 하루는 내가 반생 동안 체험한것보다 더 많은것을 나에게 주었소.

나는 그때 나 어린 호송대원과 애릿한 처녀유격대원의 신심에 넘친 얼굴에서 <대일본제국>의 멸망의 그림자를 엿볼수 있었소.

관동군은 그때 벌써 싸움에서 지고있었소.

제국은 군복입은 일본청년들을 수없이 백두산밀림속에 밀어넣었지만 그때마다 녹아난것은 <황군>이었소.

현재 조선사람은 **김일성**장군님과 같은 위대한 분을 수령으로 모시였기에 이처럼 불패의 인민으로 될수 있었고 일제와 미제를 타승할수 있었소...

이 불패의 인민은 반드시 제힘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할것이요.》

로인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으로 가슴을 뚫이며 이렇게 격조높이 말했다.

나는 밤늦게야 야마다선생의 집을 나섰다.

네온등이 명멸하는 혼잡한 도표의 밤거리였지만 나의 기분은 어느때없이 상쾌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는 인민이라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나의 가슴을 가득히 채우는것이였다.

그후 나는 야마다선생의 이야기를 글로 옮기여 우리 잡지에 실었다.

청봉숙영지에서

윤 명 속

가도가도 밀림의 바다는 끝이 없구나
이깎나무 분비나무 아름답리 나무들이
하늘의 별들을 스치며
푸른 지붕을 이고선 여기
조국땅 행군길에 투사들이 하루밤 쉬어간 청봉

밀림의 달빛에 어려있는
사령부를 한가운데 모시고 선
병실이며 학습터
취사장이며 쉼터...
금시 투사들이 들어서는듯

우리 태어날 조국을 안고 지새운
수령님 모시였던 청봉
그날의 별무리가 흘러간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투사들의 숨결이 맥박쳐오는 달밝은 밤은

여기서 투사들은 잠들지 못했다
향그러운 흙냄새에 취해서
투사들은 축축한 땅우에 누워서도
걸어온 만리길보다 더 많이
고향의 산과 들을 걸었구나
천년을 걸듯 만년을 걸듯

행군길에서도 우등불가에서도
아름다운 만경대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에 젖은 고향산천이 떠올라 목메이던 투사들
다시 한번 여기서 안아보며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벌써 걸었구나
사철 오곡이 익는 고향의 들길을...

청봉이여 너는

수령님 모시고 조국땅에서 한밤을 지낸
그날에 벌써 정든 집이 되었구나
해방된 조국
아름답게 피어날 행복한 노래를
이 땅에 빛내이며 솟아올랐구나

아, 그날밤 투사들의
푸른 꿈 푸른 희망이 자라서
그렇듯 청봉이더냐
백두의 정기를 담아서
그렇듯 천년푸른 청봉이더냐

이끼푸른 구호목들
불같은 말 안고
하늘을 찌를듯 거연히 서있다
폭풍이 불어도 불멸의 기둥으로
천년을 서있다, 만년을

축축한 락엽을 깔고
투사들이 쉬어간 자리
청봉의 집으로 하여
아, 인민은 얼마나 높은집 창가에서 사는것인가
푸른 숲은 눈비를 다 막아주며
번영하는 조국의 이영으로 없어진듯

세월은 가고 또 가도
누리엔 꽃들이 웃고
넘쳐나는 봄날의 향기속에
해와 달도 별도 영원한 빛을 뿌리며
청봉이여
너는 온 나라가 다 찾아오는
영원한 조선의 푸른 집이 되었어라.

영 광

샤우끼 아자미

수령님이시여 !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당신의 그 사랑이 넘쳐납니다.

당신께서는 만민과 함께
전세계와 함께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래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리

당신의 교시는 우리의 심장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빛나고있나니
당신의 철학은 우리의 심장속에 새겨졌습니다

당신께서는 영원한 사상을 지니신 불패의 영웅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전설과도 같이 영생할것입니다.

오, 력사의 아들,
영광의 창조자이시여 !
세 세계의 건설자이시여

당신께서는 력사와 더불어 영생하시여
영광의 축복을 받을것입니다.
세계는 당신을 모신 영광으로 길이 빛날것입니다

(필자- 《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
위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임)

봄과 겨울

후쓰나 하름

수령님이시여 !
조선의 엄혹한 겨울에 비쳐진
파사로운 봄빛이여 !
만물이 소생하여 락엽이 질 때까지
파사로운 해빛이 비쳐들듯이
기

당신의 위대하고 인자한 그 사랑은
영원하리라 !

(필자- 《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
위원회》 남부지역위원회 위원임)

새벽이슬

강복레

전국농업대회에 올라가는 대표들이 떠나는 날 아침이었다. 고부리 뺨스정류소앞에는 떠나는 사람, 바라는 사람들이 길이 미여지게 모였다. 부탁의 말, 인사의 말이 오고가고 룡담과 웃음소리가 쏟아져나와 작년말에 있는 결산분배장을 련상시킬만큼 사람들은 흥성거렸다. 그래서 눈이 희끗희끗한 높은 산들에 둘러싸인 좁은 골안이 떠들썩해졌다.

서북내륙지방에서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꾼 만풍년의 기쁨을 안고 대회로 올라가는 자기네 대표들을 이렇듯 즐거운 마음으로 바래고있는것이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사람들의 가슴에는 봄내 여름내 그토록 사납고 번덕스러운 날씨를 이기고 만풍년을 마련한 자랑이 있는것이다. 이 자랑을 안고 어버이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진행할 대회로 자기의 대표들이 떠나가는것이다.

고부리에서도 제일 막바지에 있는 5 작업반 리창근반장은 흥분해서 3 대혁명소조원인 선희에게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소조원동무, 갔다오겠수다... 이거 정말...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얼굴이 넉적하고 등실한 창근반장은 이 순간 자기 마음속에 고이는 커다란 격정을 입으로 다 표현할수가 없어서 그저 이렇게만 말하고 선희의 손을 짹 잡았다. 선희의 정이 넘친 뜨거운 손길이었다. 선희도 기뻐다. 작업반장 십년에 올해 처음으로 농업대회에 올라간다는 창근반장을 바라는 선희의 마음에도 감격의 파도가 세차게 설레었다.

《반장동무, 저도 기뻐요... 여기 일은 넘려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선희는 그 크고 검은 눈을 빗내며 기쁨이 가득찬 명랑한 시선으로 창근반장을 바라보았다. 반듯한 이마, 주의깊어 보이는 눈, 코가 뾰족하고 아래턱이 좀 빨라서 얼굴이 갱끗해보였으나 그 크고 검은 눈은 언제 보아도 그속에 헤아릴수 없이 깊은것이 숨어있는것만 같았다.

뺨스가 왔다가 사람들을 태우고 시야에서 사라지자 정류소에 모였던 사람들도 하나 둘 흩어졌다. 정류소앞에 매단 화성기에서 경쾌한 노래가 울렸다.

그 노래소리에 맞춰 춤추듯 푸근한 하늘에서 한 잎씩 눈꽃이 날렸다. 선희는 천천히 관리위원회를 향해 걸어갔다. 감격과 흥분때문에 말을 더듬거리던 창근반장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불현듯 선희의 눈앞에는 그가 처음으로 이고장에 왔던 지난봄의 일이 아득히 지나간 예일처럼 그러나 생생한 추억속에 되살아나는것이였다.

X X

방금 해가 서산을 넘어 스러져가는 저녁노을의 검붉은 빛이 아직도 산마루우에 비껴있었다. 우중충한 산그림자에 가리워 산밑의 밭둔덕들은 순식간에 컴컴해졌다. 저녁어스름을 실어 붙어온 찬바람이 연한 나무가지들을 흔들며 컴컴한 밭둔덕우를 휘몰아쳤다.

선희는 바람에 쫓겨 해빛도 인적도 다 자취를 감추어버린듯한 새 비탈밭둔덕우를 다급히 뛰어가고 있었다. 그가 입은 보위색작업복은 새 군복처럼 물이 날지 않았고 머리와 턱을 감싸서 두끝을 목뒤에 꼭 동여맨 보라색 머리수건밑에 드러난 가름한 얼굴은 희고 부드러웠다. 그의 이런 모습은 아직 땅의 흙냄새도 거친 바람세도 몸에 배지 않았으며 이 거칠고 드센 자연과 맞서기에는 너무도 부드럽고 연약해 보였다. 사실 지금 밭이랑들을 뛰어넘는 그의 다급한 걸음걸이며 희고 부드러운 얼굴에는 이 엄혹한 자연의 힘앞에서 느끼는 불안의 자취가 그대로 어려 있었다.

선희가 3 대혁명소조원으로 농촌에 파견되어 이 산간농장에 도착한 이틀전까지만 해도 날씨는 그렇지 않았었다. 따뜻한 해빛이 내리쬐어 나무잎들은 더 파래지고 부풀어오른 땅에서는 땅김이 피여 올랐다. 그런데 어제밤에 때아닌 눈이 오고 날은 다시 차지기 시작했다.

새들이 날다가 산을 넘지 못하고 벼랑에 부딪쳐 죽었다는 산비탈이며 범이 길을 잃고 바위에 앉아 울었다는 범바위골, 그 이름만 들어도 서북내륙지방의 거칠은 땅과 이 번덕스러운 봄날씨는 혁명소조원의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일을 감당해야 할 선희에게 거의 두려움에 가까운 불안을 안겨주었다.

이런 불안때문에 그는 지금 분조원들이 강냉이 영양단지 모판들을 다 덮고 내려간후에도 밭이랑들을 뛰어넘으며 모판들을 살펴보는것이였다.

선희가 산비탈밭둔덕우의 모판들을 다 돌아보고 마을로 향했을 때는 어느덧 저편 산밑에 자리잡은 마을도 컴컴해졌다. 마을집들의 즐거운 저녁휴식으로 부르는듯한 그 불빛은 보기만 해도 따뜻한 방안으로 들어가고싶은 생각을 간절하게 했다.

선희는 걸음을 다그쳤다. 찬바람은 여전히 선희를 떠밀듯이 불어쳤다. 큰길에 내려서서 총총히 산굽이를 돌아서니 길복판에 트랙터의 전조등이 환히 켜 있었다. 그 불빛앞에서 서두르고있는 운전수의 모습도 보이였다. 선희는 트랙터앞으로 다가갔다.

작업반의 젊은 운전수는 선희가 가까이 왔으나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어데가 고장났어요?》

운전수는 선희를 흘깃 쳐다보고

《예.》하고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무슨 화나는 일이라도 있는 모양인가.)

작업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빨리 알고싶은 의욕이 선희를 그 자리에 붙잡아세웠다. 그는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아직 오래 걸려야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건 없을까요?》

운전수의 얼굴이 좀 누그러졌다.

《일없습니다. 추운데 어서 가보십시오.》

《운전수동무는 출지 않나요 뭐. 제가 할 일이 없으면 동무라도 해드리겠어요.》

《아니 이젠 다 돼갑니다.》

운전수의 음성은 공손해졌다. 얼굴에는 미안해하는 표정까지 어렸다. 그래서 선희는 좀더 친근하게 물었다.

《오늘 무슨 일을 했기에 트랙터가 이렇게 길에서 고장났어요?》

《에 참, 재수없어서... 3 분조의 밀거름때문에 축산반에 갔다가 차만 빠뜨리구... 생고생이지요.》

젊은 운전수는 화를 내며 두들거렸다.

선희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미처 대답을 못하는데 운전수가 볼멘 소리로

《소조원동무.》하고 찾았다.

《영양단지를 옮길 날자는 박박 다가오는데 3 분조의 모자라는 밀거름은 어떻게 하자는겁니까? 봄날씨가 이렇게 차지는 판에 밀거름없이 영양단지를 옮겨야 강냉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둔덕우의 밭들이야 더하지요.》

선희는 금시 처음 듣는 말이였다.

《3 분조에서 밀거름이 모자란단말이에요?》

《그럼 소조원동무는 모르고있었나요?》

운전수는 소조원동무가 그런 중요한 일을 모르고있었는가고 나무라는듯이 되물었다. 선희는 어깨가 더 무거워짐을 느꼈다. 이 운전수의 말속에는 소조원은 언제 여기에 왔건 관계없이 모든것을 알고있을 것이며 옳은 대책을 세워줄것이라는 소조원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믿음이 담겨있었던것이다. 그래서 선희는 솔직히 의논하듯이 물었다.

《작업반장동무는 알고있나요?... 전 반장동무가 영양단지 옮길 준비가 다 됐다고 하기에 그렇게 믿고있었어요.》

《반장동무가 모르게 뭐예요? 반장동무가 그런 립장이니 3 분조장은 안타까와 뛰어다녀도 잘 안풀린단말입니다.》

(3 분조장은 안타까와한다구?)

엇그제 첫인사를 할 때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으며 소조원의 손도 어줍게 쥐였다 놓고는 조용히 다른 분조장들의 뒤로 물러가던 처녀분조장이 생각났다. 오랜 실농군 같은 나이지긋한 분조장들속에서 유독 하나뿐인 처녀분조장이래서가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분조장의 일을 맡았다는 그가 작년보다 배이상의 영양단지모를 준비했다는것이여서 선희는 처음부터 류다른 관심을 가지게 되였었다.

(그런데 분조장은 왜 그런걸 나한테 말하지 않을까. 오늘아침에도 만났됐는데.)

《소조원동무 타십시오.》

수리를 끝낸 운전수가 발동을 걸며 찾아서야 선희는 자기 생각에서 깨어났다. 트랙터가 마을에 들어서자 선희는 곧바로 작업반선전실로 향했다. 선전실에서는 하루일을 총화하기 위해서 작업반장이 소조원을 기다리고있을것이였다.

리창근작업반장은 긴 얇은뺨이책상에 마주앉아 분조에서 올라온 《로력일평가계산서》들을 종합하고있었다. 십년간 작업반장으로 일해온다는 그에게는 모든 일이 다 원만해보였고 능숙해보였다. 넉죽하고 우중충한 얼굴은 무슨 일에서나 별로 걱정하는 빛도 없고 크게 기뻐하는 표정도 나타내지 않았다.

작업반의 농사형편은 뛰어난 편은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낙후한 축도 아니였다.

《오늘 추운데 수고 많았습니다.》

선희가 들어서자 작업반장은 고개를 들고 별로 반기는 기색도 없이 인사말을 했다. 선전실은 후끈하게 더웠다. 선희는 머리에 감았던 수건을 풀며 작업반장과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았다.

《날이 추워지는데 무슨 이상이 없습니까?》

《예, 별일이 없습니다.》

창근반장은 하던 일을 계속하며 대답했다.

《반장동무 3 분조에서 밀거름 장만한것이 적다는데 정말인가요?》

《예, 좀 적기는 하지만 적은대로 영양단지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창근반장의 태연한 대답에 선희는 좀 아연해졌다. 분조장도 안타까와하고 작업반 트랙터운전수조차 3 분조의 밀거름때문에 마음을 쓰는데 작업반장은

태연히 밀거름이 적은대로 영양단지를 옮길수 있다고 한다. 방금전 프락트르운전수가 작업반장에 대해서 불만스러워 하던 말이 생각났다.

《반장동무, 관리위원회결정에 포기당 밀거름량이 다 밝혀져있지 않나요?》

《예.》 창근반장은 이렇게 대답하고나서 하던 일을 멈추었다. 고개를 들었다.

《농사일이라는게 그렇게 딱딱 결정대로 되지 않습니다. 3 분조가 금년에 영양단지를 많이 하다보니 거기에 거름이 다 들었지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범바위골까지 영양단지를 할 생각은 못했습니다.》

작업반장은 분명 범바위골까지 영양단지를 하게 되니 밀거름이 적어질수밖에 없으며 그런만큼 이제는 어쩔수 없다고 단정해버리고있는것이였다. 선희는 이 순간 작업반장앞에서 혁명소조원인 자기의 입장을 명백히 하여야 되리라는 의식이 머리에 들었다.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는 이런 자그마한 드림도 있어서는 안된다.

선희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반장동무, 밀거름 없이 절대로 영양단지를 옮기지 못합니다. 더구나 둔덕밭이 많은 3 분조에서 밀거름없이 영양단지를 옮기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희는 말을 그치고 작업반장을 지켜보았다. 그때 처녀의 크고 깊어 보이는 검은 눈은 희고 부드러운 얼굴빛이 주는 인상과는 달리 그의 강직하면서도 동요를 모르는 적극적인 성격을 엿보게 했다. 그런 선희의 시선과 마주치자 창근반장도 좀 심각해졌다. 선희는 말을 이었다.

《이제라도 밀거름의 예비를 탐구해보자요. 봄날씨가 아직도 이렇게 찬데... 한랭전선의 영향을 막자면 밀거름부터 제대로 주어야 합니다.》

창근반장은 한동안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그럼 3 분조만은 단지 옮기는 날자를 좀 늦춰야겠습니다.》

창근반장의 어조는 소조원에게 묻는다기보다 그렇게 할수밖에 없다는것을 소조원에게 납득시키려고 하는것같았다.

《날자를 늦춘단말입니까?》

선희는 저자기 놀라면서 되물었다. 그리고 음성을 낮추면서도 예리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날자를 그렇게 마음대로 늦춰서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선희의 강경한 태도에 창근반장은 입을 꼭 다물고 대답이 없었다. 얼굴은 무표정해졌다. 그 무표정한 얼굴에서 <동무가 농사일을 알면 얼마나 알려 농사일을 하면 얼마나 해봤소?>하고 못마땅해하는 반장의 심증이 엿보이고있었다. 선희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있었다. 얼굴에 찬 랭기가 끼어어지는것 같고 무거운 중압감이 어깨를 눌렀다.

(내가 지나쳤는가... 그렇지만...)

선희는 반장이 아무리 화를 내고 못마땅해한다 하더라도 그가 하자는대로 할수는 없었다.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3 분조에 나가서 의논해보겠습니다.》

밖은 캄캄하였다. 날은 더 차진것 같았다. 선희는 따뜻한 방에서 쉬고싶던 생각은 깡그리 잊고 3 분조를 향해 걸음을 다그쳤다.

...3 분조장이 분조원들과 같이 거름을 싣고 있다는 3 분조 거름무지엿에서는 방금 거름을 실은 프락트르가 전조등을 환히 켜고 떠나가고있었다. 고장난 프락트르를 수리하느라고 늦게 들어온 운전수가 어느새 여기로 차를 몰고 나왔나싶었다. 3 분조 밀거름 때문에 걱정하던 그의 성실한 마음을 다시 보는것 같았다.

진한 두엄냄새가 풍기는 속에서 처녀들이 떠돌고 있었다.

《애, 정호동문 왜 우리보구 야단이니, 그만 싣고 가라는데.》

《철철 넘게 싣고 길에다 막 뿌리면서 가야 속이 시원해서 그래.》

《우리보군 야단해두 분조장 말이라면 움짱 못한다. 그렇지요, 영실분조장동무?》

《아니 너희들은 정말...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동무들의 악의없는 놀림에 분조장은 그만 어쩔줄 몰라했다. 처녀들은 분조장이 그렇게 어쩔줄 몰라하는것이 더 재미있는지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선희도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젊은 운전수가 3 분조일에 더 마음쓸만한 리유가 있는것이 아닌가 싶어 마음이 유쾌해졌다.

《분조장동무?》

《예?》

영실이는 고개를 돌렸으나 어둠속이어서 누구인지 인차 알아보지 못했다.

《수고들 하십니다, 저예요.》

《에게, 소조원동무.》

영실이는 반기며 다가왔다.

《나도 일 좀 하고싶어서 나왔습니다.》

《두엄일인데... 그만 두어요.》

영실이가 만류했으나 선희는 삽을 들었다. 잠시후 프락트르가 돌아와서 모두 거름을 퍼실을 때 운전수가 선희를 알아보고 옆으로 왔다.

《나왔어요? 난 소조원동무가 나올줄 알았어요.》

롱담처럼 하는 말이었으나 선희는 운전수가 그렇

게 반겨주는것이 기뻐다. 그래서 선희도 같이 룡담처럼 말했다.

《그래요, 나도 운전수동무가 꼭 3 분조에 나와있을줄 알았어요.》

소조원이 무엇인가 알아 맞췄다고 생각해서인지 처녀들은 아까보다 더 크게 소리를 내어 웃었다.

그날 일이 끝난것은 밤이 꽤 깊어서였다. 마지막 차를 떠나보내고 헤어지게 됐을 때 누구인가 선희에게 이렇게 말했다.

《소조원동문 이런 이을 못 해봤겠는데 우리보다 삽질을 더 잘해요.》

《그럼 제가 동무들의 시험에 합격된 셈이구만요.》

마음만 내키면 우스운 소리를 곧잘 하는 선희는 젊은 동무들과 같이 땀흘리며 일하고나니 즐거워져서 이렇게 대꾸했다.

그 바람에 말을 했던 동무가

《어머나, 시험은 무슨 시험.》하고 기겁을 떠는 바람에 사람들은 또 한바탕 웃어댔다.

선희와 영실이는 헤어져가는 분조원들의 뒤에서 같이 걸었다. 선희는 비로소 찾아나온 사연을 말했다.

《밀거름이 적어서 걱정한다는데 왜 말하지 않았어요? 난 오늘에야 그렇다는걸 알았어요.》

《오자마자 걱정부터 끼치는것 같아서...》

영실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끝을 흐렸다.

《그런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받들고 농사를 잘 짓겠는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혼자만 안타까와하지 말고 같이 의논하면 좋은 생각이 날수도 있어요.》

《전 우선 분조에서 예비를 탐구해보려고 했어요.》

《분조에서? 어떻게?》

《집집의 외양간이나 돼지우리도 다시한번 굽어내고 재도 더 장만하겠어요.》

영실이는 이렇게 말하고 이미 결심이 된듯이 확고하게 말을 이었다.

《우린 어떻게 하나 밀거름을 다 확보하고 영양단지를 옮기겠어요.》

《그러느라 제 날자에 못옮기지 않겠어요? 이제 사흘밖에 없는데.》

그말에 영실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어떻게 하나 제 날자에 꼭 시작하겠어요. 래일부터는 일체 밀거름 생산에 힘을 넣겠어요.》

어질고 용해보이던 영실이갈지 않게 그의 말에서는 이악스럽고 드림이 없는 확고한것이 울리고 있었다. 과연 분조장은 밀거름때문에 애쓰고있으며 모데

기고있다. 밀거름이 적은대로 영양단지를 옮길수 있다고 태연해있는 작업반장의 립장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선희는 마음이 후터워져서 영실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영실동무, 참 잘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나 밀거름을 확보하고 영양단지를 옮기자요. 작업반장동무 하고도 의논해보겠어요.》

그리고 영실이에게 힘을 주듯 진지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영실동무, 영실동무는 분조장이 되어 첫째 농산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잘 짓자요. 아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란 우리 새세대가 농촌의 주인이 되어 아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어떻게 받들어나가는가를 꼭 보여주자요.》

《예.》

영실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혁명소조원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있으며 그 뜻을 깊이 명심하고있다는 영실이의 심중한 태도가 그대로 엿보였다. 영실이와 헤어졌으나 선희의 머리에는 줄곧 영실이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어질고 용해보이는 이 처녀가 얼마나 속이 깊고 이악하고 분조의 농사를 책임진 높은 자각을 간직하고있는것인가.

그에게서 우리 농촌의 새 주인을 보는것 같아 그것이 선희를 더 기쁘게 했다.

...그러나 부족한 밀거름을 확보하는 날자가 없는 만큼 분조자체에만 맡길수는 없었다. 작업반장과 의논해서 다른 분조의 도움을 받자... 선희는 생각에서 깨어나 걸음을 멈췄다.

어느새 불이 꺼진 작업반장네 집앞에까지 왔던것이다. 깊이 잠든듯한 방안에서는 숨소리조차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때에야 선희는 밤이 꽤 깊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아까 선전실에서 자기가 3 분조에 나가 의논해 보겠다고 했을 때 곧 뒤따라 나오겠다고 하던 창근반장의 말이 생각났다.

(왜 나오지 않았을가? 다른 일이 있었겠지...)

선희는 서운한 마음을 누르며 발길을 돌렸다. 그때 골목길을 꺾어서 저벽저벽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선희는 그 자리에 섰어 어둠속을 주시했다. 중키나 되는데다 몸이 통통한 사람이 털썩거리며 다가오고있었다. 어둠속에서도 리창근작업반장의 모습을 알아본 선희는 먼저 말을 했다.

《반장동무, 어데 가셨했어요?》

《예, 관리위원회에 좀 내려갔됐수다.》

창근반장은 소조원이 밤깊어 찾아온데 대해 별로 놀라거나 반기는 기색도 없이 말을 이었다.

《비료라도 더 받아볼가 해서 내려갔됐수다. 날자

를 늦출수는 없는게고 아무래도 밀거름을 다 확보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다.》

선희는 영실이며 3 분조원들로 인해서 즐거웠던 기분이 금시 다 사라지는것 같았다.

《반장동무, 3 분조의 밀거름은 해결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예 ? 어디서 해결된단말입니까?》

《영실동무는 분조에서 다시한번 집집의 돼지우리나 외양간을 굽어내구 채도 더 장만해서...》

《앞날이 며칠이나 있다구... 이제 그렇게 해야 그게 얼마나 되겠소?》

창근반장은 선희의 말을 끊으며 시답지 않게 말했다. 좋은 생각이라고 지지해주고 더 탐구해보자고 할줄 알았던 작업반장이 오히려 심드렁해하자 선희는 인차 대답을 못했다. 어쩌면 이렇가싶어 말이 나가지 않았다.

선희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반장동무, 이제 3 분조원들이 모으는 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적으면 온 작업반이 3 분조를 지원하도록 하자요. 반장동무가 앞장에 서고 작업반에 호소하면 작업반원들은 호응해나설겁니다. 비료를 더 받는건 받더라도 밀거름은 꼭 제대로 주어야 합니다.》

선희는 침착해 지려고 애쓰며 말을 끊고 작업반장의 대답을 기다렸다. 창근반장은 내키지 않는듯이 《예.》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 대답이 선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창근반장과 헤어져서 천천히 발길을 떼는데 반장네 집 방문소리가 나고 안에서 《누가 밖에 왔댜수 ?》 하고 묻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조원이요.》

화를 내는듯한 반장의 대답이 뒤따랐다. 선희는 다리맥이 풀리고 너무 추워서 몸이 마구 떨렸다.

(어쩌면 반장동무는 그럴가. 10 년간 작업반장으로 일한분이니 경험도 많고 아는것도 많을것이다. 그러나 일은 잘못하고있다. 3 분조에서만이라도 벌써 일을 짜고들었으면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제는 정말 날자가 박두했다. 절대로 3 분조원들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된다.》

다음날이었다. 낮에 3 분조원들과 같이 집집의 돼지우리바닥을 굽어낸 선희는 저녁때 1 분조원들이 일하는 새 비탈밭둔덕우로 올라갔다. 아침에 사업조직 할 때 선희의 제의에 의해서 농사차비가 잘된 다른 분조에서 밀거름이 모자라는 3 분조를 도와주도록 작업반장과 선희가 한개분조씩 맡고 나가기로 했던것이다.

1 분조원들은 소조원이 강녕이영양단지모 옮기는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러니 생각하며 발머리로 모여왔다.

날은 컴컴하게 어두웠다. 선희는 분조원들이 다 오기를 기다렸다가 말을 꺼냈다.

《한가지 제기할게 있어서 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년농사를 잘하자고 모두 펼쳐나섰는데 지금 3 분조에선 밀거름이 모자랍니다. 이제 날자는 없고, 그래서 1, 2 분조에서 좀 도와주었으면 해요.》 선희는 말을 끊었다가 퍽 미안해 하는 어조로 덧붙였다.

《제가 그만 인차 알지 못해서... 이젠 더 바쁘게 됐습니다. 이젠 저의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3 분조에만 맡겨 둘수는 없습니다. 한 작업반에서 서로 돕고 이끌어야지 뒤떨어진 분조가 있어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집집의 외양간이나 돼지우리바닥들을 다시한번 굽어내서 3 분조를 도와주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선희는 말을 끊고 대답을 기다렸다. 이제는 날이 어두워서 사람들의 얼굴표정은 분간할수 없는 데 선희의 말은 마치 어둠속에 찾아진듯 반응이 없었다.

(내 생각처럼 락관할 일이 못되는것이 아닌가.)

선희는 불안해졌으나 이런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고 자신을 달래며 다시 말했다.

《모두 좀 생각하고 돌아가서 의논들하자요. 그럼 날이 추운데 어서 내려가자요.》

분조원들은 아무 말도 없이 일어서서 내려갔다. 발둔덕에 혼자 남은 선희의 마음은 초조했다.

《작업반장동무가 나간 2 분조에선 어떻게 됐을가. 반장동무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선 일이 아니니 거기서도 이려고 말지 않았을가.》

선희는 2 분조로 당장 가보고싶었으나 마음을 고쳐먹고 그대로 내려왔다. 1 분조의 이런 형편을 아직은 작업반장에게 말하고싶지 않았다. 래일아침 다시 한번 1 분조에 나가서 의논해보고 다른 대책을 세우고싶었다. 밤에 자리에 누워서도 선희는 근심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았다.

...새벽에 어두워서 잠을 깼 선희는 서둘러 일할 차비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머리우엔 아직도 캄캄한 어둠이 그대로 드리워 있고 날설했던 찬 랭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엿저녁까지 휘몰아치던 바람은 간밤에 좀 누그러졌으나 추위는 풀리지 않았다.

문 여닫는 소리, 수도가에서 나는 녀인들의 말소리, 아이들의 쟁쟁한 목소리, 날은 아직 어두웠으나 마을은 잠을 깨고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음도 지금은 선희의 귀박으로 흘러갔다.

(소조실에 내려가 의논해볼가. 의논해야 해결은

작업반자체에서 해야 할것이다. ...작업반에서 서로 도와주어 모자라는 밑거름을 확보해야 한다... 어떻게 할가... 모래아침은 온 농장에서 일제히 영양단지 모음기는 전투가 시작될것이다. 3 분조에서 이틀어간에 아무리 애써도 모자라는 밑거름을 다 확보하기는 어려울것이다...)

자기 생각에만 잠겨 바빠 걸어가던 선희는 앞에서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려 좀 걸음을 늦췄다. 어둠속에서 두사람이 걸어가며 이야기를 하고있었는데 그들은 가마니에다 무엇인가 무겁게 담아서 지고 가는 것이였다. 고요한 골목길에서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는 선희의 귀에도 들렸다.

《나가는 김에 그대로 3 분조에 갖다주지 분조장네 집에 모을건 뭐야.》

《모였다 한꺼번에 줘야 1 분조가 얼마나 쫓는지 알지.》

《얼마나 주었는지 알면 뭐 후해 빗받겠나. 우리 농사꾼이 제구실을 못해 소조원이 일깨워줘서야 나서니... 그런데 어제 소조원앞에선 왜 하겠다고 속시원히 말했나?》

《자네가 있었으면 말했겠지... 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중뿔나게 나서기도 무엇하구.》

《동무는 언제나 그렇게 소심한게 탈이야. 우리가 어련히 생각하고 해야 할 일을 온지 얼마 되지도 않는 소조원이 자기 잘못이라고까지 하는데 얼굴이 뜨끈해서라도 얼른 나서야지... 하긴 선녀아주버닌 소조원 보기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다구 하두만... 정말 부끄러워. 소조원이 그렇게 말할 때까지 우린 그런 생각도 못하구.》

누구인지는 알수 없었으나 그들은 소조원이 뒤따라오는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1 분조장네 집쪽으로 갔다.

선희는 기쁘다는 말로써는 다 표현할수 없는 충격에 목이 메였다. 무겁던 어깨가 홀가분해지고 어데든지 이 충격을 같이 나눌수 있는 동무들이 있는곳으로 마구 달려 가고싶었다. 사람들은 생각지 못하는것을 일깨워주고 리해시키기만 하면 호응해나서며 자기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것을 부끄러워하기까지 한다... 반장동무가 나간 2 분조에선 일이 어떻게 되었을가? 선희는 기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 2 분조장네 집쪽으로 걸어갔다. 프락프락차고엿을 지나는데 불이 환히 켜진 차고안에서 뜻밖에도 작업반장의 말소리가 들렸다.

《여보게 정호.》

작업반장의 목소리는 좀 거칠었다.

《2 분조에서 오늘아침 거름을 모을텐데 그걸 3 분

조로 실어가게.》

《그것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지요.》

시뚱해서 하는 정호의 대답이였다. 그 말에 창근 반장의 거친 음성이 더 커졌다.

《상관하지 않을 일에 끼여들지 말고 제일이나 잘하게.》

무엇인가 못마땅해서 성을 내는 어조였다. 선희는 저으기 놀라서 걸음을 멈췄다.

(무엇때문에 저렇게 언짢아할가. 일은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 2 분조에서도 일이 잘되었다는 기쁜 마음이 앞설 대신 이런 의혹이 머리를 쳐들면서 선희는 마음이 흐려졌다.

(반장동무의 성격이 그런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곧 도리를 저었다.

《성격이 어떻든 농사일을 놓고는 꼭 같은 생각을 해야 하며 같이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직은 반장과 자기와의 사이가 그렇지 못하다는것을 선희는 새삼스럽게 느끼는것이 었다. 그는 가던 길을 그대로 걸어갔다.

X X

이틀후에 예정대로 온 농장이 영양단지모 읍지는 전투에 들어섰다. 다른 분조의 지원을 받아 3 분조에서도 밑거름을 넉넉히 장만하고 영양단지모를 읍기지 시작했다. 따뜻한 비닐막속에서 고이 자라 뿌리내릴 땅에 읍겨앉은 강녕이영양단지모들은 가벼운 봄바람에 춤을 추듯 하느적거렸다. 한나절은 날씨도 따뜻했다. 영양단지모 읍기는 첫날이니 날도 알아보는게라고 기뻐들 했다. 들은 활기에 넘쳐있었다.

그런데 해가 지자 마치 심술이나 부리듯이 서쪽 하늘에 걸렸던 재빛구름이 용을 쓰면서 찬바람을 몰아다 넓은 밭에 내쫓긴 강녕이포기우에 들썩였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질것이 예견되어 오후에 소조실에서는 긴급조치 취하는 모임이 있었다. 소조책임자는 특히 선희에게 산장밭이 많은 5 작업반에서 빈틈 없는 대책을 세울것을 강조했다.

해가 지자 날은 시시각각으로 사나워졌다. 작업반으로 돌아오는 . 선희의 걸음은 전에없이 다급했다. 혹 이 추위가 서리를 몰아오지나 않겠는지- 선희는 산굽이를 돌아 작업반포전어귀에 들어서며 영양단지를 내쫓긴 밭들을 올려다보았다.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밭머리에 나무를 해다놓은 흔적도 없다. 관리위원회 결정에는 금년봄에 예견되는 서리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양단지를 읍기면 그 밭머리에다 꼭 나무를 해다놓게 되어있었다. 어느 때나 불을 피울수 있게 나무를 해다놓아야 그날일을 총화할수 있게

됐다.

선희는 오후에 소조실로 내려가면서도 작업반장에게 저녁에 꼭 나무를 해다놓고 일을 끝내자고 말했었다. 작업반장도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웬 일인가? 일을 끝내고 사람들도 다 내려온것 같은데 나무는 해다놓지 않았다.

강냉이포기들은 찬바람에 마구 몸부림쳤다. 저 한 포기 한포기의 영양단지모를 짝뿔우고 가꾸어 발으로 내 옮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였던가. 한포기라도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된다. 선희는 마음이 더 다급했다.

마을에 들어서자 선전실을 향해서 뛰었다. 3분조장 영실이가 포전에서 내려오는길인지 급히 오다가 마주쳤다.

《영실동무, 어데 가요?》

선희는 영실이를 멈춰세웠다.

《선전실에서 총화가 있어요.》

《그런데 영양단지를 옮기고 발머리에 나무를 해다놓자고 한것은 어떻게 됐어요?》

선희가 다그쳐 묻자 그때에야 영실이는 좀 주뭉거리면서 대답했다.

《오늘 못했어요. 단지를 너무 많이 떠났대서 방금 전까지 심었어요.》

《반장동무가 나무하는걸 조직 안했어요?》

《아니... 첫날인데 계획보다 더 해야 보고하기 떼뻘하다면서 어두울 때까지 하자고 했어요.》

선희는 가슴이 후두두 떨렸다. 영양단지모를 옮기고 발머리에 나무를 해다놓게 된것은 엄연히 관리위원회 결정인데 반장동무는 그 일도 조직하지 않았다. 그러고보니 3분조의 밑거름문제도 마찬가지다. 일을 짜고들어 조직했으면 할수 있는 그는 영양단지를 많이 했기때문에 그렇게 된것이니 어쩔수 없다고 태연해있었다.

이제 와서는 모든것이 명백해지는것이였다. 창근반장의 본질적인 결함은 결정서앞에서는 손을 들어 하겠다고 결의하고 또 앞에서는 《예.》 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조건과 환경을 구실로 일을 짜고들어 조직하지 않으며 적당히 뺄가능대로 하고있는것이다. 이런 일본새가 창근반장에게는 하나의 고질처럼 범상한것으로 되어있다. 3분조밑거름 문제가 것처럼 심각하게 제기되었지만 반장동무는 그 일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것이 명백해졌다. 결국 사상혁명이란 단순한것이 아니며 굳어진 낡은 사상의 완고성을 바로 잡는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선희는 새삼스럽게 깨닫는것이였다.

한순간에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쳐든 선희는 결연

히 영실이에게 타이르듯 말했다.

《영실동무, 아직은 서리가 내린다는 기상예보가 없어요. 그러나 날이 이렇게 추워지는데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이제라도 분조원들을 동원할수는 없을까요?》

《이제요?》

영실이는 되묻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다.

《동원하겠어요. 우선 집에 있는 나무라도 몇단씩 지고 올라가겠어요.》

영실이는 돌아서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다.

《반장아저씨가 기다릴텐데 어떻게 할가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가서 말하겠어요.》

영실이는 돌아서서 어둠이 깔린 골목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선전실에는 창근반장과 함께 분조장들도 있었다. 담배들을 피우며 이야기들을 했다. 분조장들의 이야기에서 대번에 느낄수 있는것은 오늘 계획보다 영양단지를 많이 옮긴 만족감이였다.

《반장동무, 날이 갑자기 차지는데 오늘밤에 일없을가요?》

선희는 온돌에 올라서지 않고 문가에 서서 물었다. 선전실은 방안에 들어와서 신을 벗고 온돌에 올라서게 되어있다. 창근반장은 걱정하는 빛도 없이 대답했다.

《아직은 기상예보가 없는데 일없겠지요. 어서 이리 올라오시오.》

아래목 자리를 내며 그는 선희에게 올라오라고 권하다가 《3분조장은 왜 아직 안오나.》 하고 혼자 소리를 했다.

선희는 문가에 그대로 서서 큰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했다.

《3분조장은 제가 다시 발으로 내보냈습니다.》

뜻밖의 말에 반장의 시선이 올라갔다.

《발에는 왜요?》

분조장들도 일제히 선희를 쳐다보았다.

《영양단지를 옮긴후엔 발머리에 나무를 해다놓게 되었는데 하지 않았더만요. 총화야 일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아요.》

선희의 말은 침착했으나 어찌나 예리했던지 방안의 공기가 단박에 긴장해졌다. 창근반장은 말없이 손에 들었던 담배를 깊이 빨았다. 분조장들은 소조원에게도 작업반장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은채 입을 다물고있었다.

창근반장이 말했다.

《서리가 오면 기상예보가 있지요. 오늘이야 첫날인데 그걸 생각할새가 있었나요? 래일부터 합시다.》

(래일부터 한다구? 오늘 해야 할 일을?)

선희는 명백하게 말했다.

《래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옳긴 발엔 오늘 해야 합니다. 결정하고 하자고 한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한다는 립장에 서야 합니다. 이제라도 사업조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합시다.》

분조장들이 일어섰다. 그들이 나가고 발자국소리가 울타리밖으로 사라질때까지 창근반장은 그대로 앉아서 담배만 태우고있었다. 선희는 지금 창근반장의 심중이 어떠하리라는것을 짐작하고도 남았다.

그러나 선희의 마음속에서도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었다.

《반장동무, 한랭전선의 영향을 막고 농사를 잘하자고 하는데 일을 그렇게 해서야 됩니까? 오늘 할일을 안했다가 오늘 밤에라도 서리가 내리면 어떻게합니까?》

선희는 밖으로 나가려고 돌아섰다. 그러나 그 순간 창근반장이 가지고있는 본질적인 결함을 꼭 깨우쳐주어야 한다는 소조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다시 돌아섰다.

《전 반장동무한테 꼭 하고싶은 말이 있습니다. 반장동무는 결정할 때는 하겠다고 찬성하고 또 앞에서는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일을 짜고들지 않고 적당히 돼가는데로 하고있습니다. 3분조의 밑거름문제도 그렇고 이번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장동무처럼 일해서야 어떻게 당정책을 정확히 관철할수 있겠습니까?》

창근반장의 얼굴이 불길해졌다. 그는 까닥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었다. 선희는 말을 끊었다가 절절한 심정으로 심각하게 말을 이었다.

《반장동무, 우리는 우리 일부 일군들이 이렇게 일하는것때문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얼마나 심려하고 계시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창근반장은 아무 말도 없었다. 손에 든 담배불이 꺼졌으나 다시 불일념도 안하고 그대로 앉아있었다. 선희는 밖으로 나왔다. 2 분조발쪽으로 올라가느라니 분조원들이 나무를 이고지고 발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밑에 1 분조발쪽에서도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선희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3 분조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이제는 서리가 와도 아무때나 달려가서 불을 지필수 있게 되었다. 일은 바로 잡아 줬듯했으나 선희는 웬일인지 마음이 괴로웠다.

(반장동무는 지금 나를 야속하다고 원망할것이다. 그러나 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심려하시는 농사일이 잘되기를 바라며 한포기의 강냉이라도 한랭전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잘 자라기를 바랄뿐이다.

그리고 모든 일군들이 어버이수령님 의 높은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기를 원할뿐이다. 참... 나는 어떻게 하면 반장동무를 더잘 도와 줄수 있을가...)

선희는 이런 괴로운 생각때문에 무거운 걸음으로 3 분조원들이 일하는곳으로 올라갔다. 여기저기 나무를 쌓아놓고있는 동무들속여서 뜻밖에도 프락프르운전수 정호의 으시대는듯한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홍, 내 말을 새겨 들으란말이요. 분조의 주인들이 누가 하란 말을 안했다고 해서 안하면 주인구실을 잘도 하겠소.》

쨍쨍한 처녀의 목소리가 야무지게 대답했다.

《정호동문 작업반의 주인이 아니구 뭐 강건너 사람이에요? 그렇게 큰소리만 칠려면 우리한테 오지 말아요.》

《애, 너 왜 정호동무를 오지 말라구 하니. 그러다 분조장한테 혼날라구.》

누구인가 톱담조로 이렇게 말했으나 영실이가 성이 나서 내쏘았다.

《너희들은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지 말아라. 톱담이라구 막 하는줄 아니. 우리가 주인구실을 못 했다는 말은 옳아. 정호동무도 비웃는것처럼 말하지 말구 비판하려면 옳게 해요.》

영실이의 말이 몹시 날카로왔는데 그만 정호가 우스개소리를 해서 웃고말았다.

《이거 뭐 난 동네 북인가, 사방에서 치구. 칠테면 쳐라.》

선희도 그들에게로 다가가며 웃었다. 짧은 동무들의 명랑한 웃음과 그들의 그 웃음섞인 가벼운 질책에서 자신들을 뉘우치고있는것을 들었을 때 선희는 방금전의 그 괴롭던 마음도 가벼워지는것 같았다.

(반장동무도 자신을 돌이킬 때가 있을거야. 나는 믿어.)

3 분조원들과 같이 일하고 와서 하루일을 총화하고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온도계를 바깥기둥에 내다 걸었다. 그러나 걱정스러운건 기온이 제일 낮아지는 3 시나 4 시 사이를 놓치지 않고 관찰해야 하는데 그때는 누구나 제일 깊이 잠드는 시간이다. 잠이 들었다가 그 시간에 깨어나지 못해서 늦어지면 큰일이 아닌가.

선희는 온도계를 밖에 내다 걸었으나 이런 생각때문에 마음을 놓을수가 없었다.

차라리 그 시간까지 잠자리에 눕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이상현상이 있으면 관리위원회에서 연락이 오겠지만 제일 막바지에 있는 작업반이니 혹 연락이 늦을수도 있다. 선희는 기온이 제일 낮아지는 새벽녘까지 잠자지 않기 위해서 자리에 눕지 않기로 결

심했다. 못건디게 감기는 눈을 비비고 책을 펴들기도 하고 문을 열고 찬바람을 맞기도 했다. 벽시계가 두점을 쳤다. 선희는 밖으로 나갔다. 날이 더 자진것 같았다. 온도계앞에서 성냥불을 켜니 날이 차진것처럼 느낀것은 그의 마음뿐이 었다. 안도의 숨을 내쉬며 잠시 그대로 마당에 서 있었다. 깊이 잠든 산촌의 밤은 차고 고요했다. 추위와 어둠과 정적만이 별 많은 하늘밑을 가득 채우고있는것 같았다. 그러나 잠시 마당에 서있노라니 주절대며 흐르는 마을앞에 개울물소리며 산에서 산세가 깃을 푸득이며 날아가는 소리, 그리고 먼산에서 우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치고있었다.

선희는 문득 이 밤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온 나라의 농사일을 심려하시여 어느 농장의 포전길을 걸으시지 않는지 북부내륙지방의 이 사나운 봄날씨때문에 마음 못 놓으시고 계시지 않는지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그이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서라면 자기는 몇날 몇밤을 이렇게 지새워도 일없다고 마음속깊이 다짐했다.

못건디게 물려들던 줄음이 씻은듯이 달아났다. 선희는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 책을 펼쳐들었다.

...정작 서리가 내릴것이 예견된다는 기상예보가 올라온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후였다. 선희는 그사이 매일같이 새벽기온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 때까지 잠자리에 눕지 않았다. 쪽 내려가던 온도계의 수은주가 다시 올라갈 때에야 마음을 놓으며 날썰녘의 쪽잠에 들군했다.

아침이면 잠을 못잔 피곤이 눈에 가득 실린채 이제는 별에 타고 찬바람에 거칠어진 얼굴에 안도의 빛을 띠고 포전으로 달려나갔다.

서리가 내릴것이 예견되는 그날밤은 더 긴장해졌다. 2시가 지나자 선희는 거의 온도계를 지키다싶이 했다. 8시가 지나 4시가 가까왔을 때 수은주는 예견한대로 여느날 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다.

선희는 그길로 마당을 뛰어나왔다. 멀고 가까운 밭에 내쫓긴 술한 강냉이가 찬서리에 맞아 쓰러질것같은 다급한 생각부터 앞섰다. 작업반장네 집으로 가려던 그는 작업반장네 집에 갔다가 분조장들에게 알려려면 시간이 늦어질것 같아서 곧추 가까이에 있는 2분조장네 집으로 뛰었다. 3분조장과 1분조장에게까지 알리고 작업반장네 집으로 향했을 때는 어느새 달려나온 분조원들이 포전으로 내 달았다. 선희가 작업반장네 집앞에 갔을 때 방금 관리위원회에서 연락을 받은 작업반장이 급히 밖으로 나오고있었다.

《소조원동무, 서리가 내린다는 연락이 왔수다.》

《예, 모두 밭으로 나갔어요.》

《나가다니요. 벌써 연락이 왔단말이요 ?》

창근반장은 영문을 몰라 물었다가 어둠속에서도 발둔덕이며 골짜기에 피어오르는 불빛을 알아보자 고개를 돌렸다.

《아니 벌써 소조원동무가...》

놀라는 창근반장의 음성에는 전에 들어볼수 없었던 걱정이 울리고있었다.

《반장동무, 밭에는 다 나갔으니 이제 는 집에 계시는 할머니들에게 말해서 굴뚝으로도 연기를 피워 올리자요. 제가 서당터골짜기로 갈테니까 반장동무는 옷마을에 들려주세요.》

《예, 그렇게 합시다.》

창근반장이 선희의 말에 이렇게 시원스럽게 대답한적은 아직 한번도 없었다.

선희는 서당터골짜기 집들로 뛰어다니며 할머니들에게 아궁에 불을 지피도록 설복도 하고 같이 지피기도 했다. 잠시후 집집의 굴뚝에서도 연기가 피어올라 온 골안이 짙은 안개같은 연기로 짙 찼다. 선희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후 내쉬고 포전으로 발길을 옮겼다. 동쪽 산마루우에 알릴듯 말듯 희속한 빛이 어렸다.

(벌써 날이 새누나.)

시련의 한밤을 지새고 승리의 새날을 맞는듯한 장엄하고도 상쾌한 기분이 폐부를 찔렀다.

선희는 걸음을 다그쳤다. 어제 영양단지를 내쫓긴 3분조의 제일 높은 범바위골 발둔덕으로 올라갔다. 여기저기 불무지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피어 올랐다. 어느덧 구름 한점없이 맑은 동쪽하늘가에 가벼운 노을빛이 떠오르고 어둠은 산우에 내려 앉았다. 컴컴하던 산우에서도 차츰 나무우듬지들의 형태가 드러나고 그 색깔마저 뚜렷해졌다. 선희는 저쪽 밭머리에서 허리를 굽히고 강냉이포기들을 들여다보고있는 창근반장과 3분조장 영실이를 보았다. 그쪽으로 걸어갔다. 먼저 허리를 편 영실이의 얼굴에 밝은 웃음이 어려있었다. 창근반장의 얼굴에도 안도의 빛이 보였다. 그들의 그런 얼굴을 보자 선희는 구원했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자연의 횡포를 이겨냈다는 자랑 그리고 이제는 그 어떤 자연의 광란도 이겨낼수 있다는 새로운 신심으로 가슴이 뭉뚱해왔다.

영실이가 먼저 선희를 알아보았다.

《소조원동무, 강냉이일에 이슬방울이 맺혔어요.》

《이슬방울 ?》

선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인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순간 찬서리가 녹아 강냉이일에 물기가 맺혔다는것을 알았다. 호기심에 끌려 선희도 포전으로 들어섰다. 파랗고 꽃꽃한 작은 강냉이일에 은구

슬같은 이슬방울이 맺혔다. 다치면 굴러떨어질것 같은 맑은 이슬방울, 선희는 그 무슨 신기한 보물이라도 보듯 애어린 강냉이잎에 맺힌 작은 이슬방울을 들여다보았다. 까닭모르게 눈물이 펴 돌아 인차 허리를 펴지 못했다.

그때 창근반장이 영실이에게 말했다.

《분조장, 어서 소조원동무하고 같이 내려가요. 소조원동무는 벌써 며칠밤 잠을 못잤소.》

(반장동무가 어떻게 알까?)

선희는 의아해서 허리를 폈다.

《소조원동무, 이젠 내려가서 눈을 좀 붙이시오. 치호네 할머니한테서 다 들었습니다. ...소조원동무의 그 뜨거운 마음이 서리를 녹였다고 합니다.》

선희는 처음으로 창근반장에게서 인간적이며 감동에 젖은 진심의 말을 들었다.

선희도 마음이 즐거웠다.

《일없습니다. 이런 아침에 무슨 잠이 오겠습니까.》

눈치빠른 영실이가 발둔덕으로 달려나가며 분조원들에게 소리쳤다.

《해가 떠오르게 됐어요. 내려가자요.》

분조원들은 떠들썩 고아대며 내려갔다.

선희와 창근반장은 같이 분조원들의 뒤에서 걸었다.

《소조원동무.》

창근반장은 한참 걸다가 이렇게 불러놓고 웬 일인지 좀 머뭇거렸다.

《이거... 소조원동무 볼 면목이 없수다. 소조원동무가 그렇게 며칠째 밤을 새웠다는걸 난 오늘 아침에야 들었으니...》

창근반장은 말을 끊더니 무거운 표정을 하고 묵묵히 걸었다. 가슴속에 그 어떤 커다란 충격을 체험하고있는 사람이 가지는 그런 심중한 빛이 그의 얼굴에 어려있었다. 선희는 반장이 지금 무슨 중요한 말을 하고싶어한다는것, 그러나 차마 말을 꺼내기를 저어한다는것을 알았다. 알았다기보다 마음으로 느끼고있었다. 그래서 먼저 명랑한 어조로 말을 했다.

《반장동무, 올해 농사가 잘돼서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면 그뻔 모든걸 돌이켜보자요, 교훈도 찾고 경험도 나누자요.》

《난 벌써 큰 교훈을 찾았수다. 저번에 소조원동무가 한 말을 깊이 생각해봤수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일을 되는데로 하고 되는데로 살았다는것도 깨닫

지 못하고 일해왔수다. 제판에는 이젠 주체농법도 알고있고 농사한 경험도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농사라는걸 알것 같지 않는 소조원동무의 말을 시답지 않게 여졌됐수다. 이젠 제 솔직한 심정이었수다.》

창근반장은 생각에 잠긴 어조로 말하고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어쭙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소조원동무가 일하는걸 보구 여기 오랜 농사군들도 깨달은게 많수다.》

소조원에게 자신에 대해서 지난날 자기가 생각하고있던 모든것을 숨김없이 말한 창근반장의 표정은 좀 밝아졌다.

모든 일이 원만해보이고 자기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을듯이 보이던 창근반장에게서 이렇듯 사심없이 솔직한 심중의 말을 듣게 되리라고는 선희도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더구나 자신의 잘 못을 허심히 터쳐놓는 작업반장의 진정앞에서 선희도 그 어떤 심중한 교훈을 받아안는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내세우신 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는 추호의 동요도 모르며 그를 위해서 자신이 먼저 앞장서 일하고 아글타글 애쓸 때 사람들은 자연 따라나서며 믿음을 준다는것을- 진정 같이 몸적서 일하고 같이 애쓸 때 심중을 터놓는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합쳐진다는것을 선희는 지금 온 마음으로 깨닫는것이였다. 이렇게 마음이 합쳐지고 뜻이 맞을 때 그 어떤 어려운 일도 그 어떤 사나운 자연의 광란도 능히 이겨나갈수 있을것이다. 지금 선희에게는 이 교훈이 무엇보다 귀중했다.

X X

눈꽃은 더 굵어지고 발이 잦아져서 높은 산들에 둘러싸인 고부리골안이 뽕얀 눈발속에 잦아든듯했다. 작업반장 10년에 처음으로 전국농업대회에 참가한다는 창근반장을 바래고 나서 불현듯 지난 봄일을 회상한 선희는 즐거운 마음으로 소담한 눈송이들을 바라보았다.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농사일을 자연의 힘에 의거했던 옛사람들의 소박한 념원을 그대로 말해주는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사람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그 어떤 자연의 변덕에도 끄떡없이 해마다 만풍년을 이룩하고있다. 눈은 점점 더 굵고 소담하게 내렸다.

조국의 변천을 두고

김익철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받들고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는 우리 조국, 단 한순간의 멈춤도 없이 변모해 가는 우리 조국을 두고 외국의 수많은 벗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는것이다.

조국의 비약적인 변모는 아침저녁으로 현실을 대하며 살고있는 우리들마저 놀라리만치 눈부시다.

그러나 우리 조국의 변천을 두고 말할 때 눈에 띄는 이러한 외형적인 변화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일면적일것이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시각적으로는 띄이지 않으나 더 값높고 귀중한 변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열의는 매우 높으며 나라의 정세도 대단히 좋습니다.》

얼마전 나는 조국 복단의 외진곳에 자리잡은 한 광산을 찾은 일이 있다. 켜 오래전에 들렸던 힘이 있는 이 광산은 구 면모에 있어서 나에게 인상적으로 추억할만한것을 별로 남겨주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금 광산은 면모로부터 완전히 새로왔다. 도시를 방불케 즐비하게 들어선 다층주택들, 종교, 영화관, 상점, 편의시설들, 넓고 반반한 도로들, 활기에 넘쳐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들...

한적한 산골이라는것을 잊으리만치 모든것이 변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우리 조국의 어데를 가나 흔히 보게 되는 외형적인 변화였다. 비록 눈에 띄이지는 않으나 이 값높이 쳐야 할 시대적변천을 나는 갱안에서 새롭게 찾게 되였다.

나를 안내하게 된 갱장은 나이 쉰은 잘 된 성격이 호방한 사람이었다.

규정대로 안전모를 쓰고 카바이드등을 든 나는 갱장을 따라 갱안으로 들어갔다.

《여기를 조심하시오 !》

갱장은 내앞에서 걸으며 자주 같은 말은 반복했다. 수직갱 승강기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몇미터갱으로 내려갈까요 ?》

갱장의 친절한 물음이었다.

나는 아무데건 상관없다고 대답했다.

《120미터갱으로 내려갈까요 ?》

《그러지요.》

승강기는 우리를 싣고 밑으로 내려갔다.

한참동안 시간이 지나서 승강기가 움푹하며 멈춰섰다.

《다 내려왔습니다.》

갱장은 승강기문이 열리자 이렇게 말하며 먼저 나섰다.

우리는 속보가 주련이 나붙은 갱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어찌나 넓은지 천정끝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이거 갱안이 굉장하구만요 !》

나는 끝내 감탄을 숨기지 못했다.

《허허 ... 뭐 아직 ...》

갱장이 레사로이 받는 말이였다. 그런데 나의 눈앞에는 또 하나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다.

우리앞으로 광석을 무드기 실은 자동차가 마주 오는것이 아닌가. 요란한 엔진소리로 보아 《자주》호차가 틀림없었다. 마치도 갱밖에서 자주 만나군하던 《자주》호자동차를 보는것 같았다.

《아니, 갱안에서 자동차가 다닙니까?》

《예, 저놈이 들어와 큰일을 하지요.》

갱장은 태연하게 웃으며 나를 돌아다 보았다. 미구하여 차는 방향을 돌려 적재함을 우리쪽으로 향하고 뒤걸음쳐왔다. 얼마를 더 나가니 조구통이 있었다.

《자주》호는 육중한 적재함을 들며 조구통에 광석을 쏟아부었다.

쿠당당탕탕 ! 요란한 소리를 내며 조구통으로 광석이 쏟아져내려갔다.

나는 놀라운 눈으로 이 모든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언젠가 동무들한테서 이 비슷한 말을 듣기는 했어도 제눈으로 직접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 깊이 깊은 수직갱으로 자동차가 그것도 대형자동차가 들어와있을줄 어떻게 알았으랴 ! 《자주》호는 룡트림하며 우리앞을 멀어져갔다.

《저놈을 처음 들여놓을 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가로저었는데 인젠 누구나 <자주>호, <자주>호 하면서 저놈한테 짐을 많이 실어놓는다니까요.》

갱장은 《자주》호를 대견스런 눈길로 바래우며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 대단합니다 !》

이런 수백척 수직갱으로 어떻게 저런 차를 들어올수 있었겠는가? 나에게서는 그것이 하나의 수수께끼로 남게 되었다. 수직갱으로 통하는 길이라고는 유일하게 아파트승강기만한 수직갱승강기뿐인데 도대체 어디로 저런 거물이 들어왔단말인가 ? 갱안에서 차를 만들었을수는 더구나 없는 일이고...

《감시다!》

나는 갱장의 독촉을 듣고서야 이런 생각에서 깨어나 따라걸었다. 갱안은 사람 보기가 힘들 지경이었다. 이렇게 큰 갱안에 왜 이리 사람이 없을가? 보는 것마다 의문을 던져주는 것이었다.

《갱안이 참엔 텅 빈것 같은게 좀 적적해보일겁니다.》

갱장은 나의 표정에서 무엇을 짐작했는지 이렇게 말하며 어쭈게 웃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선뜻 수긍했다.

《이젠 사람의 힘으로 할 일이 별반 없으니까요.》

갱장은 궁지에 찬 어조로 한마디 보냈다. 그의 말에 대한 대답은 실물로 곧 내 눈앞에 펼쳐졌다.

우리기 자동차가 간 길을 따라 얼마쯤 더 들어가니 갱은 오른쪽으로 꺾어들었다. 갱장을 따라 그리로 들어서던 나는 또 하나의 새로운 광경앞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반짝반짝 빛을 뿌리는 광석이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그앞에서는 굴착기가 긴 무쇠팔을 뚝 뻗치고 쇠돌을 퍼올려 《자주》 호에 싣고 있었다.

《술한 사람이 하던 일을 저것이 대신하지요.》

갱장은 나에게 굴착기를 가리켜보이였다.

굴착기결로 급히 다가간 나는 마치 신기한 물건이라도 들여다보듯 넋없이 지켜보았다.

(저 굴착기는 또 어떻게 여기로 들어왔을까?)

나의 머리속에서 처음 가졌던 수수께끼가 다시 금대문작같은 의문부호를 앞세우며 떠올랐다.

작은것도 아닌 한립방짜리 굴착기가 어떻게 이안에 들어올수 있단말인가. 길이란 수직갱밖에 없는데...

《이건 정말 상상밖인데요. 이런 거물을 여기에다...》

우리는 갱안을 쪽 돌아보고 휴계실에 이르렀다. 담배를 나누며 잠시 쉬었다.

나는 비로소 궁금하던 문제를 화제에 올렸다.

《하나 물겠습니다. 저 <자주> 호와 굴착기를 어떻게 들여왔습니까?》

《아- 그것말입니까?》

갱장은 뜻있는 미소를 지으며 담배를 뉘모금 빨고 나서 말을 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자면 10만톤을 떨구던 이야기부터 해야지요.》

《갱안에서 말입니까?》

나는 갱장이 수자를 잘못 말한것이나 아닐가 하여 되물었다.

《그렇게요. 지하에서 단방에 10만톤을 떨궜지요.》

갱장은 10만톤 발파에 성공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하고나서 그 많은 락광량을 빨리 처리하자니까 자연

히 대형기계가 갱안에 요구되었다고 하는것이 었다. 지하갱에서의 10만톤 락광 !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20년전, 기억에도 생생 하지만 해주-하성간 철도공사때 10만산 발파가 얼마나 사람들을 경탄시켰던가 ! 그러나 그것은 지상에서 벌린 일이었다.

《의논이 분분하다가 <자주> 호도 굴착기도 다 분해해서 수직갱승강기로 날라들었지요. 그 과정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지요.》

《분해해서말입니까 !》

《그렇지요.》

《정말 대단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감탄을 금치 못하여 절로 머리가 끄덕여졌다.

《당에서 하라는대로 일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니까 다 풀리더군요.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 사람들이 다 달라졌지요. 마음만 먹으면 못해내는 일이 없게 되었으니까요.》

《옳은 말씀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동감하며 존경이 북받치는 마음으로 갱장을 쳐다보았다. 그가 얼마나 돈우보였던지 몰랐다.

10만톤, 《자주》 호, 굴착기-이 요란한것들에 매혹되어 귀중한것을 미처 보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럽게 뉘우쳐졌다.

단방에 10만톤을 떨근것도, 《자주》 조와 굴착기를 수직갱속에 옮겨 얹힌것도 다 이곳 광부들이 해놓은 일이었다.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받들고 기세차게 전진하는 우리 로동계급의 심장은 얼마나 큰것인가! 상상할수 없는 일들을 척척 받기해 내고 실천으로 옮겨가는 그들의 일본새에는 우리 로동계급의 사상정신적성장, 혁명적열정이 얼마나 뚜렷이 표현되고있는가 !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해가는 그들의 대답하고 통이 큰 일본새속에는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의 정치도덕적 풍모, 혁명적 기백과 열정이 백맥히 흘러넘치고있는것이다.

이것을 어찌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외형적변천에 비길수 있겠는가! 나라의 곳곳에서 일어나고있는 위대한 변천의 밀바탕에는 우리 인민의 높고 고상한 정치도덕적, 사상정신적 성장이 굳건히 뒤받침되어 있는것이다.

바로 눈에 띄이지 않는 이 변천의 위대한 힘이 있어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천리마조선, 주체조선의 온갖 기적이 시시각각으로 태어나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발 자 옥 외 1 편

리 일 복

돌러보아 망망한 바다
썰물지면 감탕관이
고요히 누워 하늘 향해 번쩍이고
갈매기만이 희롱하듯 감돌다 사라지는
바다 한복판, 여기가 우리 일터다

바다를 뒤집어엎을듯
방파제를 밀고나가는 기계의 대군
대구경 포신을 추켜든듯
준침선은 감탕을 쏘아대고
물우에 돌사태를 쏟아붓는 짐배들...

사나운 바다를 밀어버리며
시각마다 뻗어가는 동쪽우에서
땀들이며 문득 바라보니
아득한 물은 몇십리나 되느냐?

아직은 난바다가
물과 우리 사이에 거만하게 출렁인다만
아직은 사나운 물갈기 높이 추켜들고
밀물이 물과 우리를 아득히 갈라놓았다만
나는 본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처럼-

굴착기 우렁거리는 저 섬기슭엔
아담한 새 마을이 일떠서고
짐배들 분주히 오가는 저 물결밑엔
학교가 서고 탁아소가 일어서리라
푸른 파도 세찬 저 동쪽가엔

가을이면 이삭의 금물결 늪실대리라

나는 듣는다
아직은 허허바다인 이곳에
하늘향해 높이 솟을 농장회관들
희망안고 울려퍼질 노래소리를
파도소리만이 높던 여기에
높이 일떠선 집집의 창문마다에서
은은히 울려나올 행복의 웃음소리를...

이것은 우리가 힘겹게 걸어간뒤에
이 바다우에 펼쳐질 눈부신 현실
감탕속에 깊숙이 빠지며
무겁고 힘겹게 찍어간 우리의 발자취우엔
량만에 찬 가벼운 발걸음들이 놓여지리니

생활이여, 바다를 향해 앞으로 !
우리는 기어이
행복이 어우러진 참된 생활을
이 바다 한복판에 이끌어다 놓으리라 !

아, 바다우로 걸어온
우리의 발자취 보이지 않아도
이제 저 사나운 물결을 몰아버린 새땅우에
높이 솟아오를 마을과 마을들
새땅우에 펼쳐질 행복한 생활이
영원히 지울수 없는 우리의 발자욱이다!

우리의 땅

차마 밀려가기 아쉬운듯
거친 물결로 달려들고 달려드는
사나운 바다를 막아버린 그 한끝
새땅과 이어진 푸른 술섬

전화의 날
방위자들의 불멸의 위훈을 말하는가
미제침략자들이 덤벼들던 섬기슭에
아직도 력력한 격전의 흔적들
포화에 끄슬린 바위부리에
새땅을 하나로 이어놓고
우리는 가슴뜨거이 서있다

새땅만이 아닌
수호자의 피줄을 여기에 이어놓고
우리는 서있다,
그 어떤 원쑤가 덤벼들어도
억척같이 흔들림 없을 주인된 자세로...

태어나자 새땅은
참된 주인을 만났다
태어나자 새땅은
미더운 보호자를 만났다
가꿈없이 어찌 꽃이 필수 있으며

지킴없이 어찌 오크이 설레이랴!

마을이 일어서서만
조국의 한 부분이 아니다
새땅을 얻자
씨앗을 뿌리기전에
먼저 수호자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것은 우리의 습관, 우리의 룰리 !

남의 땅을 엿보는 제국주의강도들이
지구상에 아직 살아숨쉬고있는한
보위의 총구아래에서만
참된 삶이 무르녹고 웃음이 피어나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무르익나니

우리의 땅!
주인된 심장들이 지켜설 때만
누리에 빛나는 우리 땅이여 !
그 어떤 새땅도
수호자의 발자취뒤에서만
조국의 한부분으로 되는 불패의 나라여 !

어린 딸에게

오 정 로

꽃댕기 나풀거리며
책가방 메고 학교로 가는 순아, 나의 딸아
어쩌면 너를 보는 내 눈이 이렇게 부시냐
어쩌면 너같은 사랑이 내 가슴에 안겼느냐.

네가 손만 저어도 날아갈듯
네 눈빛에 꽃들도 피는듯
네가 언듯 말만 해도
아름다운 음악처럼 내 가슴에 울린다

레사롭게 보던 이 길목도
네가 걸으니 넓어지고...
네가 바라보는 저 들과 거리와 하늘
어쩌면 이리도 다 환해졌느냐

아, 나의 사랑, 나의 귀여움아
아버이수령님의 교육테제의 빛발아래
펼쳐지는 너의 찬란한 앞날...
눈이 시다, 이제 11년제 저 꽃대문을 지나
대학의 층계를 넘어
또 이어지는 배움길에서 너의 온 한생이 활짝
꽃피나
웃음만 안은 네 모습

그 나날들이 자꾸만 어리고 어려와서
가슴에 안아보고 안아보며
눈시울 닦고 다시 또 비비며 보아도
그 은혜로움에 눈물은 흐르고 또 흘러...

순아 !
내 고개를 들고 보아도
네가 자라오를 푸른 하늘을
학교지붕들이
저렇게 아득히 떠받들어올리고...

땅을 보아도
네가 걸어갈
길은 저렇게 넓게 열리고
이랑들은 사래길게 뻗어가누나
아, 이 고마움 어찌 다 노래해보랴

지금
내 눈도 이렇게 버쩍 다 떠져서
아직껏 못보던 네 모습을 다 본다
내 가슴 곱절로 넓어있었음을 오늘에 알았고
이 가슴에 더 안아야 할 일감이 있음을
이렇게 절절히 본다.

기껍고 즐겁고
보는것 모두가 희한하구나
아아
순아,

정녕 너를 보는 이 순간처럼
이 세상의 모든것이 다 아름답구나
순아, 이렇게 광명으로 휘황한 이 세상이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이란다
어서 걸어라 내 한생을 다시 시작하고싶은
저 사랑의 길 한복판으로 !

전사의 노래

리 재 훈

1

사단지휘부가 자리잡은 합치끌어귀는 언제나 긴장이 어려있었다. 새로운 전투임무를 받아가지고 급히 떠나는 지휘관들, 걸음 바쁜 연락병들, 소코투레를 거머쥐고 방금전에 나진 폭탄구덩이를 에도느라 땀을 뻘뻘 흘리는 탄약공급수들... 바로 여기서 화선 공연을 떠난 인민군협주단의 한 분견대가 휴식하고 있었다. 체통이 두아름이나 되는 저음악기, 큰 북, 제비초리같은 바이올린갑 등 그들의 행장은 화약내 풍기는 이 화선의 분위기와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박격포나 중기관총이더라도 한듯이 꺾끗이 거머쥐고 포연이 자욱한 박달령을 묵묵히 지켜보고있었다. 그들은 공연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사단정치부에 들어간 분견대 대장을 기다리는중이었다.

다만 협주단의 피콜새라고 불리우는 영희만이 대피호에 모여앉아 쉬고있는 동무들과는 좀 떨어져나와 앉아 박달령을 하염없이 바라보고있다.

영희에게는 친 혈육이라고는 영진이라는 동생 하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가 저 박달령에 있는 사단의 정찰중대에서 복무하고 있다는것을 조금전에야 알았던것이다. 그런데 공연은 어디 가서 하게 되겠는지 어떻게 하면 만날수 있겠는지 이 모든것을 알아내지 않고는 도저히 그대로 앉아있을수 없었다.

얼마나 귀중한 동생인가. 봄방학을 끝내고 집을 떠날 때 30 리길이나 되는 재망고개까지 책가방을 들어다주고는 《93 일이야》하면서 여름방학날을 쏘던 영진이, 떠나는 누이가 서분해할가봐 영희가 제일 좋아하는 《발갈이노래》를 부르며 고개를 내려가던 오랍동생.

사범전문학교에 다니다가 인민군대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거기서 곧장 입대한 영희는 영진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전장이 되여버린 38 도선 연선의 고향에서는 회답 한장 없었지만 그는 계속 편지를 띄웠었다. 그러다가 석달전에야 영진을 찾았다. 영진이한테서 먼저 편지가 왔던것이다. 그때 영희의 기쁨을 더 말해 뉘하랴. 밤을 새우며 장문의 편지를 썼고 성악지도원의 애를 그처럼 태우던 높은 음 발생문제도 단 며칠사이에 해결하였었다.

영희는 초조한 눈길로 사단정치부장이 있는 엄폐

호문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대좌가 엄폐호에서 나왔다. 그뒤를 따라 분견대 대장과 아까 골짜기를 내려오며 별로 의미있는 눈길을 던지던 한 중사가 나왔다. 영희도 휴식하던 대원들도 일어섰다.

대좌와 분견대 대장은 할 말을 다 못했는지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걸어왔다.

《집중사격구역을 특별히 주의해야 해.》

대좌의 말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피콜새들을 어떻게 불바다속으로 데리고 가랍니까.》

중사의 고집이다. 그는 아마 머리채들이 합치르르하고 얼굴이 하나같이 고운 녀배우들을 두고 하는 말인듯싶었다.

《피콜새라? 피콜새도 이제는 포성에 길들었어.》

《길드는게 뭘니까, 포탄이 한방만 터져도 봄우뢰에 놀란 메추라기들처럼 훌렁 날아가버리고 말겁니다.》

중사는 입맛을 다셨다.

(뭘, 우리가 메추라기라고? 허 참.)

영희는 다가온 대좌에게로 가서 얼른 손을 모자에 붙였다 떼고는 한발자국 나서며

《동무, 우리도 병사야요.》 했다.

중사는 코방귀를 귀였다. 군복이나 입었다고 병사인줄 아는가 하는 투다. 영희는 무슨 말은 더 하려하였으나 대좌가 손을 내밀며

《초면에 이래서야 돼나. 그러지 말고 악수나 하라구.》 하는바람에 그만 참았다. 하긴 영진의 일이 더 급했다.

《대좌동지, 우리들이 박달령에도 가게 됩니까?》

영희는 손은 내밀려는 중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좌에게 물었다.

《그리로도 가오. 거기 누가 있소?》

《제 동생이 거기 정찰중대에서 복무합니다. 리영진이라구...》

《뭘 영진이라구 ?!》

이렇게 대답한 대좌의 낯빛은 미묘한 변화를 일으키다가 태연해졌다.

《아십니까 ?》

대좌는 옆에 섰는 중사를 가리켰다.

《예 !》

영희는 너무도 기뻐 발을 동동 구르다가 중사앞으로 가서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중사는 못본체 하고 떠날 준비로 대렬지어섰던 본견대원들 앞으로 갔다. 영희는 낮이 붉어졌다. 그때에 잠전에 중사가 악수를 청한것을 물리친 생각이 났다.

(아마 그게 노엽던 모양이지.) 영희는 무안해서 얼른 대렬에 가 섰다.

《나를 따라 앞으로 !》

중사는 이렇게 구령은 치고 앞서 걸어갔다.

대오는 곧 떠났다.

앞에는 정찰분대장인 경수가 서고 그 뒤로는 너배우들, 다음은 남자배우들이 뒤따랐다.

중사의 꿈무니에는 단도와 포승줄이 매달려있었다. 그것으로 보아 정찰병임을 알수 있었다. 영희는 중사가 정찰병이라는 생각이 들자 동생에 대한것을 물어보고싶어 오금이 쭈시였다.

그런데 중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씩씩 씩씩 걸어갔다.

까치들은 이상한 대렬이라든듯 풀숲에서 머리를 쭈 내밀고 눈알을 대롱거리다가는 푸드득 날아오르며 《까가kak》 우짖어댔다.

그들의 몸에서는 벌써 김이 물물 났다. 처녀들의 입에서도 불김이 새나왔다.

영희는 중사와 말을 걸어보기 위해 몇번 그의 뒤에 바싹 따라서군했다. 그때마다 중사는 후닥닥 뛰다싶이 앞으로 달리군했다.

처녀들은 웃음보를 차고다니는것일가, 숨이 턱에 닿아 쉼쉼거리면서도 연방 웃어댔다. 돌부리에 채워 코방아를 찢을번 하는것을 보고도 웃었고 풀포기에 걸쳐여 엉덩방아를 찢고도 웃기부터 했다. 더구나 그들은 사단지휘부에서 떠날 때부터 영진이 소식을 알고싶어서 영희가 바투 다가서기만 하면 웬일인지 꿈지에 불달린 망아지처럼 후닥닥 달아나듯하는 경수를 보고는 재미난듯 더 깔깔거렸다. 그럴라치면 경수는 더 빨리 걸었다.

《뚝박쇠.》

《무인도에서 오지 않았어.》 《우리를 정말 메추라기로 아는가.》

이제는 웃다못해 험구가 뒤따랐다. 그래도 경수는 못들은척이다. 또 웃음통이 터진다.

처녀들은 자기들의 이 웃음이 역대배우같이 드센이 사나이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다.

경수, 그는 다름아닌 영희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영진이의 분대장이였다.

경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영진이가 꺼내보곤 하던 사범전문학교 교복을 척 입은 오목눈의 처녀를 한두번만 보아오지 않았다. 바로 그가 《우리도 병사야요.》 하고 대들던 처녀일줄이야. 영희가 사단정 치부장에게 영진이가 자기 동생이라고 할 때 가슴이 철렁했던 경수였다.

오목한 눈모습이며 동글사하면서 날이 선 턱은 첫눈에도 영진이의 모습을 련상시켰다.

경수는 하마트면 《영진이누나!》 할번 하였다. 그러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다음 말을 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얼마전에 적구로 들어간 영진이는 돌아오지 못했던것이다.

경수는 영희가 다가서는것이 두려웠고 처녀들의 웃음이 높아갈수록 후퇴때 피나리보짐을 든 영진이가 X 시의 반나마 허물어진 사범전문학교의 교사앞에서 어깨를 척 늘어뜨리고 애처로이 섰던 모습이며 누이를 찾겠다고 군마다에 편지를 쓰던 일, 오락회 때마다 누이가 제일 좋아했다는 《발갈이노래》만을 불러 이제는 그것이 고정곡목으로 되버린 일들이 삼삼히 떠올라 가슴은 더욱 아프고 쓰라렸던것이 다.

이러한 경수의 심정을 모르는 처녀들은 여전히 깔깔거리면서 뒤따랐다.

《분대장동무, 분대장동무.》

이번에는 영희대신 장난꾸러기 옥수가 뒤따르며 불렀다. 처녀들은 벌써 웃을 차비를 했다.

《어째 그러오.》

역정스러운 대답이였다.

《아까 왜 불타는 고지라고 안하고 불바다라고 했어요.》

옥수는 생뚱같은 질문을 했다.

《내가 아오, 시인이 그런거요.》

《호호호.》

《하하하.》

이번에는 남자들도 따라 웃었다.

2

대오는 박달령의 뒤등인 옥포동샘물가에 와서야 멎었다. 이제부터는 집중사격구역이였다. 여기서 숨을 태운 다음 든든히 준비해가지고있다가 시간을 맞춰 냅다달려야 하는것이다.

경수는 고개를 외로 돌린채 집중사격구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배우인것이 아니라 병사입니다.》 하고 덧붙였다. 그의 이 말은 어찌도 이상야릇한지 이

제는 웃지 말라, 병사로서 제구실을 하라, 이제는 총포탄을 무서워하지 말라는것 같기도 하고 당신들은 아직 병사가 아니라고 멸시하는것 같기도 하였다.

경수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전투장구류 이외의 시시한것은 다 버리시오. 짐은 최대한으로 간편해야 합니다.》했다. 그의 목소리는 지어 엄엄하기까지 하였다. 그래서인지 한녀배우는

《이걸 어쩌나》하고 배낭에 손을 가져가며 근심을 했다. 그들의 배낭안에는 수수떡이 들어있었던것이다.

전선은 향해 행군을 하던 분견대는 며칠전에 어느 한 농가에서 묵었는데 그때 마음씨 고운 그 집에서는 녀배우들에게 수수떡을 해들여왔다. 모두들 좋아서 법석 떠들며 먹었다. 영희도 들었다. 그러나 손이 떨려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영진이 생각이 났던것이다. 영진이는 수수떡을 제일 좋아했다. 영진이 생일이면 어머니는 종자수수를 능귀서라도 떡을 해주었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것인가 아직 다 모르는 영진이에게 어머니를 대신 해주고싶은것이 영희의 언제나와 같은 마음이었다.

떡 한그릇을 못해가지고 가는 영희는 제구실을 못 한듯한 자책감과 함께 한뼘기의 발이 없어 부대기를 일구다가 산림간수놈에게 매를 맞고 돌아가신 아버지 지주집에 장리쌀을 꾸러 갔다가 쌀대신 소작밭마져 떼우고 돌아와 한숨짓던 어머니생각이 났던것이다.

그날따라 접동새는 더 처량하게 울어댔었다.

그런 사연을 알게 된 그 집 주인 할머니는 동생한테 갈 때 떡을 해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수수쌀을 풍풍 퍼주었다. 녀배우들은 그 수수쌀을 나누어지고 오면서 첫날에는 능그고 다음날에는 망질을 하고 어제밤 속사리에서는 온밤 부지깽이불로 김이 뽕양게서린 술안을 비쳐가며 떡을 했던것이다.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영진이한테 빈손으로 그냥 들어가겠어요?》

옥수가 배심있는 소리를 했다. 그 말에 힘을 얻은 처녀들은 이것은 불가침이라는듯 배낭을 거머쥐며 경수에게로 눈길을 모았다.

경수는 그 눈길에 두렵기라도 한듯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더니 모로 돌아앉으며 서둘러 담배를 꺼냈다.

처녀들은 승리한 쾌감을 느끼는듯

《아이구 이 떡이 쉬겠어요.》하면서 떡꾸레미를 모조리 꺼내서는 고무자루안에 넣어 끝을 매서는 썸물안에 담그었다.

썸물터에 물을 길러 동이 이고 나갔더니
빨래하던 군인동무 슬금슬금 돌아앉네

그 누가 코노래를 시작하자 모두가 따라 불렀다. 남자들은 푸푸거리며 머리를 식혔다.

다만 한사람 경수만이 담배연기를 풀풀- 내뿜으며 황소숨을 몰아쉬고있었다.

(우리가 너무했나봐. 좀 조용히 얘기해봐야지) 미련이란 참으로 검질기다.

영희는 가독나무잎을 따서 고깔고뿌를 만들어가지고는 거기에 물을 채웠다. 그는 두손에 받쳐들고 모재비걸음으로 경수에게 다가갔다.

부끄러워도 물었지요
제가 빨아드릴가요

처녀들의 노래소리는 더 커졌다.

《저 우리가 가는데서 정찰중대가 먼가요.》

영희는 고깔고뿌를 내밀며 물었다. 경수는 발목을 잡혔다. 어떻게 할것인가.

《동무는 그런건 물을수 없다는걸 모르오? 초보적인 내부규정을말이요.》

그는 물을 받을 대신 마주 일어서며 피로운듯 눈을 찡그렸다.

《아 !》

영희는 고깔고뿌를 떨구고야말았다.

(똑박쇠, 정말 옥수가 이름을 잘 지었어.)

영희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분하기까지 하였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노래를 알거나 하며 자기의 노래에 박수나 쳐주겠는지 의문이였다.

또다시 출발명령이 내렸다. 처음부터 100 메터경주를 하듯 달렸다. 경수는 녀자건 남자건 악기를 뗀건 관계없이 막 내몰았다.

《빨리 !》, 《뛺하오 !》, 《뛺시오 !》

경수는 벌써 녀자들의 배낭을 세개나 빼앗아 땀다. 처음악기도 그의 어깨에 올랐다. 골짜기우로 먼지구름이 피어올랐다.

그들이 골짜기를 절반나마 달렸을 때였다. 공중에서 잡자리같은 비행기가 그저 나는듯싶었는데 어느새 썩-쿵 썩-쿵 하면서 산지사방에서 포탄이 터지기 시작하였다. 골짜기는 한치앞도 가려볼수 없게 불구름이 짙 찼다. 영희는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도저히 알수 없었다. 다만 그 누가 자기의 팔을 힘있게 이끌며 뒀잔등을 떠밀어서야 앞으로 달려야 한다

는것, 그것이 병사라는것을 깨달았다. 순간 그는 자기 눈앞에서 번쩍이는 두눈을 보았다. 그 불덩이는 《그래가지구 병사야》 하는것 같았다.

그들이 박달령 뒤등판에 올랐을 때에야 포격이 끝났다. 온통 땀으로 미역을 감듯한 그들은 그 누구라 없이 폴썩폴썩 주저앉았다. 제일 뒤에서 발목이 접질린 한 배우를 이끌고 올라온 경수는 사람들을 점검해보고야 지고온 배낭들을 돌려주고 한쪽 옆 바위 등에 걸터앉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그들이 땀을 다 들이고 났을 때였다.

《어마나 얼굴들을 좀 봐.》

옥수가 이래서야 서로 얼굴들을 마주보았다. 모두가 하나같이 흠뻑이에 코며 입을 가져다 붙인듯 싶었다.

《호호호.》

《허허.》

모두의 입이 버그러졌다.

《이젠 병사같지요.》

옥수가 벌떡 일어나며 앞가슴을 내밀었다. 시라도 읊을 기상이다. 그의 어깨우에서는 찢어진 위장포가 훔날렸다. 숨을 막 뜯어놓은듯 찢어진 구름들이 저녁노을에 비껴 가장자리가 붉게 불타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섰는 옥수는 흡사 동화에서 듣던 불사신이다. 영희는 옥수대신 자기를 거기에 세워보았다. 그 모습 역시 숭엄하다. 오리 가슴이 저절로 들먹였다. 그 모습을 영진이, 아니 자기들을 《메추라기》로 치부하려 드는 경수에게 보여주고싶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경수는 온데간데 없다.

《중사동무가 어디 갔어요.》

그제서야 모두가 얼굴을 기웃거렸다. 분명 없었다. 모두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때였다. 어둠이 찾아들고있는 오른쪽 골짜기에서 물초롱을 매단 나무채를 멘 경수가 가파로운 산 협을 뚫아오르느라고 안간힘을 쓰고있는 모습이 보였다. 여럿이 달려가 물초롱을 받았다.

《먹는 물이야 자기 물통에 다 있는데...》

경수가 지고 올라온것이 맑은 물이라는것을 알고는 모두 송구스러워했다.

경수는 이 말을 듣지 못한듯 이마의 땀을 썩썩 문지르며 바위뒤로 가서 네모난 탄약통같은것을 가지고 배우들한테 왔다.

《자 얼굴들을 씻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그가 내미는것은 흔히 화선에서 많이 쓰고있는 물때 오른 탄약통세면기였다.

《에?》

모두가 놀랐다. 탄약통을 받아든 영희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모두가 경수의 땀흐르는 얼굴을 쳐다보았다. 마치 그를 처음 보기라도 하는듯이...

《이제부터는 화선입니다. 거기에는 싸우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경수는 이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스적스적 아까 앉았던 바위등으로 돌아가 박달령을 향하여 사람들을 등지고 앉았다. 배우들은 한동안 그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고 중사를 쳐다보았다.

영희의 가슴에도 뭐라고 형언할수 없이 맑고 깨끗한 그 무엇이 끝없이 흘러들고있었다.

얼마후 협주단분견대는 열병식광장을 행진해가는 대오처럼 산등성이우를 힘있게 걸어가고있었다. 영희는 이따금 손을 올려 모자며 견장, 위장포 등을 바로잡았다.

3

고지는 어둠에 잠기는가 싶었는데 연방 커대는 조명탄의 불빛때문에 또다시 대낮같이 밝아졌다. 산기복의 그림자들은 생겼다 없어졌다 했다. 그때문에 고지는 살아서 움직이는것 같기도 하고 노을비긴 대양우를 떠가는 함선같기도 하였다. 탐조등의 푸른 섬광이 산허리를 자르며 날아다녔고 총성, 포성은 끝없이 울렸다. 그러나 협주단을 맞이한 박달령은 명절같았다. 포옹, 굳은 악수, 꽃다발, 저마다 이끄는 특무장들...

영희는 머리가 멍할 지경이었다. 그런속에서도 영희는 영진이 생각을 조금도 놓지 않고있었다. 당장 그가 달려와 안길것만 같아 꽃다발을 받다가도 짐을 풀다가도 피땀피땀 뒤를 돌아다보곤하였다.

《자 동무의 소원대로 오늘저녁에 정찰중대에 다녀옵시다.》

분견대 대장이 이렇게 말했을 때 영희는 너무도 기뻐 눈물을 찔끔 찌기까지 하였다.

여덟명의 너배우들이 정복을 그꼴히 차려입고 꽃다발을 들고 나들이집 같은 떡꾸레미를 들고 침실로 정해진 통신중대 강도병실을 나선것은 밤 아홉시경이었다.

그들은 길안내를 나선 이곳 통신중대 특무장의 뒤를 따라 나는듯이 교통호를 달려갔다. 산굽이를 두개나 에돌아 특무장이 산벼랑턱밑에 나진 하나의 작은 강구를 가리켜서야 그들은 걸음을 늦추었다.

영희는 가슴이 후드득 떨렸다.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기라도 하는듯 두손을 포개여 쥔 영희는 한 발자국 두발자국 걸음을 옮겼다.

《셋 누구얏 !》

보초의 물음이었다. 그랬으나 영희의 마음은 벌써 경구안으로 날아들며 마주나오는 영진이를 그리안고 있었다.

정찰중대 갱도안에 들어선 영희는 통신중대 특무장 뒤에 바싹 붙어 걸었다. 갱도를 막은 문이 앞을 막았다. 특무장이 손기척을 하려는 때에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나왔다.

누구인가의 엄숙하고도 비장한 목소리였다.

《리영진동무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는 이 시간부터 조선로동당 당원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전사로서 우리와 함께 걷고있습니다. 그럼 세포회의 결정대로 리영진동무를 당원등록부에 등록하겠습니다.》

순간 영희는 앞이 캄캄하여 꼬꾸라질변하다가 갱도벽에 몸을 맡겼다. 통신중대 특무장은 영문을 알 수 없어 어쩔바를 몰라했다. 뒤따라 들어온 옥수가 영희를 붙잡았다.

문밖에서 녀자들의 신음하는듯한 목소리가 들리자 리영진의 이름을 당원등록부에 적어넣던 정치부중대장이 예감이 있어 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왔다. 그뒤로 중대 당원들이 따라나왔다. 경수의 눈이 쾅해졌다. 갱도벽에 의지하고 섰는 영희와 그를 부축하고있는 녀배우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경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정치부중대장도 당원들도 사태를 물을 필요가 없었다. 영희네가 이리로 온다는것은 이미 알고있었고 그들이 오기전에 리영진의 입당심의는 끝날줄 알았는데 그들이 한걸음 미리 와 닿았던것이다. 랑패였다. 그들의 공연이 끝나기까지는 영진의 희생을 숨기자던것이 이렇게 되고말았다.

영희는 구름노전이 랑열에 주련이 깔리고 한쪽 석벽에 위장복이며 배낭 등이 걸린 중대병실에 와서야 정신을 차렸다.

《영진이가 제구실은 했는가요 ?》

이제는 모든 사실이 뻔한 조건에서 영희로서 물을 수 있는것은 이뿐이었다.

중대장은 손님들이 앉아있는 맞은편 침상우에 자리잡으며

《영진동무말입니까》 하고 말을 뱉었다. 그리고는 영진이가 사시창철 진달래를 꽃피운 이야기며 무선기로 적의 통신참모를 유인해서 잡아온 일 등 가지가지 이야기를 하였다. 경수도 이따금 말참견을 하려했으나 매번 울음이 터질것 같아 입도 떼지 못하였다.

정치부중대장이 문득 일어나서 《불새》정찰조의

마지막 위훈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영진동무가 속한 <불새>정찰소조는 적의 중요한 기밀을 정탐해가지고 급히 부대로 돌아오고있었습니다. 적정을 보고하는것은 한시가 급했습니다. 그러나 적의 포위에 든 그들은 더는 전전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의 탄알에 맞은 무선기는 그만 쓸수 없게 되었지요. 어떻게 할것인가. 뒤로 돌아갈것인가, 아니다, 명령을 수행하기전에는 죽을수도 없다는것이 그들의 신조였습니다.

무선수인 영진이는 이때 전지를 꺼내들었습니다. 불꽃신호로 무선송신을 대신하려는것이였습니다. 이것은 적들에게 <나는 여기 있다.>하고 자기를 로출시키는것이나 다름없는것입니다. 그러나 영진이는 이 길을 택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명령을 수행하는 거기에 병사의 의무, 병사의 행복, 병사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것을 확신하기때문이였습니다.

네명의 정찰병들은 마지막 탄창을 채우고 영진이를 가운데 놓고 사방을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영진이는 높이 쳐든 전지로 <봉화산, 봉화산, 나는 불새 듣는가>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단 감시소가 있는 박달령마루에서 회답신호가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둘러싼 적들의 집중사격하는 불찌들이 꺾뺨뺨하는 전지불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단감시소초소에서 며칠 밤을 지새고있던 정찰중대 중대장과 경수는 까막봉의 봉우리에서 튀는 불꽃신호를 받아 적정을 적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지불빛은 점점 더 가깝게 죄어드는 불찌속에서 차츰 떠지다가 나중에는 사방에서 내뿜는 화염방사기의 불기둥속에 아주 묻혀버려 마지막 글자 몇개를 적지 못하였습니다. 영진동무는 참으로 조선인민군전사답게 자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녀배우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리고 까막봉에서 번뜩인 그 불꽃을 영원히 새겨두려는듯이 이슬맺힌 눈을 한동안 꼭 감고있었다.

정치부중대장은 한결 엄숙한 자세로 말을 이었다.

《중대당세포에서는 그때 경수동무가 눈물을 삼키며 마지막으로 받아 적은 영진동무의 신호

<김일성장군 만세 ! 입당을 청원함. 리영진, 보충인 소대장 리명호...>라는 글썽지를 놓고 방금 그의 입당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대듬을 짓고 일어난 정치부중대장은 침대에 놓여있는 한개의 긴의자 같은것을 가리켰다.

통나무를 켜서 만든것이라 투박했다.

《영진동무가 저기서 자군했습니다.》

《예 ?》 녀배우들은 모두가 놀랐다.

《영진동무는 잠꼬대하는 버릇을 떼겠다구 하루밤에 저렇게 통나무를 켜서 침대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저런데서 자면 긴장해서 자기때문에 잠꼬대를 안한다는겁니다. 아닌게아니라 그때부터 영진동무는 잠꼬대를 안했습니다. 그건 뭐 과학은 아니지만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잠꼬대 같은것도 뻔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부중대장은 여기서 말을 끊었다.

바람벽에 비낀 불그림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영희에게는 정치부중대장의 말이 꿈속에서처럼 들리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을 파고드는 말이었다. 영희는 천천히 일어나 침대앞으로 다가갔다.

영희의 눈앞에는 자기 생각 말고 빨리 학교에 가라고 재망고개밑에서 손을 저으며 《발갈이노래》를 부르던 영진이의 모습과 까막봉에서의 불꽃 신호가 서로 엇바뀌어 나타났다. 영진의 침대를 쓸어보는 영희의 손은 떨리고있었다.

드디어 처녀들은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왜들 이래요, 동무들은, 경찰병동무들에게 울음을 보이자고 여기에 왔어요. 군복을 입은 체모를 차려야 해요.》

영희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다. 그 말은 자기에게 하는 말이었다.

영희는 슬그머니 돌아서서 배낭겉에서 영진이의 이름이 적힌 배낭을 벗겨들었다. 배낭을 그리 안고 보니 파편에 맞았는지 반쯤기랑 찢어진데가 있었다. 영희는 그것을 기우려고 등불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는 어느때는 단번에 꺾던 바늘귀를 한참이나 걸려서야 꿰다.

방안은 조용했다. 이따끔 녀배우들의 흐느낌소리만이 들리었다.

영희는 배낭을 다 집고나서 군복속주머니에서 새 당원증주머니를 꺼내어 영진의 배낭에 넣어주고 일어섰다.

그 당원증주머니는 영희가 동생을 주려고 《충성》이란 두 글자를 째짤이 수놓아 만들었던것이다.

이때 남자의 흑 하는 소리가 들리었다.

경수였다. 그 소리가 녀배우들의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병사들은 비상용 사탕덩어리를 풀어넣은 박달시름을 가지고와서 권했으나 받아놓기만 하고 누구도 들지 않았다.

얼마후 손님들은 돌아갔다. 그러나 경찰병들은 그들이 놓고간 떡꾸레미를 알아보고 못볼것을 본것처럼 시선을 판데로 돌렸다.

경수는 영희가 꺾매고간 영진의 배낭을 쓸어보았다. 기운 자리가 아이들 바느질 솜씨같은것을 보는 경수의 눈에서는 다시금 눈물이 솟았다.

통신중대 병실로 돌아온 영희는 방안에 그냥 앉아 있을수가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듯 아프고 저려와서 견딜수가 없었다. 그는 슬그머니 경도병실에서 나와 교통호를 따라 산등성으로 갔다. 영진이가 장렬하게 희생되었다는 까막봉이 어둠속에 가까이 보이였다. 이따금 적의 탐조등불줄기가 어둠을 썰며 지나가군했다.

영희는 저 산기슭에서 영진이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자 참고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부모없이 단둘이 살아오면서 있었던 가지가지의 애뜻한 추억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설움에 설움을 덧보태었다. 그는 교통호벽을 그려잡고 소리내어 흐느끼었다. 얼마쯤 울고나니 가슴이 좀 트이는것도 같았다. 명희는 다시 눈을 들어 까막봉을 쳐다보았다. 그 순간 거기서 진지불신호가 깜빡이는듯한 환각이 일어나며 영진의 숨엄한 자태가 보이는듯했다. 화염에 휩싸이면서 《김일성장군 만세! 입당을 청원함 리영진》하고 소리높이 웨치고 웃으면서 적진으로 뛰어드는 영진의 모습을 방불하게 보는것 같았다. 다음순간 화염방사기를 휘두르며 영진에게로 몰려드는 악귀같은 미제침략군놈들이 스쳐지나갔다. 영희는 저도모르게 《이 원쑤놈들을!》하는 생각과 함께 이를 사러물고 주먹을 부르짖었다.

《내 기어이 천백배로 복수하리라!》라고 다짐하였다. 그런데 귀가에서 영진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사랑하는 누나, 누나는 이 동생이 조선인민군전사답게 잘 싸웠다고 칭찬해주겠지요.》 그러면서 뿔뿔하게 싸운 사람만이 웃을수 있는 웃음을 웃고있는 영진이가 눈앞에 나타났다. 영희는 그만 《영진아!》하는 소리를 질렀다. 제정신으로 돌아온 영희는 눈물을 닦고 군복에 묻은 흙을 털며 옷매무시를 바로잡았다. 오랍동생앞에 추태를 보인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머리를 때렸다. 명희는 자꾸 거북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병실을 향해 걸었다. 의젓하게 걸으려고 애쓰면서...

4

공연시간이 되자 공병중대 경도 선전실로는 병사

들이 쓸어들기 시작하였다. 아직 총구에서 김이 물물 나는 총을 메고 들어오는 병사들, 훈장을 번쩍이며 들어오는 병사들...

어느새 관람석은 송곳하나 박을 자리 없이 빼곡이 찼다.

무대뒤에서 손거울을 마주하고 앉은 영희는 툭툭 부은 눈두덩에 분칠을 부지런히 두드렸다. 그러나 두드러진 눈두덩은 잦아들지 않았다.

(경수랑 경찰병들이 툭툭 부은 눈두덩을 보면 얼마나 가슴아파할까.)

영희는 경찰병들앞에서, 병사들앞에서 땀땀이 머리를 들수 없었다. 그런가 하면 이 눈, 이 기분을 가지고 《발같이노래》며 《봄노래》같은 노래를 불러내겠는지 의심스러웠다.

이러는데 무대의 저쪽편에서

《영희동무가 일없습니까》 하는 경수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분견대 대장이 무어라고 대답했다. 다음 말들을 들을수 없었으나 뒤이어 발뒤축을 꺾꺾 박으며 걷는 대장의 발걸음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등 뒤에 와서 멎었다.

《영희동무, 오늘 꽤 노래를 불러내겠소?》

대장의 물음이나 영희는 막 분했다.

《부르지 않구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곡으로 바꾸던가.》

《일없습니다.》

영희는 태연히 대답했다.

《걱정되어 그러오.》

영희는 모욕을 당한것 같아 벌떡 일어섰다. 그는 자기 의사를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하다가

《대장동지, 저는 조선인민군전사입니다.》 라고 차렷자세를 취하고 힘주어 말했다. 마치 군인선서를 할 때와 같이...

분견대 대장은 그 말에 찢리우기라도 한듯 멍칫 굳어지면서 영희를 쳐다보다가 혼자소리처럼 《조선인민군전사》 하고 되뇌이며 두박두박 거닐었다.

조선인민군전사!

이 말에는 얼마나 많은 뜻이 포함되어있는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신 조선인민혁명군의 백전백승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군전사는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성을 본분으로 알고있다. 그들은 그 충성속에서 영생하는 삶과 행복을 찾는다. 그들은 군복을 입을 때 이런 영예, 이런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그 누구도 이 권리를 빼앗을수 없다.

《종소.》

분견대 대장은 돌아섰다. 이때 영희는 무대우를 지나 관람석으로 가는 경수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것을 느꼈다.

영희는 마음의 탕개를 조이고 또 조이며 막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이때 경찰병들은 관람석의 한복판에 자리잡고있었다. 사단정치부장의 특별지시에서였다. 얼마나 큰 행운인가.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도 말한마디 못하고있었다. 영진이와 함께 관람하지 못하는 가슴아픔과 영희의 출연이 도시 마음놓이지 않아서였다.

《그래 일없던가?》

무대에 올라갔던 경수에게 묻는 정치부중대장의 말이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경수는 약간 고개를 떨구었다. 눈두덩이 부은 영희를 보았기때문이었다.

《흠-》

정치부중대장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때였다. 무기수리소 대원들이 만든 카바이드 조명기의 푸른 섬광이 무대를 비쳤다. 뒤이어 막이 열리며 소개자가 합창대오앞에 나섰다. 폭풍같은 박수갈채가 일었다. 영희는 합창대의 앞줄 한가운데 서있었다.

《나왔군요.》

경수의 말이다.

정치부중대장은 대답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영희의 심중을 더 헤아려볼 틈이 없었다. 높이 쳐든 지휘자의 지휘봉이 어느덧 내려쫓히며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전주곡이 장중하게 터져나왔던것이다.

공연자와 관람자가 따로 없었다. 모두가 일어나 불렀다. 병사들의 심장속에서 울려나오는 이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 앞에서 다지는 충성의 선서이기도 하였다.

공연은 계속되었다. 중창, 무용, 재담.

...박수, 재청 ...

이윽고 영희의 차례가 되었다.

《다음은 녀성고음독창 <발같이노래>, 출연에 리영희.》

박수갈채가 일었다. 병사들의 머리우에서 꽃다발이 왔다갔다 하였다.

《<발같이노래.>라고 했지.》

정치부중대장은 뻔히 아는것을 물었다. 박수를 치려던 손이 벌린채로 그대로 굳어졌다.

《예.》

경수는 벌써 이마의 땀을 씻었다.

그런데 웬일인가, 휘거선수와 같이 몸의 균형이 일때지게 잡힌 영희가 입에 웃음을 피우며 걸어나 오고있지 않는지. 발뒤축을 딱 맞추며 경례를 하는 그의 얼굴은 한송이의 목란꽃과도 같이 예뻐다. 그 꽃송이가 방긋 피어나는가, 영희는 뒤따라 나온 손풍금수에게 가벼운 미소를 던졌다.

장내는 물을 뿌린듯 조용해졌다.

영희는 관람석의 한복판에 앉은 경찰병들을 보았다. 순간 가슴이 푸드득 뛰면서 다리맥이 풀렸다. 영진이가 와있는것 같은 환각이 일어났다. 그러나 다음 순간 영희는 불길이 이는듯한 경수의 눈길과 마주쳤다. 집중사격구역 통과할 때 자기 팔을 나누어 썰 때, 불꽃처럼 번뜩이던 그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까막봉에서 비발치는 총탄은 무릅쓰고 보내는 영진이의 신호불꽃을 연상시켰다.

그 불꽃은 《누나!》 《누나!》하고 환성을 올리면서 잘 부르라고 격려하는듯싶었다. 이때 들리는 전주곡은 마치 재탕고개밑에서 부르는 영진이의 노래소리와 같이 울려왔다. 그의 눈앞에는 장군님께서 주신 땅에 행복의 씨앗을 뿌려가는 안골 사람들의 웃음어린 얼굴이며 《리영희》라는 패말이 박힌 발머리에서 《이건 우리 땅이야》라는 말을 듣고는 승이 나서 돌을 끌라 내버리던 영진이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백두산 말기에 백학이 너울 너울
해방된 강산에 빼꾸기 빼꾸 빼꾸

영희는 백학이 되어 행복의 들판을 훨훨 날았고
너무도 이 행복이 꿈만같아 빼꾸빼꾸 노래 불렀다.

아-아 아아아 아아

이때 경수와 중대장은 맑고 푸른 창공으로 끝없이 솟아오르는 수리개를 보는듯싶었다. 그런데 그 수리개는 숨이 모자라 떨어질것만 같았다.

서둘러 기운 배낭, 떡꾸레미, 들먹거리던 어깨가
눈앞에 어른거렸던것이다.

경수와 중대장은 저도모르게 서로 손을 꼭 잡았다.
눈을 꼭 감았다.

그러나 수리개는 보란듯이 그 높은 하늘을 날아
넘는다. 행복에 넘친 아름다운 선물이 흘렀다.

장군님 주신 땅

에루화 데루화 모두다 떨쳐나 발같이 가세

.....

장내가 떠나갈듯한 박수갈채가 일었다. 영희는 꽃다발속에 묻히는듯싶었다. 재청 또 재청... 《봄노래》, 《샘불터에서》 영희는 더 힘있게 더 아름답게 불렀다.

경수의 눈앞에는 배우인 영희가 아니라 쏘아지는 불비속을 뚫고 적의 화구로 육박해가는 영웅전사인 영희가 서있었다.

《진짜배기 병사지요.》

경수가 영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는 조선인민군전사요, 장군님의 전사란말이
요.》

정치부중대장은 신통히도 아까 무대뒤에서 영희가 하던 말을 되풀이하고있었다.

공연이 끝나자 경수를 비롯한 경찰병들은 너나없이 모두가 무대에 뛰어올라 《누나》, 《영진이 누나!》하면서 꽃다발을 무더기로 안겼다. 무례할 정도였다. 했으나 영희는 싫지 않았다.

그들모두가 것처럼 그림던 영진이 같았다, 그는 한손에 서넛의 손을 겹쳐잡으며 우리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답게 잘 싸우자요.》 했다. 이 말은 영진이를 만나 하려던 말이였다.

고지우에서는 계속 포탄, 폭탄이 터지고있었다.

온통 불타버린 고지는 나무그루흙마저 날아가버리고 이제는 화강암의 허연 등뼈가 한치 두치 깎이우고있었다.

그러나 박달령은 꿈틀거리며 흘러간 태백산령을 거만하게 굽어보면서 도고히 서있었다.

물노래, 위대한 사랑의 노래

김복원

구월산 산이 높아 굽이도 많은 기슭
떠처럼 휘감아 돌아간 물길
옷깃을 날리며 보폭에 서면
흘러오는 은파호 천리 생명수

소소리 높은 구월산 아흔아홉 봉우리도
경건히 머리숙여 굽어보는가
물길에 앞서 이고장을 밟으신
위대한 수령님 사랑의 자욱

강냉이포기에 물주는 처녀분조장
타드는 그 가슴 헤아리신 수령님
걸으시는 자욱마다 그 모습이 밝혀
걸음걸음 남기신 심려의 자욱

뜨거운 사랑안고 후더워오는 가슴
물길따라 물따라 쪽을 내리면
발이랑에도 흘러드는 물소리
물소리에 실려오는 물노래소리

아, 구월산기슭 외진땅에도 울리는 물노래
둔덕을 넘어서면 둔덕밭 추겨오는
젓줄기 타고 울리어오고
끝에 들어서면 끝에도 넘쳐흐르는 노래

그 누가 지어주고 퍼뜨린 이 없건만
사람들 가슴가슴에 절로 샘솟는 노래
물 그리던 그 옛날엔 구슬프기만 했던가
물풍년 이날엔 물이 좋아 즐겁기만 하여라

강냉이 와삭와삭 설레임소리 들으며
강우기 안고 앉아 물보라 날리는 처녀
그는 그날의 그 발머리 그 분조장인가
무지개 하늘에 걸고 노래속에 서있는 처녀

그 어떤 왕가물도 이겨내는 슬기를
어버이수령님 주셨다는 노래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풍년농사의 주인으로
락원의 땅에 세워주신 영광의 노래

낮에는 해가 솟아 받아부르고
밤에는 달에 비껴 울리는 노래
안악땅 그 노래 은천땅에 잇고
은천땅 그 노래 은틀땅에 울리나니

아, 물노래 위대한 사랑의 노래
부르며 목메이고 목메여 또 부르는 노래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높이 울리리
위대한 수령님 모신 우리 시대의 새 노래

수령님, 병사는 전투임무수행중입니다 외 2 편

김 시 권

소문도 없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수도의 이름없는 집집을 찾아주실 때면
문득 저의 방문도 두드리시며
해빛같은 환한 웃음으로
들어오실 듯한 마음

꿈속에서도 그림던 수령님을
영광스럽게 제가 뵈옵게 된다면
그이를 어떻게 맞이하며
무엇부터 말씀드릴까
일찌기 이 병사는 돌격전의 언덕에서 피 흘렸고
스물일곱해나마
병상에 누워 일어서지 못하거니

스스로 그려보며 생각하노라
불편한 이 몸을
그렇듯 다정히 어루만지시며
감추지 못하시는 흐리신 안색으로
심려하실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

이 몸이 지난 병사때처럼
군모채양가에 손을 딱 붙이며
그이께 보고를 올릴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최고사령관동지 !
병사는 전투임무수행중입니다.

이 몸이 바라는것
환하신 웃음으로
우리 수령님 기뻐하시게
군복어깨우에 전투장구 가뜰히 메고
어려운 임무를 받는 전사로
런대의 대렬앞에 나서고싶을뿐,

자나깨나 생각은 이 하나이거니
울부짖는 적탄을 뚫고
적진을 향해 육박하던 전사의 길
오직 수령님의 부르심앞에서

청춘의 심장이 죽음도 맞받아
한없이 높뛰던
그 시각을 잊지 않노라

그 어떤 불구름도 뚫고 헤치며
육박하던 그날의 그 자세
생명이 살아 고동치는 한
수령님 주신 임무를 어길수 없는
병사의 변함없는 이 자세

오늘도 병상을 그대로 전호삼아
시가의 붓을 총창으로 높이 추켜들고
휘황한 새 7개년의 봉우리를 향해
새 전투대오의 앞머리에 서서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다바쳐
원썩을 단죄하며
행복을 노래하는
성스러운 임무속에 나는 있거니.

오, 문득 수령님을
영광스럽게 뵈옵게 된다면
나에게 빛나는 삶을 주시고
꺼질줄 모르는 병사의 열정과
투지로 불타는 강철의 심장을 주신
은혜로운 어버이수령님을 우리러
진정에 넘치는 보고를 올리리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
어제날의 병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전투임무수행중입니다.
충성과 투쟁의 영원한
전사의 끝없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싶어라
그리고 끝으로 아뢰이고싶어라
-어버이수령님이시여 !
더 큰 임무를
저에게 명령으로 주십시오 !
이 한마디 기쁨을 올리고싶어
이 한마디 보고를 올리고싶어
전사는 대렬에서 제 자리를 지켜가노라

청춘의 랑만

눈보라 기승치는 북방의 험준한 산밭
호랑이의 사나운 발톱들이
바위벽에 자국을 뚜렷이 남긴곳
피끓는 청춘의 기상을 견주고싶은 좋은곳이었다.
우리가 처음 삽날을 박은
눈보라치는 철도건설장은-

털모자에 입김이 짧은 고드름으로 맺힌것을
자랑하는 랑만가- 청춘이여, 앞으로!
돌격하는 더운 땀 기운에 숨외투를 벗고
웃동을 눈보라에 내대고 웃고 떠들며
기계의 크나큰 삽날들을 번쩍이였다.
푸른 달빛아래서도 꿈을 안고 나가며...

그 누구도 아직은 들어서보지 못한
바람과 구름과 짐승들만이 지나던곳-
포수막의 외로운 불빛 한점 안보이던 여기에
우리는 흥성이는 천막들의 불야성을 이루었고
이 자리에 화려한 정거장이 솟아나리라
등근모 쓴 역장은 호기있게 웃으며
생활의 즐거움 가득실은 열차들을
맞고 보내기에 분주하리라

이곳을 찾아오는 손님들
트렁크를 쥐고 유쾌한 여행에 대하여

주교관을 그 웃음소리도 들려오는듯-
고산지대 식물을 채집하러
채집통을 멘 대학생들에게
백발의 생물학교수는
말하리라, 감격의 어조로
청춘의 삶은
이 철도처럼 조국땅위에 값높게 빛나야 함을
아, 수령님의 구상을 안고 달려온
청춘의 영예와 랑만이
이 밤도 눈무지 언 땅위에 흘리는 땅속에 빛나고
있구나

이제 조국땅, 이 높은 령마루위로
달려갈 첫 열차의 기적소리는
대고조의 거세찬 폭풍을 불러오려니
우리는 벌써 그날을 보며
기계의 운전대를 쥐고 돌진하거니

아름다운 꿈과 삶의 웃음, 혁명의 미래를
싣고 달리는 열차를
청춘들이여, 충성의 선물로
수령님 앞에 어서 기쁘게 보여드리자
저 산벼랑가 가장 높은 하늘중천에 놓은
철도위로 룡마처럼 달리는 열차를-

흐르는 시간을 두고

별무리들이 땅을듯 아슬한 산정우에
철탑을 세우는 이 밤
나는 일손을 잠시 멈추고
생각하노라
저 산굽이를 돌며 기적소리 울리는
광석을 실은 긴 렬차도
혁명의 벅찬 시간을 재촉하는듯 느껴지여라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안아보면서도
나는 무엇으로 축복을 해야 했던가
더 많은 철탑들과 은빛선들을 늘이며
용광로와 공장들에 전기를 더 보내주며
그 창조물들을 넘겨줘야 할
그 시간속에 축복의 나날은 있었다.

이 땅우에 흐르는 시간을 두고
내 얼마나 밤새우며 생각했는가
불야성 이론 먼 대진설장을 굽어보며
한초도 평범히 지낼수 없는
긴장된 시대앞에 선 자신의 일손을 두고...

이 전류가 한번 가면 다시 못오지만
그 열과 불과 빛으로 얼마나
조국땅우에 거창한 창조물을 세우는가
시간이며, 너도 가면 다시 못오지만
그속에 가장 빛나는 삶을 창조하며
조국을 떠받든 전사로 내 살아왔던가

아,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내 생의 나날 한초의 빈공간도 없이
창조로 가득 채우며 살았다고
시간이며, 너의 계산앞에
내 땀땀이 이 땅우에서 대답할수 있는가

생각하노라, 병사시절
적탄을 뚫고 돌격의 언덕으로 내달던
그런 긴장과 위훈의 순간순간으로
내 오늘도 창조의 자욱 찍어갈것을-
잊지 못하노라, 전사의 자욱이 지난뒤로
언제나 따라서며 빛나던
웃음높던 도시의 창문들
아이들의 글소리 랑랑하던 학교들

나는 그 발걸음으로 이 철탑에 올랐다

눈비에 군복이 색날던 나날
새 작업복이 또 땀에 젖어 갈아입을 때마다
보람차게 산 시간의 흐름을 두고
느끼노라, 한초도 공허함이 없이
조국을 철탑으로 떠받들며
병사의 발걸음 창조의 시간속에 찍혀지고있음을...

아, 바라보면
산발을 넘으며
철탑을 세우며
내 걸어온 발걸음
하나로 이어진 태백산, 설악산
저 쓸쓸한 산발우엔
아직 은빛철탑을 세우지 못했구나

생각한다, 나는
가슴터지는 거센 숨결로 일손을 다그치며
자신이 일떠세우는 철탑들을
저 낮익은 락동강 도하지점에도 세울것을
파피와 눈물속에 흘러간 절반땅의 빈 시간속에
겨레의 피출인양 전류의 이 흐름을 이어
창조의 순간순간으로 불꽃을 피워줄것을...

수령님의 전사, 내가
이 시대에 안아와야 할
그 웃음과 감격, 창조의 세계는 얼마나
긴박하게 나의 일손을 부르는가
이 땅우에 흐르는 시간이며
너의 한초에
나는 하루의 창조물을 세우고싶고
내 나이 한살한살에
천만년의 세월도 주름잡아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고싶구나

말하노니, 시간이며
내 그렇게 이 땅우에 살리라.
이 철탑을 한번 지나는
저 열과 불과 빛이
이 땅우에 도시와 공장들을 일떠세우는것처럼
내 심장의 맥박을 거치는 한초한초의 시간이
가장 빛나는 충성으로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잇는
영원한 기쁨으로 흐르게 하리라

우리는 그 시절에 함께 싸웠다

박래설

우리는 그 시절에 살았다
얼마나 슬기로운 시절이었던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젊음이었던가

그때 우리는 모두
스물안팎의 젊은 나이
기쁨도 웃음도 꿈도 많았거니
고지의 전호속에서 시를 읊고
어깨 나란히 노래도 불렀다
행군의 실참에는 모닥불옆에
언 주먹밥도 서로 함께 나누었고
구수한 마라초도 돌려피우며 즐거웠다

그리도 보람찬 시절
우리들의 가슴은 오로지 하나
조국의 운명과 함께 고통쳤나니
그것은 조국의 안녕과 미래
설사 태일의 싸움에서
그 누가 쓰러진다 해도
우리는 짧은 실참에 편지를 썼다
따바리 둥근 탄창우에 연필을 달리며
화선의 이야기, 승리의 소식 후방에 날렸다

포연이 흐르는 전호속에서
때로는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밤이면 소쩍새 울던
고향의 강반을
우리들의 단란한 요람이던
집을, 학교를, 소년단야영지를
논과 밭 그리고 불빛 환하던 구락부를,
아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잊을수 없는 그 모든 소중한 생활을...

그러나 사랑하는 학교는 불타고
마을도 거리도 모두 불타버렸으니
우리는 울었다, 복받치는 증오로 하여

그리하여 달려든 미제의 가슴팍에
불벼락 안기며 남으로, 남으로
원수를 휘몰아 그 몇백리였던가
아, 서울...금강...대전...락동강...
불타는 거리와 마을을 지나
넘고넘은 싸움의 길
싸움으로 날이 밝고 포연속에 해가 저물던...

그 시절 우리
두고 온 고향은 서로 달라도
조국-그 이름을 하나로 부르며
싸움마다 불길속 함께 헤쳤거니

우리는 나아갔더라, 그 이른새벽에
앞에서 뒤에서 그리고 옆에서도
지동치는 폭음, 솟구치는 불기둥 불기둥
귀가에 우는 파편의 회오리 바람소리...
하지만 우리는 일어나 나아갔다
손에서 손으로 기발을 받아안고

그 누군가 포연속에서 웨쳤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어머니 조국을 위하여
로동당원들을 따라
민청원들이여 앞으로!

발악하던 원수의 불아가리 날려보내고
우리는 승리한 고지에 있었다
우리는 넷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노래를 불렀다
노래 없이는 한시도 못참는 우리였으니
우리는 노래를 부르며 싸웠다
노래를 부르며 승리하였다

아, 얼마나 잊을수 없는 이름들인가
양구...린제...설악산...태백산마루

인민은 그 시절을
뜨거운 마음안고 추억하고
시인은 찬양의 노래 읊는다
선생은 오늘도 아이들에게
그 시절의 용사들을, 영웅들을 이야기한다

까치봉... 월비산...매봉...1211고지...
우리 가슴으로 안아지키인...

아, 얼마나 자랑스러운 시절이었던가
얼마나 빛나는 젊음이었던가
동무야,
우리는 그 시절에 함께 싸웠다
우리는 오늘도 그 시절에 함께 산다!

옛 전선길을 걸으며

최 준 경

룡포리 역사의 집이어

촛촛한 참나무 숲을 병풍처럼 두르고
룡포리 역사의 집은 서있어라
향기로운 철쭉꽃으로 앞뒤뜰을 단장하고
전선동부 불멸의 집은 서있어라

장군님께서 마식령을 넘어오실 때
앞에는 최전선, 더 나가서서는 안된다고,
간절히 아뢰던 교통정리원의 목소리가
여기 토방가에 오늘도 어려있는듯

사철 푸른 향나무도 조용히 설레이고
장군님께 바쳐드린
이고장 농민들의 깨끗한 정성인듯
오늘도 끝없이 맑은 샘 솟아나라

오, 뜨거운 마음 고이고 다가서면
벽과 지붕은 으리으리하지 않아도
우러르는 가슴 절로 숭엄해지는 집이어,

조국이 공방전의 신들메를 하고 나선 그날
승리의 전환점을 여기서 마련하시려
최고사령부가 자리잡았던 검소한 집이어 !

불구름 타래치던 싸움의 그날에
장군님께선 여기 넓지 않은 트랙에서
1211고지 령길을 내려온 장령도,
포연속을 뚫고온 남강마을 너인도
자랑의 한품에 다 안아주시었구나 !

한밤엔 여기 작전도가 놓였던
수수한 농가집 책상우에서
천리전선과 미제의 기도를 다 살피시고
움직일 군단과 사단들을 불러

원썩격멸의 화살표를 그으시며 그으시며
이 세상 가장 높은 승리의 봉우리들과
이 세상 가장 높은 인민의 영광을 마련하셨구나.

어제는 항일무장투쟁의 결전장에서 15성상
몸소 진두에 서시여
수많은 결전장들을 지나
30년대의 준령과 탄우를 헤쳐오신 그이
전화의 날엔 최전선의 탄피를 밟으시여
또하나의 제국주의를 꺼꾸르뜨리고
20세기 50년대를 빛내이신 그이,

오, 장군님의 사색과 신념이 어리고
세기의 전략이 펼쳐졌던 집이어
이 나라 인민의 힘과 의지를 불러
최전선 가까이에 나앉았던 집이어,

이 토방에서 아득히 뻗어갔구나 !
불구름속에서 군량을 무르익히고
사선의 언덕 넘어 총포탄을 섬기던
저 자랑많은 강원도의 들판과 전선길들이
미제침략자를 천길나락밑에 놀러디디고
승리의 합성을 만리창공에 터치던

저 위훈 많은 조국의 고지들과 산발들이
오, 룡포리,전선지구 역사의 집이어 !
그날의 전투적영광을 고이 간직하고
오늘은 승리의 꽃다발속에 묻혀
노래로 전해지는 역사의 집이어 !
기둥은 높지 않고 돌은 넓지 않아도
장군님 모셨던
너의 지붕은 전승의 하늘가를 떠받들었고
너의 트랙은 위훈의 강토를 지키었어라.

낮익은 사람들

그 언제 불려도 정이 넘치고
그 어디서 만나도 피가 끓는다
전화의 나날에 운명을 같이했던
강원도의 낮익은 사람들이여

밟는 땅 자욱마다 추억의 샘은 고이노니
여기선 과일밭의 한 처녀를 만나도
울안에 열린 대추 바구니에 파안고
진격의 대오를 맞이했던 영웅의 후손
그들의 그 까만 눈동자가 문득 떠올라라

여기선 귀밑머리 흰 한 녀인을 만나도
불너머 홍수너머 용사들 생각하며
총들고 추수전에 나갔던 영웅의 안해
그날의 흰 머리수건들이 문득 보여와라.

세월은 흘러 스무해를 넘고 넘었어도
이 땅에 남긴 아름다운 노래와 함께
낮익은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은곳이여
군민이 힘을 합쳐 조국을 지키라고
장군님 불려주신 그날부터 그날부터
전호와 집문턱이 따로 없던곳이여,

더듬으면 다시 섬광처럼 비쳐오누나.
육박전을 치른 나의 손에
애틀한 고향의 훈향을 담아
꽃강냉이를 쥐여주던 마음 후한 어머니들,

상처의 피 질벽하던 나의 어깨에
옷자락을 찢어 매여주던 정다운 누나들...
포화에 흔들림 없던 사나이 가슴도
불같은 그 사랑에 눈굽 흠친적 얼마였던가

장군님 맡겨주신 조국의 전선을
미제에게 단 한치도 내어줄수 없었기에
피도 땀도 함께 흘린 삼년세월
가슴속 묻은 정에 티가 없었듯이
서로 나눈 은정에도 티가 없었구나

오, 불꽃은 피었다 포화속에 흠어져도
군민일치 붉은 꽃은 지지 않던 땅이여,
고난이면 서로 나누어 사그리고
기쁨이면 서로 보태어 키워가며
군민의 뭉친 힘 불의 노도가 되여
사람도 산천도 영웅으로 자란 땅이여,

내 오늘 여기서
피와 땀으로 운명을 같이했던
수고 많은 그네들을 다 못만나도 좋다
또다시 출진의 날이 오면
낮익은 모습들 한 전호속에 모이리니
싸움속에 맺어둔 군민의 그 정은
세월을 넘어 투쟁의 언덕을 넘어
조국의 꽃으로 더욱 만발하리라.

샘물 한드레박

우물가에 진달래 곱게 핀 아침
전선마을 처녀들 물을 길는데
지나기던 전사동무 잠깐 들러서
투박한 말씨로 물을 청했네

-처녀동무들,
거 시원한 물 한드레박 떠주시오,
처녀들은 그 말이 마음에 들어
드레박 통채로 물을 떠줬네

그랬더니 전사동무 달게 마시고
무쇠팔뚝 뿔내며 다시 말했네

-꿀같이 단 이고장 물값은
미제치는 싸움에서 한몫 내겠소.

투박해도 밋지 않은 그 전사에게
처녀들은 전투승리 축복하였네
장군님 전사로 잘 싸우라고

우물가의 꽃을 꺾어 안겨주었네.

-군인동무 다시 들릴 땐
앞가슴에 영웅메달을 달고 오세요.

전사동무 그 부락을 가슴에 안고

어깨우의 따발총을 추슬러뒀네.

군민의 정 넘쳐나는 우물가에
승리의 밝은 미래 남기고 갔네.

-큰공 세우고 돌아오는 날
샘물 한드레박 또 청하겠소

수호한 삶은 값높다

격전의 불구름이 흘러간 땅에서
전진하는 생활의 흐름소리를 듣는다.
포연과 재가루를 털어낸 땅에서
무성하는 행복의 웃음소리를 듣는다.

씻은듯 가없이 펼쳐진 하늘가
내 눈길 들어 바라보니
직사포를 끌어올리던 재 철령으로
벽촌마을 빠스가 두둥실 날아내리고
너인들 탄약 이고 뛰어들던 남강으로
배부른 물오리떼가 헤엄쳐가누가!

백병전의 번개 잦을날 없던곳,
푸른 총창 맞비비던 속사리 언덕에도
락원동의 창문들이 과일향기를 거느리고
청아한 가야금소리 골안에 뒹기여라
파편 절적이던 이 땅 그 어디나
기계화군단의 행진곡에 이삭들이 물결쳐라

장군님 품에서 받은 참다운 삶을
노예의 멍에를 더럽힐수 없었기에
우리 바쳐온 성실한 투쟁의 대가로

오곡의 향기는 전야에 깃들고
밟는 땅 자욱에 삶의 즙은 넘치나니
불속도 연기속도 웃으며 뛰어든것은
공명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이 모든 행복을 위해서였구나.

백번 쓰러져도 제고장 제땅에서
영원히 사는 법을 배우고싶었기에
피로써 수호한 생활과 투쟁의 노래는
가장 엄혹했던 폐허의 재무지에서
가장 빛나는 락원의 절정으로 나래쳤구나

오, 보복의 총창을 닦으며
어제에서 행복한 오늘을 그려보고
풍요한 들길을 걸으며
오늘에서 준엄했던 어제날을 그려보는곳이여,

장군님의 엄숙한 명령을 받아안고
우리 미제에게 무자비했던 그만큼
미래앞에 바친 사랑 뜨겁게 채웠노니
그래서 수호한 삶은 곱절로 값높구나,
그래서 수호한 삶은 미래앞에 빛나누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진실한 화폭

-장편소설 《갇오농민전쟁》(제1부)에 대하여-

동 근 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옛날의 계급투쟁을 취급한 소설도 쓸수 있습니다. 옛날이라고 하여 계급투쟁이 없었던것은 결코 아닙니다. 노예사회나 봉건사회에서도 계급투쟁의 형식이 오늘과 다를뿐이지 노예주와 노예, 봉건령주와 농노 사이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계급투쟁들도 소설로 잘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옛날의 계급투쟁을 그린 소설을 창작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받들고 출판된 박태원 작 장편소설 《갇오농민전쟁》(제1부)은 역사소설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높은 사상미학적요구를 훌륭히 실현한 우수한 작품이다.

역사소설은 옛날의 역사에서 소재를 취하여 그 때의 현실을 여러모로 반영하는것으로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지난날의 역사와 문화, 풍속과례절 등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게 하면 지난날의 역사에서 교훈을 찾게 한다. 특히 옛날의 계급투쟁을 그린 작품은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주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한다.

《갇오농민전쟁》(제1부)은 가혹한 봉건적억압과 착취에 대한 인민대중의 분노가 쌓이고 쌓이며 갇오농민전쟁이 일어나지 않을수 없게 된 사회력사적환경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오상민을 비롯한 고부군안의 농민들이 모두 들고일어나 힘을 합쳐 안으로는 탐관오리와 량반 토호들을 처단하며 밖으로는 왜놈, 양국놈을 쫓아버리고 어지러운 정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생활의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진지하게 파고들었다.

작품에서 작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폭넓고 깊이 있게 전개하면서 가혹한 봉건적억압과 수탈은 인민의 불만과 분노를 자아내고 반항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옛날 농민들의 계급투쟁에 관한 주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였다.

그러면 장편소설 《갇오농민전쟁》(제1부)이 거둔 중요한 성과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작품이 오늘의 현실생활과 가까운 문제를 취급함으로써 현대성을 옹계 구현하였다는데 있다.

현대성을 옹계 구현하는것은 역사소설창작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난날을 취급하는데 있어서도 오늘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직접 관련된 문제부터 시작해야 할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직접 관련된 문제를 사상주제적과제로 내세우는것은 역사소설창작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이다.

사람들은 문학예술작품을 심심풀이로 보는것이 아니라 생활을 더 깊이 리해하고 사상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본다. 따라서 모든 문학예술작품은 오늘의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복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생활을 보여주는 역사소설이 우리 인민들의 혁명투쟁과 직접 관련된 문제를 사상주제적과제로 제기하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역사적 사실자체의 재현에 그친다면 그러한 작품은 지난날의 역사에 대한 지식은 좀 줄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시대 근로자들의 사상미학적요구를 충족 시킬수는 없게 된다.

장편소설 《갇오농민전쟁》(제1부)은 오늘 우리 인민들의 혁명투쟁과 직접 관련된 문제인 반봉건 반침략투쟁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고 그것을 주제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해명한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역사소설로서의 응당한 가치와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이 작품이 역사적배경으로 삼고있는 19세기말은 우리 나라가 근대사회에로의 발전의 길에 들어섰으나 봉건위정자들의 부패문란성과 략탈성이 심해지고 봉건적중앙집권제와 나라의 방위력이 극도로 미약해졌으며 그러한 틈에 구미자본주의렬강과 일본, 청나라, 로씨야 등 외래침략세력이 식민지적 략탈의 마수를 로골적으로 뻗치고있던 시기이다. 이리하여 당시 우리 인민들앞에는 계급적모순과 함께 민족적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반봉건반침략 투쟁과업이 절실하게 나섰다.

1894년의 갇오농민전쟁은 당시 인민들의 반봉건적이며 반침략적인 투쟁의 집중적표현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의 역사를 밝히시면서 1894년 갇오농민전쟁때에 농민들을 비롯하여 애국적군인, 선비들

은 봉건통치배들의 악정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을뿐 아니라 국내의 혼란된 기회를 리용하여 기여들어온 일본침략군을 맞받아 피어린 투쟁을 벌리었다고 가르치시었다.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제 1 부)은 바로 갑오농민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밝히면서 당시의 복잡한 계급관계, 경제관계, 대외관계 등과 여러 계급과 계층들의 처지 및 사상동향 등을 폭넓게 그림으로써 역대적으로 피압박근로대중만이 진정으로 사회적 진보와 변혁을 이룩한 역사의 주체이며 지배계급은 흉악한 략탈자일뿐아니라 외래침략자들에게 굴종한 무능하고 비렬한 매국배족적인 무리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리하여 소설은 한편으로는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계급투쟁의 역사, 반봉건, 반침략 투쟁력사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하며 다른편으로는 량반관료들, 지주들의 간악성과 략탈성, 외래침략세력들의 오만무례한 행위와 교활성에 대한 신랄한 폭로를 통하여 량반지주계급과 역사적으로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수로 되고있는 미일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게 한다.

이것은 이 작품이 지금으로부터 근 100 년전의 현실을 그리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담긴 내용들은 바로 계급교양, 반제, 반미, 반일 교양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할 현시기 당사상사업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준다는것을 말하여주며 여기에 또한 이 작품이 가지고있는 우리 시대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역사소설로서의 우수한 특질과 현실적의의가 있다.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제 1 부)의 중요한 성과의 다른 하나는 작가가 주체의 역사관을 견지하여 작품에서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19 세기말의 인민대중의 투쟁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그려내었다는데 있다.

역사소설창작에서 작가가 어떠한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적현상을 대하고 평가하면서 인물의 성격과 생활을 창조하는가 하는것은 작품에 로동계급의 립장을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작품의 높은 사상성을 담보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근본문제이다.

주체의 역사관은 사람,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철학의 기본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대중을 역사의 주체이며 사회말기의 동력이라고 인정하면서 역사발전의 기본동인은 바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있다고 가르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혁명투쟁은 한마디로 말하여 다 계급적인

또는 민족적인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착취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주권을 쥐지 못하고 생산수단을 가지고있지 못하기때문에 사회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고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 되어 온갖 인격적인 모욕과 멸시를 받는다.

이로부터 근로인민대중은 짓밟힌 자주성을 찾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게 된다.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제 1 부)은 주체의 역사관이 밝혀주는 이러한 진리를 생동한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깊이있게 구현하였다.

작가는 화폭의 중심에 상민이를 비롯한 피압박 근로인민들을 확고히 세워놓고 그들에 의하여 먹을것을 비롯한 물질적부가 창조되지만 어찌하여 이들은 가난과 무권리 속에 피눈물을 뿌려야 하며 봉건관료들과 량반지주들은 놀면서도 향락과 전횡을 일삼게 되는가 하는 문제성을 제기하면서 사건의 전진과정을 통하여 그에 명확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소설의 기본사건은 갑오농민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밝히는데 중심을 두고 벌어지구 발전하지만 작가는 농민전쟁의 주체를 폭넓게 구현하기 위하여 상민의 할아버지를 비롯한 농민들의 《익산민란》과 상민의 아버지 등이 참가한 갑신정변의 열매를 지키기 위한 반봉건반침략투쟁, 활빈당과 《일심계》의 반봉건투쟁 등도 보여주면서 이 모든 투쟁이 인민들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의 연속적인 고리로 된다는것을 밝히었다. 특히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의 묘사는 상민이를 비롯한 중심주인공들의 성격발전과정을 통하여 깊이 있고 생동하게 주어지고있다.

작품의 첫머리에 나오는 상민이는 제땅이 없어 가난에 부대끼는 자기 마을과 지주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이 가난한 마을앞의 넓은 벌판을 서글프게 바라보면서 땅이 있었으면 하고 부르짖는다. 그리고 콩잎, 팔잎을 거두어 겨울 날 량식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자기 집 형편과 주림과 병마에 시달리는 길보아저씨네 살림형편을 뼈아프게 느끼면서 망할놈의 세상이라고 울분을 토로한다. 이리하여 작품에서는 농민들의 자주성을 옹호할데 대한 지향을 점차적으로 더욱 심화해나간다. 상민이를 비롯한 마을 농민들은 자신들의 계급적처지와 생활체험을 통하여 상민의 할머니가 말하는것처럼 왜놈, 양국놈도 다 쫓아내야 하겠지만 그 김에 아주 이놈의 세상을 뒤집어놓아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끝내 농민전쟁에 일떠서게 되는것이다.

주체의 역사관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곳에서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다. 상민이를 비롯하여 소설에 나오는 긍정적인 인물들은 바로 주권과 생산수단을 가지고있지 못한탓으로 하여 이루 헤아릴수 없는 주립과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며 생활이 가르쳐주는대로 인간의 본성을 지켜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작품의 사건은 이처럼 주인공들의 자주성이 깃뚫히는데서 발단되고 그것이 더욱 심화되어 투쟁으로의 불씨를 마련하는데서 국적첨예화와 발전이 이루어지는것이다.

이리하여 작품에서 그 역사적배경으로 되고있는 19 세기말의 모든 사회력사적사변들은 인민대중의 투쟁과 련결되어있으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력사의 전진운동이 마련되었다는것을 설득력있는 예술적형상으로 힘있게 확인하였다. 이 작품을 읽고나면 그 복잡하고 침침하고 어두운 현실속에서도 력사의 한복판에는 인민대중이 서있었다는것과 인민대중의 억센 힘에 의하여 근대사회의 력사도 투쟁의 력사로 빛난다는것이 뚜렷이 안겨온다. 이것은 작가가 주체의 력사관에 서서 모든 력사적사건들과 현상들, 인물들을 분석평가하고 예술적으로 일반화한데서 오는것이다.

장편소설 《갓노농민전쟁》(제 1 부)은 형상창조에서 력사적사실과 예술적진실성을 통일시킴으로써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하는데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력사적사실과 예술적진실을 통일시키는것은 력사소설창작에서 중요한 사상미학적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느 농민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을 쓴다면 력사를 쓰듯 사실을 그저 라렬할것이 아니라 어떤 전형적인 개별적사람들의 투쟁을 통하여 그때 사회의 농민전쟁전반과 계급투쟁의 전모를 보여줄수 있게 그릴수 있을것입니다.》

력사소설은 지난날의 력사에서 소재를 취하여 창작되는것만큼 력사주의적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력사적사실자체가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예술적으로 일반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한 작품은 사람들을 미학정서적으로 감동시킬수 없을뿐만아니라 력사소설로서의 고유한 면모도 똑바로 가지지 못하게 된다.

력사소설을 잘 쓰자면 력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필요한 동시에 력사적사건들과 현상들을 로동계급의 립장에서 정확히 분석평가하고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일반화할수 있는 예리한 정치적안목과 높은 형

상화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형상창조에서 력사적구체성과 진실성을 보장하면서도 현대성을 구현하여 작품의 예술적생동과 현실적의의를 보장하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장편소설 《갓노농민전쟁》(제 1 부)은 력사자료에 대한 작가의 진지한 탐구정신과 함께 그것들을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예술적으로 재가공하기 위한 작가의 창작적인 자세를 잘 보여준다.

작품에는 갓노농민전쟁의 지도자 전봉준과 함께 국왕 리형, 대원군, 민비 등 실재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1882 년(임오) 군인폭동, 1884 년(갑신) 부르쥔아혁명, 《익산민란》, 활빈당의 활동 등 실재한 력사적사실들이 줄거리의 바탕으로 리용되고 있다. 당시 봉건량반들의 매판매직이 심해져서 1892 년 9 개월동안에 리조판서는 3 번 갈아치우고 레조판서는 9 번, 형조판서는 7 번, 공조판서는 14 번, 판성판윤(서 울시장)은 무려 24 번이나 갈아치웠다는 구체적수자까지도 수많이 소개되고있다. 당시 사회제도의 부패상을 폭로하여주는 이와 같은 사실적인 자료들로 하여 작품은 당시의 이러저러한 력사적사건들과 현상들, 문물제도와 생활풍속, 폐의도덕 등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얻게 한다.

그러나 이 작품의 가치는 실재한 력사적사실들이 풍부하게 담겨있다는 그 자체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중요하게는 력사적사실들이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형상적으로 재가공됨으로써 주제사상해명에 복종하는 형상의 유기적구성요소들로 되고있다는데 있다.

사실상 실재한 자료들이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형상적으로 재가공되어 형상의 유기적구성요소들로 되지 못하고 과학론문에서처럼 그 어떤 레종의 자료로써 개념적이며 논리적인 서술체계의 한 부분으로 되고만다면 그렇게 씌어진 작품은 문학작품으로써는 의의를 가지지 못하며 그러한 작품을 읽을바에는 차라리 력사론문을 읽는편이 나은것이다.

장편소설 《갓노농민전쟁》(제 1 부)에서 작가는 수많은 실재한 사실들과 력사기록들까지 끌어들이면 서도 그것들을 예술적일반화의 자료들로 잘 소화함으로써 형상창조에서 력사주의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예술적진실성을 확고히 보장하였으며 작품의 예술적품위를 높였다.

레컨대 제 1 장에 나오는 갑신정변이야기는 칠성이가 상민과 그의 할머니, 어머니에게 죽은줄 알았던 오수동(상민의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주는 형식으로 삽입되면서 오수동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을 드러내는 생활의 토막으로 리용되고있다. 제 2 장의 서울거리장면에 나오는 력사적사실들도 주인공들이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구호를 들고 썩어빠진 당시 사회를 뒤집어엎지 않고서는 건딜수 없는 투쟁

의식을 지니게 되는 사건발전의 중요계기들로 리용되고있다.

이것은 작가가 모든 력사적사건들과 생활자료들을 단순히 라렬한것이 아니라 작품에 심어진 종자를 꽃피우는데로 확고히 지향시키면서 그것들을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잘 가공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이 소설에 나오는 사건들이 예술적진실성을 띠고 감성적으로 파악되는것은 형상창조의 이러한 특성과 관련된다.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1 부)의 이러한 성과는 작품의 구성조직의 특성과도 관련된다.

소설에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인물들이 많이 나오며 그들의 활동무대가 넓고 사건들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19 세기말의 우리 나라 현실의 속도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생활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려지고있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구성을 잘 짜놓음으로써 명백한 이야기줄거리를 따라 주제사상을 뚜렷하고 흥미있게 천명하여놓았다.

이 소설의 구성에서 특징적인것은 생활을 폭넓게 묘사하여 주제사상을 심오히 천명할수 있도록 인간관계들을 다양하게 설정하고 그 다양한 인간관계가 이야기줄거리의 기본선에 잘 맞물리게 한것이다.

작품의 제 1 장에서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오상민이며 오상민과 맺어지는 길보, 칠성, 씨동, 김침지 등과 관계에 의하여 당시 농민들의 일반적생활처지와 갑신정변을 둘러싼 여러 계급, 계층의 동향, 리조봉건정부의 대외관계 등을 보여주는 생활이 펼쳐진다.

제 2 장에서는 오상민을 중심으로 하여 그와 맺어지는 정한순, 계뚜더기, 안장교 조병갑 등과의 관계에 의하여 봉건관료들의 부패무능과 반인민적죄악상, 그들에 대한 인민의 원망을 보여주는 생활이 펼쳐진다.

제 3 장에서는 지주 리진사의 성격형상에 의의를 부여하면서 그와 그의 머슴군들 및 소작인들과의 관계, 머슴군들과 소작인들 호상간, 머슴군들 호상관, 소작인들 호상간의 관계에 의하여 농민들의 미풍량속과 함께 그들의 비참한 생활과 울분, 지주계급의 악랄성, 략탈상을 보여주는 생활이 펼쳐진다.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제 2 장에서의 봉건관료들사이의 관계만 놓고보자.

여기에 나오는 대원군이나 민비, 민비의 15 촌조카로서 평안감사를 할 때 인민들에게서 략탈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왕에게 바친 덕분에 레조판서노릇을 하는 민영준, 민영준을 매개로 민비에게 7 만량을 주고 고부군수자리를 사는 조병갑 등은 중심주인

공과 직접적관계는 맺고있지 않다. 그러나 대원군과 민비를 둘러싼 봉건궁정내의 추악한 알뜰관계는 서울거리에서 나타난 오수동의 반봉건적 감정에 어울리게 잘 묘사되었다.

이리하여 작품에 그려진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은 농민전쟁의 주제를 폭넓고 심오하게 풀어나가는데로 지향하면서 이야기줄거리의 기본선을 따라서로 밀접히 련결되게 되었으며 묘사의 폭과 깊이, 론리적타당성과 조화를 확고히 보장하게 되었다.

이 소설의 구성에서 또한 특징적인것은 이야기가 구수하게 전개되고 줄거리가 선명하여 주제사상을 흥미있고 뚜렷이 밝혀준다는데 있다.

우리 나라 고전소설은 이야기를 구수하고 명백하게 전개해나가기 위하여 작품을 여러 회로 나누고 주로 주인공의 일대기를 이야기식으로 엮어나가는 형식을 취하였다. 고전소설의 구성형식에서 이야기줄거리를 구수하고 명백하게 전개해나가는것은 좋았으나 거기에는 우리 시대의 미감에 맞지 않는 중세기적인 낡은 틀이 적지 않았다.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제 1 부)은 력사소설로서의 특성에 맞게 고전소설의 구성에서의 긍정적요소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작품들을 인물들의 움직임과 사건발전 과정에 따라 여러 부분들로 제목화하여 나누고 이야기를 구수하고 명백히 끝고나감으로써 주제사상의 명백성을 보장하고 독자들의 민족적정서와 흥미를 자아내게 하였다.

이밖에도 작품은 성격형상과 생활묘사, 언어표현 등에서 민족적특성을 진하게 구현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상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사상에술적품위를 확고히 보장한 특징도 가지고있다.

박태원 작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제 1 부)은 이와 같은 일련의 사상에술적성과들로 하여 우리 문학의 화원을 다채롭게 하고 력사소설에 대한 독자대중의 날로 높아가는 요구를 실현하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고있다.

오늘 우리 문학앞에는 현실주제의 작품들과 함께 력사적주제의 작품들도 더 많이 창작하여 근로자들의 계급교양에 이바지하고 독자들의 높고 다양한 사상미학적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갑오농민전쟁》(제 1 부)과 같은 력사소설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써냄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며 당과 혁명앞에 지닌 영광스러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다양한 양상의 작품을

조 칠 형

우리 문학을 주체의 인간학으로 찬란히 꽃피워나가는 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매개의 작품들이 자기 고유의 형상적특성과 양상을 지니게 하는 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작품의 양상은 생활의 본색을 정서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내는 형상의 독특한 색깔이다.

그것은 작품에 일관되어있는 열정과 생활적내용의 성격, 예술적화폭의 명암과 색채, 극적전개와 생활세부의 탐구방식 등에서 나타나는 작품의 정서적 색깔이다. 그러므로 양상이란 하나의 산 유기체로서의 문학작품의 고유한 얼굴생김새이며 그 성격적특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떠한 형상적각도에서 작품을 꾸미며 어떤 양상을 지니게 하는가 한것은 해당작품의 사상예술적 가치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옳바른 형상적각도에서 해당작품의 체질에 알맞는 양상을 탐구해야 심어진 독창적인 종자가 아름답게 꽃피날 수 있으며 반영된 생활내용이 진실하고 감동깊게 전달될 수 있고 일관된 감성선이 보장될 수 있을뿐 아니라 모든 생활세부들이 주체사상적내용의 천명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 결국 작품의 미학적정적감화력은 양상에 의하여서도 좌우되게 된다.

종자를 꽃피우기 위한 기본대와는 다른 각도에서 형상을 끌고나가고 작품의 체질에 맞지 않는 양상을 부여한다면 형상은 따분한 사건의 라렬이나 묘사를 위한 《묘사》에로 떨어질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작가는 자기의 사상미학적의도를 형상으로 구현해낼 수 없으며 사상적내용을 개념적으로 강조하는 결과밖에 가져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창작에서 양상을 옳게 부여하는 것은 작가의 개성적특성을 최대한으로 발양하고 모방과 류사성을 극복하는 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작가의 창작적개성은 선택된 이야기거리를 어떤 구성조직속에서 예술적으로 일반화하여 재현하는가 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어떠한 독창적인 문체와 묘사기법으로 그리며 작품에 어떠한 양상을 부여하는가 하는 데서 표현된다.

양상을 옳바로 잡지 못했을 때에는 그 작품이 다른 작품으로부터 확연히 구별되게 자기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는 개성적인 것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얼굴이 뚜렷한 작품, 개성이 살아난 작품이란 내용의 체질에 알맞는 양상의 옷을 입은 작품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양상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또한 우리 문학을 다채

로운 무늬로 수놓아진 아름다운 형상의 화원으로 란만하게 꽃피우며 근로자들의 다양하고 높은 미학적수요를 충족시키는 담보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노래는 반드시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지어야 합니다. 전투할 때는 전투에 맞는 노래가 필요하고 로동할 때는 로동에 맞는 노래와 목도를 뽐낼 때 부르는 노래가 서로 다릅니다. 이와 같이 격에 맞는 노래를 불러야 전사들은 용감히 싸울 수 있으며 로동자, 농민들은 생산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무때 아무데서나 좋은 노래란 있을 수 없으며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정형에 맞는 노래라야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정형에 맞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적내용에서뿐 아니라 양상에서도 다양성과 독창성을 보장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근로자들은 우리 문학의 화랑을 통하여 더욱더 아름다워진 자기들의 생활을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과 다양성 속에서 볼 것을 요구한다.

다양한 양상의 화폭으로 이루어진 미술전람회라야 각이한 기호를 가진 관람자들의 미학적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문학도 각기 고유한 체질적특성에 알맞는 양상을 가진 작품들로 풍부화될 때라야 미학적 취미와 기호가 서로 다르며 정서적감수력이 큰 우리의 독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양상의 구현에서도 우리 시대 주체의 새 인간학의 고전적본보기로 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의 높은 사상예술적가치는 이 작품들이 거기에 심어진 종자를 가꾸는데 알맞는 형상적특성과 양상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의 높은 사상예술적가치는 이 작품들이 거기에 심어진 종자를 가꾸는데 알맞는 형상적특성과 양상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극작품의 경우 정극, 풍자희극 등 여러가지 양식을 가지고있을뿐 아니라 같은 양식에 속하는 작품들도 독특한 형상적특성과 양상을 가지고있다.

한 계열에 속하는 작품들인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극적전개와 생활세부의 탐구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피바다》는 조직선과 정치적선을 통하여 성장하는 성격을 그렸다면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조직선과 정치적선이 들어가지 않은 인간성격과 생활을 그리고 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는 혁명의 주류속에서 혁명에 대한 주인공의 인식과정을 그렸기때문에 유격대공작원이 등장하고 유격대가 나오는것으로 되어있다면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서는 주인공이 적의 편에 끌려들어가 반역의 길에서 해매면서 많은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과정을 거쳐 마침내 반변을 일으키고 옳바른 삶의 길로 들어서는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는 꽃분이 일가의 비참한 운명을 기본줄거리로 하여 이야기를 전개해나가고있다.

이 작품들은 이러한 형상적특성으로 하여 매 작품이 고유한 양상을 지니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는 규모가 큰 생활을 포괄하면서 힘있고 박력이 있으며 기백이 강하다면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작은 소재에 기초하여 보다 인정세태적인 흐름을 타고나가며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는 보다 심리적이고 섬세한 감정신을 파고들면서 철학적인 심오성을 지니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의양상의 독특성은 감정조직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있다.

매개 명작들의 정서적흐름의 특성, 감정조직의 독특성은 매 형작들의 양상의 특성을 조건짓고있다.

원래 양상은 감정조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감정조직의 특성은 양상의 기본바탕으로 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는 나라 잃은 민족과 압박받는 계급이 체험하는 비극적감정을 집요하게 추구해나감으로써 자기의 독자적인 감정세계를 개척하고있다.

작품은 억울하게도 어린 순희가 눈이 멀게 되었을 때 안겨주는 비극적감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빠를 찾아 고통의 700 리길을 피눈물을 삼키며 다녀온 꽃분이가 순희의 《행방불명》에 대한 끔찍한 사연을 알게 될 때에 이르기까지 비극적인 감정으로 일관되어 있다.

련속되고 심화되는 수난과 고통 속에서 체험하는 비극적감정은 이 명작의 전편을 일관하고있다.

이러한 감정세계를 집요하게 추구함으로써 작품은 인정심리적이며 철학성이 깊은 극으로서의 독특한 양상을 지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울릴수 있었으며 이러한 비극과 참화를 빚어낸 원수 일제침략자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을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려야 한다는 진리를 깊이 깨우쳐줄수 있었다.

우리의 사회주의문학을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밝혀준 길을 따라 찬란히 개화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양상창조에서 명작들이 밝혀준 빛나는 모범을 창작실천에 훌륭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작품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양상을 탐구하는데 창작적열정을 쏟아부어야 할것이다.

환희와 열정, 끓어넘치는 혁명적랑만과 심오한 철학적사색, 사랑과 증오, 찬양과 풍자, 숭엄한 감정과 경쾌한 정서 등은 모든 작품에 고루 다 담길수 없다. 우리에게는 밝은 색조의 작품과 함께 힘있고 박력있는 작품, 무게있고 깊이있는 사색과 담담한 화폭으로 충만된 작품, 경희극적인 작품도 요구된다.

어떤 작품은 보다 많이 우리 시대의 랑만과 희열을, 또 다른 작품은 달빛 하나를 놓고도 생활과 시대를 일반화하는 깊은 철학적사색을,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은 원수놈들에 대한 예리한 풍자와 불타는 증오를 각이한 명암과 색채 속에서 개성적인 목소리와 독특한 어조로 노래할수 있을것이다. 그래야 같은 형태와 비슷한 주제의 작품도 서로 다른 맛과 함께 가지고 독자들의 심장에 커다란 사상미학적인 감화와 작용을 줄수 있는것이다.

시문학의 경우 서정이 짙은 시편들과 함께 서정성과 서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편들, 철학적사색이 보다 깊은 작품들과 정론적호소가 우렁찬 시들, 그리고 생동한 시적화폭으로 이채를 띠는 시편들 등 다양한 양상의 시작품들을 많이 내놓아야 할것이다.

다양한 양상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작품에 심어지는 종자와 주제의 성격, 그리고 거기에 담겨지는 생활내용의 폭과 특성, 감정조직을 기본으로 하는 극조직과 생활세부의 탐구방식 등에 의하여 조건지어지는 형상적각도와 밀접히 연관시켜 해당 작품의 체질에 맞는 양상을 탐구하는것이다.

주제와 종자의 독특한 성격에 의존하지 않고 종자를 아름다운 형상의 꽃으로 피울수 없으며 생활내용의 폭을 고려함이 없이 양상을 탐구하여서는 생활적내용에 알맞는 크기와 색깔의 형상의 옷을 입힐수 없다. 또한 극적전개와 생활세부의 탐구방식에 따르는 형상적각도와 밀접히 연관되며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양상을 탐구함이 없이는 작품의 형상전반을 하나의 방향으로 통일시키는 요소로서의 양상을 창조할수 없다.

양상의 탐구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양상의 통일성과 전일성을 보장하는 문제이다.

주체적문제이론이 밝힌바와 같이 양상은 작품에서 일관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한 작품안에서 양상이 분열되고 교체되면 작품전체의 모습이 일그러지게 되며 감정조직의 일관성이 파탄되게 된다.

우리 작가들은 작품의 체질에 맞으며 일관성이 있고 다양한 양상을 가진 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하여 창조적 사색과 탐구를 거듭해야 할것이다.

단편소설의 흥미

박영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예술을 건전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예술작품을 창작하는데서 예술성과 사상성을 옹게 결합시켜야 합니다.》

은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혁명적사명으로 삼고있는 우리의 단편소설은 다른 모든 문학예술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높은 사상성을 가져야 하며 그것이 고상한 예술성과 밀접히 결합됨으로써 사람들이 한번 읽기 시작하면 그것을 다 읽을 때까지 소설을 놓을 수 없도록 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독자들이 커다란 사상정신적충격을 받도록 되어야 한다.

그래야 소설을 통하여 사람들은 인간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힘과 용기를 얻을수 있으며 문학예술은 자기의 본래의 혁명적사명을 다할수 있는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창작적의도를 가지고 씌여진 작품이라도 사람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는것이 없고 흥미있는 이야기가 없으며 도식적인 틀에 박혀 참다운 형상을 창조하지 못한 경우에는 독자들이 작품을 읽고도 그 어떤 사상적교양도 받을수 없을뿐만 아니라 펼쳐들었다가도 덮어버리고말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읽혀지지 않는 소설은 있어도 아무런 가치도 없다.

흥미문제는 문학예술작품전반에 관계되는 문제이면서도 당정책을 제때에 기동적으로 민감하게 반영하여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받들고 제 2차 7개년계획수행에 일떠선 우리 근로자들을 영웅적위훈으로 힘있게 고무해야 할 혁명적단편소설 문학에서 절실하고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된다.

최근 《조선문학》에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흥미있는 단편소설들이 적지 않게 창작발표되었다.

단편소설 《영원한 기발》(최창학, 1975.11)을 비롯한 많은 단편들을 그런 실례로 들수 있을것이다.

《영원한 기발》은 읽은지가 몇해를 넘었지만 위대한 수령님께 기쁘드리는 가장 영예로운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는 처녀영웅 연속이가 그 석류속같은 이속을 드러내며 함뿍 미소를 짓고 지금도 그 어느 초소에 서있을것만 같다.

이것은 소설의 주인공들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살

아 숨쉬고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분량은 비록 작지만 단편소설은 이렇게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사상정서적감흥을 주고 여운을 주는것이다.

그러면 이 소설의 주인공이 이처럼 사람들의 심장속에 살아숨쉬면서 깊은 여운을 남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가지로 말할수 있지만 그것은 생활속에서 작가가 문제성있는 종자를 골라잡고 우리 시대 인간들의 지향에 맞게 그것을 꽃피운데 있다.

이와 함께 종자를 생동하게 꽃피울수 있도록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고 생활적인 이야기, 문학적인 이야기를 흥미있게 펼쳐준데 있다.

작가가 제아무리 좋은 종자를 찾아쥐고 훌륭한 창작의도를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형상적인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일수 있는 인간관계와 풍부한 생활을 가지지 않고서는 작품의 흥미를 보장할수 없는것이다.

가끔 종자도 좋고 소재도 감동적인데 읽어내려가기 따분하고 주인공의 형상이 생동하지 못하며 재미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인간관계를 옹게 맺어주지 못하고 풍부한 생활속에서 찾아낸 흥미있는 문학적인 이야기가 없는것과 많이 관련되는것이다.

생활의 다양하고 생동한 세부들을 흥미있게 보여줄수 있는 풍부한 생활적인 이야기들은 인간관계를 잘 맺어줄 때만이 얻어진다.

단편소설 《영원한 기발》의 인간관계는 바로 종자를 생활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한데 복종되고있다.

이 소설은 단편치고는 비교적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있다.

주인공인 처녀영웅 연속을 비롯하여 《나》의 시점에 비쳐진 빠스운전수, 빠스차장, 립산사업소 소장과 송풍식당 책임자어머니 그리고 신진시인과 주인공 연속의 편지속에 나오는 선동원처녀, 《ㅎ》방직공장에 왔던 항일혁명투사, 뿐만아니라 작품에 잠깐 비치였다 사라진 철도건설장의 대대장과 창고장, 빠스간에서 만난 신랑신부며 할머니, 젊은 운전수들까지 합치면 무려 열하고도 다섯이 넘는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주인공 연속의 성격적책을 뚜렷이 하고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가지고있는 훌륭한것들을 다 그의 풍모를 보여주는데 복종시키고있

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문학적인 이야기가 태어나고있으며 정서적감흥과 흥미를 일으키는 생활적인 이야기로 충만되어있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이야기가 생동하게 펼쳐지도록 인간관계를 잘 맺어주기 위해서는 매개 인물들에게 크거나 작거나 과제가 주어져야 한다. 작품에 심어놓은 종자와 주제의 해명이 복종되고 그것을 둘러싸고 인물들이 서로 작용하면서 성격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과제, 작품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참여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과제가 제시되어야 하는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필요치 않은 그 어떤 기묘하게 엮힌 인간관계도 사실에 있어서는 필요없는것이다.

《영원한 기발》에 적지 않게 등장하는 인물들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비교적 옹계 해결되고있다.

주인공과 기본관계속에 있는 《나》와 송풍식당 책임자어머니는 물론 공장에 견학왔던 항일혁명녀투사와 립산사업소 소장, 빠스운전수와 녀성소대 선동원처녀, 잠간 나왔다 사라진 신랑신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맡은 과제는 얼마나 뚜렷하며 주인공의 성격을 부각시키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는것인가!

때문에 독자들이 벌써 소설의 첫머리를 읽어내려가면 끝까지 읽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생활이 흥미있게 펼쳐지는것이다.

우리가 소설에서 주인공인 처녀영웅 연속이와 직접 만나게 되는것은 다만 검산령우의 길손들을 위하여 맵판 눈보라속을 뚫고 물둥이를 이고 령을 툭아오르는 장면까지뿐이다.

그외에는 《나》의 《ㅎ》방직공장견학당시에 있던 회상과 식당책임자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연속이가 식당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만난뿐이다. 하지만 등장인물들과의 관계속에서 생활을 선도하는 주체형의 피가 끓어넘치는 주인공 처녀의 아름다운 모습은 얼마나 뜨겁게 안겨오는것인가?

이 작품의 흥미는 인간관계를 잘 맺어준데 기초하여 작품의 초점을 명백히 하고 주인공의 성격형상에 도움이 되도록 생활론리를 따라 예술적 세부들을 깊이 파보여준데 있다.

그렇기때문에 독자들은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만날수 있을듯 친근하게 그려진 주인공의 형상에 사상정서적으로 깊이 끌려들어가면서 흥미를 가지게 되는것이다.

이 작품이 흥미를 끌게 되는것은 기발한 착상과 구성조직을 단편의 양상적특성에 맞게 한것과도 관련된다.

작가는 작품의 구성조직을 주인공의 성격이 잘 드러날수 있도록 짜고 생활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진실하게 파보여주고있다.

작품의 종자를 꽃피우기 위하여 현재의 구성조직과는 다르게 가령 특과기자인 《나》라는 인물이 처녀와 만나 로력영웅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듣게 할수도 있었을것이고 주인공이 달려간 철도공사장에 찾아가서 그의 투쟁모습을 직접 보게 되는것으로 구성을 짤수도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면 주인공의 형상은 지금처럼 그렇게 감명깊은 여운을 남기지는 못할것이다.

함주-대흥행빠스안에서 검산령명의 소박한 식당으로, 눈속을 헤치고 툭아오른 령우에서 철도공사장으로 끊임없이 무대를 옮기며 작품은 등장인물들의 이야기와 《나》의 회상 주인공과의 직접적인 대면과 그가 보낸 편지 등 다양한 형상수법을 립체적인 구성속에 정중하게 활용하고있다. 그리하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처럼 살며 일하려는 주인공의 가슴에 맥박치는 고상한 사상감정은 깊은 인상을 남기며 펼쳐지는것이다. 이것은 이 작품의 고유한 종자를 꽃피우기 위한 적절한 구성조직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작품을 생활이 가득차있는 문학적인 이야기,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마음을 끌어당기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러지게 되고 그것이 빛을 뿌리며 흥미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문학적인 이야기를 담음으로써 이 단편소설은 공산주의인간학의 경지에 오를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단편소설이 흥미있게 되려면 문학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할뿐아니라 그것이 깊은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전개되어야다. 이런 면에서 단편소설 《우리가 자란 집》(박현, 1975. 4)은 매우 인상적이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서 전쟁의 나날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혁명의 새세대로 어엿하게 자라났음을 초등학교학생을 통하여 흥미있게 펼쳐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초등학교원은 단순히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생활상편리를 돌봐준곳이었을뿐아니라 그들을 공산주의 새인간으로 어엿이 키워준 혁명의 집, 사랑의 집이었다는 깊은 뜻을 새롭게 느끼게 된다. 단편소설로서는 펍 긴 생활로정을 보여주면서도 작품이 흥미있게 된것은 생활을 분석하지 않고 심금을 울리는 문학적인 이야기에로 독자들이 스스로 이끌려들어가게끔 주인공의 생활을 그린데 있는것이다.

소설은 시종일관 주인공 나의 시점에서 지난날 학원에서 자란 때 있었던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깊은 정서속에 펼쳐주고있다.

아버지 오는 날에 달랬다던 새 리봉을 곱게 달고

첫 정치조직적인 소년단 입단날에 조용한 구락부에서 아버지원수님의 초상화 우리러 경건히 서있는 예쁜이, 전선에서 돌아온 아버지를 따라가는 승태를 바래우고 자기의 아버지도 그렇게 불쑥 나타날것만 같은 간절한 그리움에 잠겨 옛집터로 갔다가 아버지의 전사를 깨닫고 슬퍼하는 어린 주인공의 모습, 아버지의 전사가 믿어질수록 만나기조차 꺼려하며 파돌린 너동생 예쁜이에 대한 후회와 그를 찾아가 쓸쓸한 마음을 작은 가슴에 깊숙이 감추며 제법 오빠답게 애무하여주는 모습 등 이 모든 세부들은 독자들에게 얼마나 잊을수 없는 회상을 남겨주는가.

이처럼 주인공의 섬세한 심리적움직임을 보여주는 생활세부를 정서깊이 그림으로써 작품은 독자들을 소설세계에 끌려들어가게 하고있다.

예술적흥미는 언제나 일상생활에 체현되어있는 깊은 뜻을 새롭게 밝혀내며 사람들을 아름답고 고상한 생활로 스스로 이끌려들어가게 하는데서 생겨나는것이다.

단편소설 《우리가 자란 집》에는 순수한 흥미를 끌기 위한 놀라운 사건이나 기이한 생활은 없다.

소설의 주인공 《나》(박창기)이 지울수 없는 추억속에 펼쳐지는 학원생활은 엄혹하던 전쟁의 그 나날과 전후시기에 사람들이 볼수 있었고 느낄수 있었던 평범한 이야기이다.

기나긴 인류력사에 기록된 수천수만의 전쟁은 얼마나 많은 고아들을 산생시켰으며 랑부모를 가지고 살길이 없어 정처없이 헤매던 그 모진 세월 부모를 잃은 고아들의 처지는 그 얼마나 비참하였던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어 어느 다리밑에서 소문도 없이 숨지거나 거지의 신세를 면치못한 고아들의 운명...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에 사람들은 전쟁의 불길속에서 흩어져 헤매던 고아들을 하나 둘 데려다가 잠자리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 학원의 품에 대하여 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이것은 그 시절에 누구나 고맙게 느끼며 체험한 생활감정이다.

그러나 소설은 누구나 느낀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속에서 느끼고있었던 학원생활을 그리면서 거기에 체현되어있는 깊은 뜻, 다시 말하여 학원이 단순히 부모 잃은 아이들에게 잠자리를 주고 돌봐준 집이 아니라 원썬놈들과의 결전에서 장렬하게 희생된 부모들의 뜻을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주체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혁명의 새세대로 억세계 키워 준 혁명의 집이었다는 뜻을 새롭게 밝혀주며 독자들을 아름답고 고상한 예술적정서로 힘있게 이끌어준다.

키도 마음도 몰라보게 자란 주인공의 성장한 모습, 그의 의젓한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은 고아들을 안아주고 키워준 학원의 품에 대하여 얼마나 더 깊이 새로운것을 알게 되는것인가!

《우리가 자란 집》이 독자들에게 흥미를 주고 펼쳐들면 놓고싶지 않도록 된것은 심금을 울리는 문학적인 이야기와 그속에 체현되어있는 깊은 뜻을 새롭게 밝혀낸 작가의 진지한 탐구의 열매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작가들이 흥미있는 단편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현실속에 들어가 알찬 종자를 골라잡는것과 함께 심금을 울리는 생활적인 이야기를 탐구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흥미있는 이야기를 찾는다는 하여 생활의 본질이 아닌 순수한 《흥미》거리를 찾아서는 안될것이다.

작가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실에 들어가 독창적이며 개성적인 종자를 골라잡은 다음 그것을 형상적으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기량문제가 반드시 제기되는것이다.

그것은 종자를 옹게 잡았다 하여 작품이 저절로 완성되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작가의 고심어린 탐구가 요구되며 창작적 지혜와 재능이 최대한으로 발양되어야 한다.

종자를 찾은 다음에는 그것을 밝히는데 복무한수 있도록 구성을 짜고 인간관계를 맺어주며 생활적세부들을 집중시키고 거기에 알맞은 어휘들을 써서 예술적형상을 높여야 한다.

바로 이 고리가 풀리지 못하면 그 어떤 좋은 종자라도 옹게 움트고 줄기와 아지, 잎사귀가 나와 아름다운 형상의 꽃을 피울수 없게 되는것이며 따라서 작품의 교양적의의와 흥미도 보장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이 고리가 풀리지 못하면 기발한 착상에 의하여 새롭게 발견한 문제점을 잡았다 할지라도 작가의 창작적의도를 충분히 실현할수 없다.

크지 않은 평범한 생활의 한단락 한측면을 가지고 자주적인간들의 감동적인 형상을 훌륭하게 펼치는 창작적솜씨를 보아야 한 단편소설창작에서 창작적기량문제는 더욱 절실하게 제기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흥미있는 작품창작을 위하여 작가들은 자기의 창작기량을 높이기위한데 모든 힘을 다해야 할것이다.

오는 우리의 혁명적단편소설들에 대한 수요는 날로 더욱 높아지고있다.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받들고 우리 작가들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단편소설을 더 많이 창작하여 제 2차 7개년계획수행에 일떠선 근로자들을 영웅적위훈으로 힘있게 고무해야 할것이다.

독자편지

용해공들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시집을 더 많이!

시집 《영광의 노래》(조성관)는 오늘도 우리 공장 동무들의 눈과 손을 이어가며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시집 《영광의 노래》속에 담겨진 시들이 독자들의 가슴을 쥐어흔들며 것처럼 사랑을 받게 되는것은 매개 시들이 새로운 독창적종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것과 시인의 세련된 필력과 기교로 하여 제대로 짜이고 형상화된 기름먹은 문장들때문만이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늘 노동자, 농민과 접촉하고 노동자, 농민과 결합되며 그들속에서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의 원천을 찾아낼줄 아는, 노동자, 농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혁명적 작가, 예술인으로 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동한 생활을 반영한 작품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의 모든 초소들마다에서 투쟁의 무기, 대오의 기수로 되기 마련인것입니다.

올해 1.4 분기 강철생산계획을 마감고비에서 다그쳐가던 지난 3월하순 어느날이였습니다.

자재보장형편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싶어 공장구내를 빙 한바퀴 돌아온 나는 강철직장 1호전기로 앞에 와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1호전기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공장을 현지도하시실적마다 맨 선참 찾아주시는 영광의 로인데 영웅로장이 지휘하는 용해장의 첫머리에 있습니다.

때마침 1호전기로 용해공들은 출강뒤 새 장입작업을 끝내고 짧은 휴식시간을 리용하여 더 많은 쇠물을 내기 위한 의견들을 나누고 저마끔 간단한 결의들을 다지는 참이였습니다.

그런데 결의가 거의 끝날무렵에 한 용해공이 문득 일어서며 다음과 같은 시를 랑송하는것이였습니다.

아,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시려
협산준령 헤쳐오신 수천만리
솟는 해 지는 달을
길우에서 맞고 보내시며
차창에 지우신 단풍잎 그 몇번이시던가
눈바람 땀잔 조국땅 북변의 한끝에서
파도 사나운 서해의 간석지 한끝까지
전투원들과 함께 가고 가는 행군렬차

전투장파라 옮겨가는 혁명의 사령부-

이번에는 다른 동무가 로앞에 다가서며 또 새로운 시를 랑송하는것이였습니다.

오, 어버이수령님 찾아오실적마다
걸음 멈추시는 용해장의 첫머리
그때마다 온 로대렬앞에 서서
지휘관처럼 보고를 올려야 했던 영광이여
.....

철갑의 위풍을 떨치며
주련이 늘어선 전기로 대렬의 첫머리
너는 오늘도 트림없이
대렬의 1번수 제자리를 지켜섰구나

어느덧 나의 눈앞에는 오매에도 그립던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열차를 눈시울 뜨거이 우러르던 감격의 그날이며 그이께서 용해장에 오르시여 용해공들의 손목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만면에 환히 미소지으시던 자애로우신 그 영상이 환히 어리여왔습니다.

다음순간 용해시간을 앞당기며 출강하는 용해공들의 씩씩한 모습, 자기앞에 맡겨진 쇠물량을 두세 배로 넘쳐하고 위대한 수령님앞에 삼가 충성의 보고를 올리던 그 모습들이 내 가슴을 마구 뚫게 했습니다.

자재를 대주는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 어버이수령님께서 잡아주신 손으로 직접 쇠물을 뽑는 용해공들의 마음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바로 그렇기때문에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높이 받들고 불도가니처럼 들끓는 우리 공장 강철로동계급은 공장앞에 맡겨진 제 2차 7개년계획의 첫째 첫분기 강철, 강재 생산계획도 지난 3월 27일현재 지표별로 모두 어김없이 앞당겨 초과완수하고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올렸던것입니다.

어버이수령님 모신 그날의 감격이 담겨있는 시, 날에 날마다 새로운 혁신과 기적을 창조하게 하는 시, 출근길에, 퇴근길에, 때로는 일하면서 읽어드는 시, 우리 용해공들에게 기쁨을 주고 새힘과 용기를 더 해주는 시들로 묶어진 이런 시집을 더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제강소 로동자 허창길